

■ 일정표

일 정	프로그램
13:30~14:00	접수 및 다과
14:00~14:10	<p>개회 사회 : 황성재(수원과학대학교 교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사 유진이(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소장) • 환영사 이필재(평택대학교 총장) • 축사1 원유철(평택갑 국회의원) • 축사2 김선기(전 평택시장) • 격려사 김태석(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14:10~14:40	<p>기조강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미래한국사회와 중도입국청소년 • 발표자 홍영균(사회적협동조합 미래환경 이사장)
14:40~15:00	다문화 공연 평택 다문화대안학교 학생
15:00~16:20	<p>주제발표 사회 :김정희(충신대학교 교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1. 중도입국청소년의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배상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발표 2. 중도입국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적합 직종과 정책 과제 김은석(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 발표 3. 중도입국청소년 진로 및 자립지원 현황 및 모형 제시 강은이(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센터장) • 발표 4.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공동체 역할 서영우(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수련관 관장)
16:20~16:45	휴식 커피 및 다과
16:45~17:55	<p>토론 사회 :전경숙(평택대학교 교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1. 김수정(평택대학교 교수) • 토론 2. 오경희(숲힐링연구소 라포레 소장) • 토론 3. 최영미(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4. 이은경(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연구원) <p>질의응답 청중</p>
17:55~18:00	폐회 • 폐회 및 단체사진

목 차

개회

- 개회사 / 유진이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소장) i
- 환영사 / 이필재 (평택대학교 총장) ii
- 축사 1 / 원유철 (국회의원) iii
- 축사 2 / 김선기 (전 평택시장) vi
- 격려사 / 김태석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v

기조강연

- 미래한국사회와 중도입국청소년 / 홍영균 (사회적협동조합 미래환경 이사장) 7

주제발표

- 중도입국청소년의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 배상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31
- 중도입국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적합 직종과 정책 과제 / 김은석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49
- 중도입국청소년 진로 및 자립지원 현황 및 모형 제시 / 강은이 (안산글로벌 청소년센터 센터장) 81
-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공동체 역할 / 서영우 (대구광역시달서구청 소년수련관 관장) 97

토론

- 토론 1 / 김수정 (평택대학교 교수) 99
- 토론 2 / 오경희 (숲힐링연구소 라포레 소장) 103
- 토론 3 / 최영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107
- 토론 4 / 이은경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연구원) 111

부록

- 평택대 다문화가족센터 소개 115
- 평택다문화대안학교 소개 125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무더운 한여름의 기운이 가을의 쾌적함으로 바뀌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청명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계절, 각각의 다양한 색의 단풍처럼 우리 사회도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는 2006년 개소 이래로 다문화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한 연구사업 및 학술대회를 매년 개최해 왔습니다. 올해도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후원을 받아 다문화가족포럼 연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7 학술대회는 다문화아동청소년학회와 함께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정책과 취업지원 방향'이라는 주제로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지속가능한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지원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다문화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거버넌스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많은 전문가분들의 주제 발표 및 토론을 통해 다문화사회에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이 논의될 것을 기대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함께하시어 소중한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가을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이 늘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28일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소장
다문화아동청소년학회 회장
유진이 교수

환 영 사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교에서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정책과 취업지원 방향”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여해주신 원유철 국회의원님, 김태석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님, 그리고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교수님들과 전문가분들, 지역의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는 2006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인 다문화가족 복지지원 전문 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어 올해로 개관 1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센터에서는 디딤돌스쿨,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역사회 다문화교육사업, 조기적응프로그램, 육군군종을 위한 다문화전문가 교육, 다문화 서포터즈, 다문화 관련 연구 및 세미나 등 문화적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다문화관련 연구·조사 및 다문화가족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2017 다문화가족포럼 연계 학술대회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지원 현황분석을 통한 진로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학술발표와 토론을 통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학술대회를 후원해 주신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다문화아동청소년학회 편집위원분들, 다문화가족센터 연구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대학은 다문화가족과 이주민 자녀들의 꿈과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9월 28일

평택대학교 총장
이 필 재

축 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원유철입니다.

오늘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정책과 취업지원 방향”이라는 주제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해마다 다문화가정 수가 점차 증가하며 우리사회는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평택시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다문화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모두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 학술대회가 개최되어 아주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진로 및 취업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글로벌 사회로 앞장 서는 큰 자양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다문화가족과 자녀들의 꿈과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이들을 돕는 일에 저희 국회의원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이들을 지원하는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와 유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학술대회를 주최하신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께서도 우리 사회 다문화가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좋은 제언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9월 28일

국회의원
원유철

축 사

안녕하십니까, 전 평택시장 김선기입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 더위가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왔습니다. 머지않아 다가올 한가위에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정책과 취업지원 방향”이라는 주제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다문화사회에서 우리 평택지역에도 이미 많은 이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들의 자녀세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다문화청소년의 정착과 진로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이 중요하기에 오늘 이 자리가 무척이나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택대학교에서는 이미 2006년부터 다문화가족센터를 개소하여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과 연구를 수행하며, 평택지역 다문화가족의 정착지원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의 노고에 큰 감사를 드리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학계와 각 분야의 협력을 이루는 귀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께서도 오늘 자리를 통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좋은 제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전 평택시장
김선기

격려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김태석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포럼 연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무척이나 뜻깊습니다. 먼저, 이번 학술대회를 위해 애써주신 평택대학교 총장님과 다문화가족센터 유진이 소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다문화사회를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연구자 및 현장전문가 분들의 노력으로 준비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다문화사회로 이미 진입하고 지속적으로 이주민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응과 진로지원은 너무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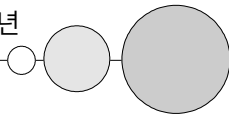
오늘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정책과 취업지원 방향”이라는 주제의 학술대회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다문화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귀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더욱 다문화가족이 살기 좋은 나라로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도 이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학술대회를 준비하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참여하신 여러분들께서도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2017년 9월 2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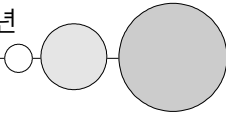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김태석



2017 다문화가족포럼 연계 학술대회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정책과 취업지원방향”

미래 한국사회와 중도입국청소년

홍영균 (사회적협동조합 미래환경 이사장)



미래 한국사회와 중도입국청소년

홍영균¹⁾

사회적협동조합 미래환경 이사장

시작하며

본 포럼의 주제인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정책과 취업지원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당면할 20년후 미래에 대한 생각을 공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037년의 미래사회는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또한 한국사회는 세계속 지구촌에서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미래한국사회에서 생존을 뛰어넘어 주역으로 활동할 미래인재는 어떠한 자질이 필요한 것일까? 물론, 중도입국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에게 이러한 자질을 요구해야 하겠지만 중도입국 청소년만의 특성을 살린 보다 특화된 영역은 무엇이 있을까? 미래한국사회에서 중도입국청소년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영역은 어떠한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중도입국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이 갖고 있는 청소년 고유의 문제들은 한국사회에서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문명국가들의 공통된, 오래된 숙제이기도 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버릇없이 공부안하는 청소년들은 바빌론, 이집트에서 만이 아니라 중국, 한국에서도 옛 선현들의 걱정거리중 하나였다. 허기사 우리자신들도 질풍노도의 청춘기에 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살아오지 않았던가? 인생 선배로서 우리는 청소년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할까? 자식들과 손자들에게 우리가 전수해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 분명히 지금 당장의 생존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100년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초를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 청소년에 대한 진로 및 취업지원에 대한 논의보다도 우리 자신의 노후에 대한 대비, 아니 생각만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1) 전 홍익대학교 학장, (사)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이사장, 평택다문화대안학교 교장

더욱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한다. 기성세대들의 앞으로의 삶은 청소년이 성인이 되는 10-20년보다 더 오래 30-50년 지속될 것이다. 우리들이 당면할 초고령사회에서의 삶의 의미와 방법을 찾아서 이를 청소년에게 전수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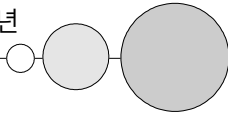
미래에 대한 생각과 걱정은 모든 인류의 오래된 숙제이다. 그러나 우리 앞 세대들은 큰 사회변화가 없는 내일에 대한 근심이였다면 4차산업혁명이 시작된 지금은 내일의 변화 속도 및 현상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1. 미래사회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과학기술혁신과 더불어 제4차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있다. 천동설에 의심을 갖게 되었던 과학자들이 지동설을 입증하기까지는 100년이 필요했으나 초기 컴퓨터에서 인터넷 도입까지 30년 그리고 인터넷으로 무한한 정보를 공유하던 시대에서 순식간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었다. 제4차산업혁명에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결합하여 인터넷, 내비게이션, 전자제품들은 물론 우리 생활의 모든 곳(사람, 사물, 공간이 연결된 초연결사회)에서 인간의 지능을 초월한 로봇에 의한 지원(또는 지배)을 받게 될 것이다. 증기에 의한 1차산업혁명과 전기 및 전자에 의한 2차, 3차 산업혁명에서 그러했듯이 산업의 발전은 기술과 자본의 결합으로 진행되어 모든 경제활동의 원천이 되어왔다. 아니나 다를까? 제4차산업혁명이라는 개념부터가 누구보다 세계 경제 흐름에 재빠른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에서 2016년부터 시작되었다. 이제 우리의 미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없이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1.1 산업혁명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이 '4차 산업혁명'을 화두로 꺼낸 후 우리 사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열풍이 불고 있다. 이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수십 종의 도서가 출간하였고, 2016년 6월 국회 3당 대표연설에 이어 2017년 대선 후보들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이번 정부에서는 기존의 중소기업청(산업자원부 외청으로 1996년 신설)을 금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로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런 열풍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 및 개념이 타당한가? 3차 산업혁명은 있었는가? 4차 산업혁명이 제러미 리프킨²⁾의 3차 산업혁명과는 어떠한 관계인가? 그것과 단절된 새로운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많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세계경제포럼에서는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의 시작 연도와 주력 부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1> 산업혁명의 특성

구분	시작 연도	해당 기술	주력 부문
1차 산업혁명	1784년	역직기	수력과 증기력, 기계적 생산설비
2차 산업혁명	1870년	생산라인	분업, 전기, 대량생산
3차 산업혁명	1969년	Mdicon 084	전자공학, 정보기술, 자동화 생산
4차 산업혁명	?	?	CPS(cyber-physical system)

*자료: World Economic Forum(2016); BMBF(2013), p.13(figure1)

현재 1, 2차 산업혁명은 학술적으로 정착된 용어이지만 3, 4차 산업혁명은 그렇지 않으며 앞으로 3차 산업혁명은 학술적 개념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³⁾. 그러나 현재로서는 4차 산업혁명이 3차 산업혁명의 연장인지, 아니면 독자적인 국면인지를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⁴⁾.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이론으로는 기술혁신과 경제발전의 역사적 변천을 다룬 장기파동이론(long wave theory)을 들 수 있다. 이 이론은 자본주의 경제가 약 50년을 주기로 호황(prosperity), 침체(recession), 불황(depression), 회복(recovery)과 같은 파동을 경험해 왔다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신기술의 대두와 국제질서의 재편이 서로 맞물려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1차 장기파동은 1차 산업혁명과, 3차 장기파동은 2차 산업혁명과, 5차 장기파동은 3차 산업혁명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⁵⁾.

2) 제러미 리프킨(2012)은 3차 산업혁명을 통해 수천 개의 비즈니스와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수평적 관계가 정립됨으로써 경제·사회·문화·교육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고 예견한다.
 3) 송성수(2017). 역사에서 배우는 산업혁명론: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STEPI Vol. 207.
 4) 산업혁명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하였다. ①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핵심기술이 존재해야 한다. ② 핵심기술이 다른 기술혁신과 연결되어 포괄적 연쇄효과를 유발해야 한다. ③ 산업혁명으로 인한 경제적 구조의 변화가 이전 시기와 구분되어야 한다. ④ 사회문화적 차원에서도 이전의 시기와 구분되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
 5) 송성수(2017). 역사에서 배우는 산업혁명론: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STEPI Vol. 207.

<표 2> 자본주의 경제의 장기파동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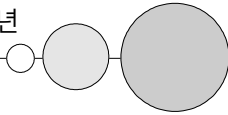
장기파동	기간	핵심 산업	주도국가	비고
1차	1760/70~1820/30	섬유	영국	(1차) 산업혁명
2차	1820/30~1870/80	철도	영국	빅토리아 번영기
3차	1870/80~1920/30	전기, 화학	미국, 독일	대기업의 출현
4차	1920/30~1970/80	자동차	미국, 일본	포드식 생산방식
5차	1970/80~2020/30	전자, 정보	미국,	정보사회
6차	2015~	AI, 빅데이터	다국적회사	기계인간시대

* 1차-5차까지는 각주 3에서 인용하였으나 6차는 본 발표자의 의견임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 열광하는 것은 새로운 네이밍에 열광하는 우리 풍토와 이를 계기로 새로운 시장 진입을 기대하는 아웃사이더들의 염원이 맞물려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한국 경제와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계기를 찾아야 하며 이는 제레미 리프킨이 제시한 수평적 권력 이동에 의한 협업시대로의 전환이 바람직할 것이다(3차 산업혁명, 제레미 리프킨). 이런 열풍이 한 때의 유행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사회 의식변화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개념, 방향과 내용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 및 과학기술 발전 현황과 전망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의미에 대한 인문학적, 철학적 사고를 시작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산업경쟁력 제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문제를 4차 산업혁명으로 해결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이론보다는 전략으로 이해하고 우리의 현안을 해결하는 국가정책 7대 의제를 제시하고 있다⁶⁾. 4차 산업혁명의 실행 가능한 국가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기존 전략 및 정책과의 관계) 1, 2, 3차 산업혁명 전략과의 연속성 고려, (사회적 가치의 다양성) 교육과 복지 등 장기적 이슈의 다양한 가치 고려, (경제주체 간 역할) 단기에 전략과 집중 분야를 결정하고 자원을 투입하려는 정부 주도 마인드 대신 민간이 자생적으로 산업 생태계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정부의 인내심 필요 등을 제언하고 있다. 또한 저자인 최병삼 박사는 "4차 산업혁명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의 의제가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신기술이 일자리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 같은 수동적인 관점보다 그 이상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전략을 고민하는 능동적인 논의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6) 최병삼, 양희태, 이재용(2017). 제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국가전략의 주요 의제 [제4차 산업혁명 특별기획 2], STEPI Insight Vo. 215.



1.2 서기 2000년대 생활⁷⁾

1965년 '심술통'으로 유명한 이정문 화백이 한 학생 잡지사의 요청으로 그린 '서기 2000년대 생활의 이모저모'에 그려진 만화에서는 스마트폰을 '소형 TV 전화기'라고 지칭하며 화상 통화를 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그밖에도 여기에 묘사된 2000년대의 생활 모습에는 공해가 없는 전기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집의 지붕은 태양열 패널로 덮여 있다. 원격으로 집에서 치료와 교육을 받는 모습이 그려져 있으며, '움직이는 도로'는 요즘 지하철역이나 공항 등에서 이용하는 무빙워크와 비슷하다. 컴퓨터가 우리 생활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전망은 물론이고 전파를 이용해 TV로 신문을 보는 모습과 청소로봇까지 지금 생활을 거의 모두 예상해냈다.

이 화백이 그림을 그릴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5달러에 불과했다. 또 그럴 듯한 연구소 하나 없던 시절이다. 당시 24세였던 이 화백은 미래학자들이 미래사회를 전망한 신문 기사를 스크랩북으로 만들어 놓고, 항상 과학 기사와 뉴스를 관심 있게 지켜보았다고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광복 100주년인 2045년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지 예측한 '2045년 미래사회@인터넷'⁸⁾을 2016년 4월 20일 발간했다. 인터넷산업, 정보보호, 문화·윤리, 법·제도, 사회 등 5개 분야의 전문가 13명이 머리를 맞대서 펴낸 미래 예측서다.

이에 의하면 2045년엔 시속 6000km로 달리는 진공관 튜브 형태의 열차가 등장해 전 세계 어느 곳이든 6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고, 인간의 평균 수명이 120세로 늘어나게 된다. 자율주행차가 일상화되고 택시도 운전자 없는 로봇 택시로 대체돼 자동차로 어디든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사물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스마트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냉난방시스템도 거주자의 생활패턴을 인지해 자동으로 최적의 실내 온도로 조정한다. 개나 고양이 대신 애완로봇을 키우는 인구가 무려 1,000만 명에 이르게 되어, 이를 수리하거나 성형을 전담하는 로봇미용사가 인기직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투로봇과 무인기가 국방을 맡으면서 질병제가 모병제로 바뀐다.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기술과 3D 기술이 발달해 집안에서 의료 및 교육, 오락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전 세계 100여 개 이상의 언어를

7) 이성규(2016). 30년후 미래사회는 어떤 모습?, 사이언스타임즈 라운지.

8)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https://www.kisa.or.kr/public/library/etc_List.jsp

실시간으로 번역하는 기기가 등장해 더 이상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 골머리를 앓지 않아도 된다.

1.3 2045년 이후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2045년 이후의 미래는 더 이상 예측할 수 없다고 한다. 인공지능이 전 인류 지능의 총합마저 크게 앞서는 '특이점'이 오기 때문이라고 한다. 컴퓨터의 아버지 폰 노이만에 의해 처음 언급된 후 레이 커즈와일에 의해 널리 알려진 '특이점(Singularity)'이 오게 되면, 인간이 기계나 기술을 제어할 수 있는 속도를 넘어서게 된다. 즉, 기술이 기술을 발전시키게 되는데, 따라서 인간은 기술을 통제하기는커녕 이해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며 이를 2045년쯤으로 전망하였다. 그런데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세기적인 바둑 대결 이후 특이점이 오는 시기가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1.4 미래사회 5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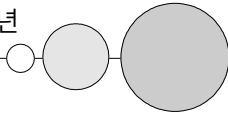
농경시대 1만년, 산업시대 300년, 정보화시대 50년, 2015년부터 제4차산업시대가 오고 있다. 앞으로 다가오는 10년은 더욱 더 빠른 속도로 변한다. 1522년 마젤란은 지구일주에 3년 걸렸다. 1873년 쥘 베른은 80일간의 세계일주를 썼다. 지금 이순간에도 GPS 위성은 지구를 하루에 2바퀴 돌고 있다. 마차가 등장한 이래 1850년대 까지도 최대속도는 시속 10Km였다. 1890년에 처음 등장한 자동차는 시속 100Km 이상 달린다. 빛의 속도로 변화하기 시작한 미래사회 예측을 위해 유엔미래포럼이 뽑은 메가트렌드⁹⁾ 5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Aging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는 오래전부터 유럽 국가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현재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최저출산율 등으로 시달리고 있다. 고령화에 대비하는 정책과 시설 구조변화 등이 시급하다.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계단 없는 건물, 문턱 없는 바닥, 고령인구가 끌고 다닐 휠체어가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 도로, 빌딩을 이제는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만들어야 한다. 고령화가 되면 명함, 간판, 홍보물도 적은 글씨에서 큰 글씨로 디자인하고, 가로등도 더 밝고 환하게, 신호등 대기

9)

<http://www.indaily.co.kr/client/news/newsView.asp?nBcate=F1002&nMcate=M1004&nScate=&nIdx=14869&cpage=1&nType=1>



시간도 길게 설정해야 하고, 모든 마이크나 확장기는 더 크게 틀어야 한다. 고령사회에 맞는 사회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

2) Bio-Nano 바이오-나노 혁명

미국정부가 앞으로 20년간 바이오 나노 등의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지 10년이 지났다. 바이오혁명이 일어나 인간의 수명연장과 인간능력향상이 일어나고 있다. 유전자치료, 암 정복, 장기생산, 뇌공학발전, 개인맞춤의학, 원거리 화상진료 등이 다가왔다. 나노의복이 나와서 셀프 클리닝이 되면 옷을 갈아입지 않아 의류산업의 쇠퇴, ICT의 사물인터넷 사물지능이 나와서 세상을 더욱더 하나로 연결시키며 모든 것은 네트워크화 된다. 인지공학 뇌공학으로 뇌를 향상시키는 다양한 기술이 이미 나와 있다.

3) Climate Change 기후변화

기후에너지산업에서는 2030년 지구촌 인구의 절반이 에너지농사를 짓는다고 한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우주태양광, 풍력, 바이오연료 등 새로운 에너지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기후에너지산업은 2023년 전기차로 옮겨가는 세계 자동차시장보다 약 12배나 큰 산업으로 성장한다. 기후에너지산업에는 가장 큰 분야인 신재생에너지산업은 2023년이 되면 750조의 미국시장이 뜨고 세계시장은 공급하기 3.6을 하면 된다. 그 외 담수화, 스마트 그리드, 리사이클링, 식물농장 도시농업, 유기농업, 녹색산업, GMO산업, 기후조절(온실가스감축) 산업, 양식장, 수소에너지, 핵융합 등 다양하다.

4) Digitalization 디지털화 완성

디지털 분야는 지구촌에서 2013년에 보편화되고 이로 인해 재택근무가 부상한다. 홈네트워크를 통해서 일하러 도심으로 나가지 않고 집에서 다양한 인터넷 태블릿을 사용하여 근무를 하게 되고 스마트워크 세상이 오게 된다. 요즘 두살부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사용하는 아이들은 글로 쓰여진 책을 읽지 못한다. 이들은 화면으로 읽는다. 결국 대부분의 책들은 온라인으로 출판이 될 것이며 시장규모도 미국에서 490조원 시장이 된다. 가상현실, 비디오화상대화 등으로 세계의 박물관을 실제로 가 볼 필요 없이 가상현실교육으로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된다. 디지털화는 곧 사물지능으로 넘어가는데, 지구 전체를 센서로 덮어서 지구 곳곳에서 모든 자료나 영상을 그 누구에게나 끊임없이 보내주게 되면 엄청난 정보로 모든 사람이나 사물이 똑똑해진다.

5) Education Revolution 교육혁명

칸아카데미¹⁰⁾에서는 현재 2억 3천만 개의 강좌를 무료 동영상으로 공부할 수 있다. 모든 시험 종류가 다 올라와서 원하는 모든 시험을 볼 수도 있다. 미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칸아카데미 강좌를 들려주며 수업을 한다. 2001년 MIT 강좌가 무료로 오픈하면서 2012년 5월부터 MIT, 하버드, 버클리 등이 모여서 edX.org에서는 유료증을 제공한다. 스탠포드대학은 존스 홉킨스 대학, 미시간 대학 등 다른 40여개 대학과 coursera.org를 운영한다. 그 외에도 주립대학 여러 개가 수백 개의 강좌를 무료로 수강, 유료증을 받게 하고 있다.

6) 미래 산업 분야¹¹⁾

미래 산업에서의 새로운 변화는 크게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 ① 인공지능 로봇 :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로봇에 의한 생활 변화
- ② 무인 자동차 :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에 의한 새로운 변화
- ③ 디지털 통화 : 디지털 가상 화폐에 의한 금융시스템의 변화
- ④ 바이오 : 의료보건 혁신 및 인간 수명 120세 시대의 변화
- ⑤ 가상증강현실 : 사물인터넷, 머신 러닝과 융합된 가상증강현실의 변화
- ⑥ 안전 및 안보 : 조기경보 시스템, 마이크로 드론, 보안 방화벽 및 사이버 트랩 등 안전 및 안보 산업의 변화

2. 한국의 미래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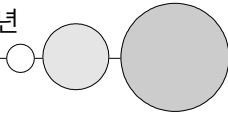
한국은 외국노동자의 유입이 어느 정도 자유로웠던 미국, 유럽 등과는 달리 오랫동안 폐쇄 사회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결국 노동력의 부족으로 인해 유입되기 시작한 외국노동자로 인해 다문화사회가 시작되게 되었다. 그리고 곧이어 농어촌 노총각들의 배필로서 중국 및 동남아 여성들이 한국인으로 귀화하게 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다문화사회가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계속되는 북한주민의 탈출에 따른 한국입국으로 우리사회에 탈북민 3만명 (2016.03 기준) 시대를 맞게 되었으며 이 또한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에 또 다른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 및 건강의료복지의 발달에 의한 장수명화는 필연적으로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선진국가의 지표로 생각되던 고령사회로

10) 칸아카데미, 전세계에 학생에게 양질의 무상교육을 제공하자.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79944&cid=59088&categoryId=59096>

11) 박영숙(2017). 일자리혁명 2030, 제롬 글렌, 비즈니스북스.



의 진입이 반갑기만 하기 보다는 전 세계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사회로의 전환은 우리사회에 많은 준비를 필요로 한다.

2.1 다문화사회

일반적으로 다문화사회는 외국인 주민 비율이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선 사회를 말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한국 전체 인구 513만명의 3.4%인 175만명(행정자치부, 2015년.1월)이 외국인 주민인 한국사회는 아직 다문화사회는 아니다. 그러나 외국인 주민 비율이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선 시군구는 총 263개중 33개에 달하며, 영등포구(17.5%), 구로구(12.5%), 안산시(11.8%), 시흥시(11.5%) 및 대구 팔달구(10.8%)는 10%를 넘고 있다. 언젠가 터질지 모르는 북한 이탈주민의 급증현상과 외국인 주민 수의 증가 추세로 미루어 볼 때, 한국사회의 다문화사회화는 시간문제일 따름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추산으로는 2030년까지 약 920만명, 2060년까지 약 1,500만명의 이민자가 필요하다고 한다(중앙일보, 2015년 8월 29일).

여성가족부 다문화정책의 대상인 다문화가족 구성원 규모는 결혼이민자·귀화자(30만), 자녀(20만), 배우자 등 기타(39만) 등 총 89만명(2015년 기준)이며 2020년에는 10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¹²⁾. 다문화가족의 특성으로는 저소득·고령의 남성 배우자가 다수로 가구소득이 일반가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다문화가족의 이혼·사별 증가, 재혼가정의 증가 등으로 가족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가족원의 사회·경제적 어려움, 자녀양육 문제 등 다양한 정책 수요를 예상하고 있다(여가부,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표 3> 거주 기간별 한국생활의 어려움

(중복응답 가능, 단위 : %)

		외로 움	가족 갈등	양육/ 교육	관공서 이용	경제 곤란	언어 문제	문화 차이*	편견/ 차별	기타	문제 없음
거 주 기 간	2년 미만	39.4	7.3	13.4	21.0	16.0	71.9	39.2	9.9	0.0	7.4
	2~5년	22.2	8.4	21.2	12.0	17.3	54.8	32.2	12.0	0.7	14.7
	5~10년	19.1	9.0	26.6	6.6	27.0	31.8	22.2	16.3	0.7	22.0
	10~15년	16.7	7.0	20.9	4.7	35.5	15.6	13.8	16.1	1.4	29.8
	15년이상	15.0	7.2	17.5	4.3	37.0	10.6	12.0	13.7	1.3	36.1

* 생활방식, 관습, 음식 등

**자료 : 여성가족부(2015).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12) 여성가족부(2017).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2017년도 시행계획.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sn=704754

2.2 저출산·고령사회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생아 수는 406,200명이었다. 1년 전보다 32,200명이나 줄었다. 2005년의 사상 최저 기록은 간단히 깨졌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2015년의 1.24명보다 줄었다. 올해 상반기 신생아 수는 18만8천명이다. 저출산은 고령화를 낳는다. 65살 이상 고령인구가 처음 15살 미만 유소년인구를 추월했다는 통계도 나왔다. 지난해 11월1일 현재 고령인구는 677만5천 명인데, 유소년인구는 676만8천 명이었다. 1년 전보다 고령인구는 3.1% 늘고, 유소년인구는 2.0%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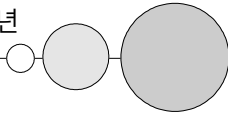
고령화 현상은 전체 인구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다. 이러한 고령비율이 7% 이상이 되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그리고 20%를 초과하게 되면 초고령사회라고 구분한다. 고령화사회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출산율은 내려가고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길어진다는 점이다.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한국은 2017년 8월 고령사회로 돌입했다. 일본은 24년, 미국은 73년, 프랑스는 113년 걸린 변화가 대한민국에는 17년 만에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한국은 노인빈곤율이 46.9%로 OECD 1위이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2006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한국은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이 일본과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나타난 사회적, 경제적 증상들을 뒤쫓아 갈 것이다¹³⁾.

2.3 남북한사회

2017년 들어서 다시금 북한의 핵개발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로 인해 미국, 일본만이 아니라 유럽 각국에서도 북한 핵미사일 대처방안에 부산하다. 그러나 정작 우리 국민만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태평하게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허긴 어찌겠는가? 6.25를 겪지 않은 우리들은 평생 동안 북한 협박 속에서 그렇게 살아온 것을. 그러나 어느 한 순간, 이태리 기자의 오보에 의해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것처럼, 소쩍새 소리에 국화가 피어난 것처럼, 남북한이 화해의 길로 들어설 줄 누가 알겠는가? 남북한이 평화공존의 시대로 하

13) 성인용 기저귀 매출 증가 등 실버산업 성장, 1인용 소포장 식품, 1인용 가전 매출 증가, 혁신형 창업감소, 생계형 창업증가, 사후 유품정리업 활성화, 대형(40평 이상) 아파트의 시세 하락, 병원과 인접한 주택의 시세 상승, 위성도시의 올드타운화 및 지가하락, 도심회귀, 주택보급률 과다, 빈집의 발생, 대규모 이민유입에 따른 경제적 혜택과 문제점 동시 증가 등을 들고 있다.



나 되어 나아갈 때, 우리가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순간에 탈북청소년들과 중도입국청소년(조선족 및 고려인 후예들)들이 우리 기성세대가 할 수 없는 역사적 소명을 다 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다문화사회는 세계속에 하나되는 국경없는 세계화시대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한국안에서 다양한 문화 충돌로 다문화사회를 맞이한 한국의 다음 단계는 세계로의 진출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계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육로를 통한 국경 출입이 유럽에서처럼 자유로워야 한다. 38선을 통해 중국, 러시아, 유럽 및 알래스카(캐나다, 미국)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날이 한국이 다문화사회와 세계화시대의 완성을 알리는 날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3. 청소년 교육

청소년 시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교육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서울교육소식¹⁴⁾에서 발간하는 '지금서울교육'이라는 웹진 기사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대학에서의 진로교육 및 창업교육에 대해서는 교육부 담당과장의 기고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3.1 직업보다는 하고 싶은 일, 진로보다는 삶의 방향을 깨우치기

최근 학교 현장에서 진로와 관련한 학생 질문지에 “구체적인 (장래 희망) 직업을 써 주세요” 라는 항목이 생겼지만 이를 반영할 답장 양식은 30년 전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고 학부모들은 지적한다. 또한 이런 질문지 양식에서도 아이들의 다양한 생각과 철학, 개성과 소신을 고려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¹⁵⁾.

1) 지금까지도 직업교육에 한정되어 있는 진로교육은 급변하는 사회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2) 지금의 교육으로는 학생들의 다양한 개성과 다른 생각들을 품을 수 없다. 논술조차도 모범답안이 존재하고, 그것을 평가지표로 삼는 한 다양함은 존중받지 못한다.

14) 서울교육소식, <http://enews.sen.go.kr/>

15) 진로교육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지금서울교육, 042017, 학부모들의 수다, <http://nowseouledu.com/2017/04/11.php>

3) 아이들도 진로체험 가면 그냥 노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사전 또는 사후교육이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진로체험은 진로교육에 대한 밑그림이나 기초작업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4) 자유학기제를 하고 진로교육을 해도 결국 내신관리를 어떻게 하고 수능을 몇 점 받아서 어느 대학 어느 과에 가느냐로 판결이 나는 현실인 것 같아 씁쓸하다.

5) 복지 대상 학생들의 경우 경제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늘어났고 체험할 기회도 많아졌지만 그런 활동들이 자존감을 높여주는 역할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 같은 입시 구조에서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집이 잘살든 못살든 모두가 희생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6) 직업교육이 그 직업을 수행하기 위한 덕목이나 윤리보다는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 우리 아이들은 자라면서 점점 더 하고 싶은 게 없어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게 지금 교육의 문제이다.

3.2 내일을 만들어가는 미래교육을 이야기하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며 현재 배운 것으로 미래를 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왜 굳이 미래교육을 강조하고 있을까? 교육이 변해야 한다는 열망이 커지고 있고, 오디세이학교 같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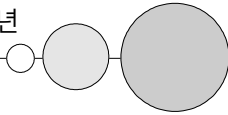
다음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미래교육을 이야기하다¹⁶⁾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 이전에는 산업 4.0를 거론하며 치열하게 경쟁해야 살아남는다고 하면서 진로교육에 치중하거나 모두 창업자가 되라고 했다. 고등학교까지는 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게 교육목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4차 산업혁명 담론은 막아야 한다.

2) 4차 산업 관련 기사에서는 대부분 대량 실업을 우려한다. 능력이 좀 없어도, 창의적이지 않아도, 공부하기 싫어도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더우기 기본소득이 보장되고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는 미래사회에서는 말이다.

3) 경쟁과 능력 중심의 교육이 아닌 문제를 진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문제를 발견하는 창의성을 필요로 한다. 프랑스, 덴마크의 문제해결 학습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시작한다.

16) 서울특별시교육청(2017). 지금서울교육, 특별기획, 내일을 만들어가는 미래교육을 이야기하다. <http://nowseouledu.com/2017/07/0102.php>



4)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증강된 능력을 그 사람의 능력으로 봐야 한다. 기존의 교육에서는 사람의 능력(성적)은 혼자 공부해서 습득한 양으로 판단했다. 이미 외국에서는 평가시간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게 할 것인가, 다른 친구들과 협력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

5) 지금은 공부 자체가 스트레스이고 하기 싫은 일이다. 기본소득이나 사회 안전망이 구축된다면 재미있는 공부를 하고 즐거운 일을 할 수 있는 유토피아를 맞이하게 된다. 미래가 정해져 있고 적응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적응의 관점이 아니라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지 디자인의 관점에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3.3 2030년 미래사회와 학교교육의 변화

13년 후인 2030년 한국의 학교교육은 어떤 모습일까? 기술과 사회의 변화는 학교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 학교가 마주할 도전은 정말 만만치 않다. 현재의 시점에서 학교교육이 나아가야 할 미래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기사를 소개한다.¹⁷⁾

1) 기술의 변화

2030년경에는 무료 인터넷강좌와 인공지능 튜터의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대학이 사라지거나 존재 방식이 달라지고, 기존의 표준화 시험이 폐지될 것이다. 또한 인체에 칩을 넣는 기술이 상용화되어 모든 지식을 인간의 뇌에 업로드 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올 것이라는 전망 등이 있다(인공지능의 빅데이터 분석보다 효율적일까?).

2) 다양성의 증가

교실 내 아동들 간에는 능력, 학습준비도, 학습양식, 흥미, 장래 희망, 문화 자본, 인종 등의 차이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급증했다. 이미 다문화 가정 아동의 비중이 50%가 넘는 학교가 적지 않다. 세계의 주요국들은 교실 내 학생의 다양성에 대처하는 것을 교육의 최우선 과제로 삼기 시작했다. 미래사회에서 교육시스템의 성공 여부는 다양성에 대해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에 달렸다고 한다(헬싱키 디자인 연구소(2011)).

다양성의 증가는 무학년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개별화 지도,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도 일반 학생들처럼 교육과정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보편

17) 서울교육 Vol.224, 2016 가을호, 특별기획, 미래교육 미래학교, 이찬승,

적 학습설계 등의 도입을 재촉할 것이다. 다양성의 증가는 또, 누가 교사가 되어야 하는가, 모든 아동을 몰입시키고 성장과 발달을 이끌어낼 교수법은 무엇인가, 표준화된 교육과정의 운영은 타당하고 유효한가 등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기존의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3) 대학 졸업장과 자격증 경쟁시대의 도래

2030년경이면 학습과 학력인증의 경계가 흐려질 것이란 예측이 많다. 학점과 학위는 여전히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대학 졸업장과 자격증명서가 서로 경쟁하게 될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등의 기업이 수여하는 자격증이 직원을 채용할 때 대학 졸업장보다 더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다. 이는 대학 졸업장의 미래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 새로운 교육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학교교육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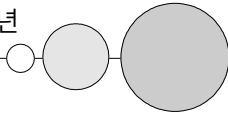
4) 2030년 학교의 변화

- 졸업장, 시험제도를 포함해 기존 학교의 물리적, 제도적 구조는 여전히 존재하나 개인의 요구와 선호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수법은 크게 바뀔 것이다.
- 학교를 중단하는(또는 졸업하는) 연령이 점점 더 낮아질 것이다. 학습에 더 적합한 환경과 대안이 학교 외부에 있기 때문이다.
- 목적과 흥미에 따라 분야 간, 과목 간, 학교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될 것이다.
- 교사의 역할은 학생이 자기주도로 개별 혹은 협력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가이드, 멘토, 코치, 파트너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학력인정, 자격증은 비공식적으로 획득한 자격을 학력으로 인정해주는 시스템이 도입될 것이며 공교육과는 별개의 다양한 자격증이 나타날 것이다.

5) 현재 교육계의 과제

미래는 언제나 과거와 현재에 뿌리를 두고 있다. 윌리엄 김슨¹⁸⁾은 1993년 미국 라디오방송국(NPR)과의 인터뷰에서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18) 위키백과, 윌리엄 김슨(William F. Gibson, 1948년 3월 17일-)은 미국 소설가로 과학소설의 장르인 사이버펑크를 개척했다. 데뷔작인 뉴로맨서(1982년)에서 "사이버스페이스, 매트릭스"라는 용어와 개념으로 유명해졌다. 2012년 9월19일 안철수 전 서울대융합기술원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기자회견문에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있지 않을 뿐이다"라는 인용구로 한국에서 유명하게 되었다.



다만 골고루 퍼지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했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미래’보다는 ‘이미 도착한 미래’에 대한 적응력과 대응력부터 높여야 한다. 교육의 공공성 위기, 교사 공동체의 붕괴와 소진, 학교교육에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학교수업을 거부하는 학생 수의 증가, 중상위권 위주의 수업으로 인한 느린 학습자의 일상적 배제, 표준화 시험의 폐해, 상대평가의 폐해, 교실 내 학생들의 다양성에 대한 대처 능력 부족, 대학입시가 학교교육을 지배하는 문제 등은 현재의 학교교육이 마주한 대표적 과제이다.

6) 교사의 과제

기존의 교사주도의 주입식 교육 방식은 학습자 주도 개인별 맞춤형 학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교사는 개별화 교육의 전문성을 갖추고 코치로서의 교사의 역할을 받아들여야 한다. 교사는 이제 교단의 현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학생의 곁으로 가 함께 배우는 관계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을 지식의 수동적 수용자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기획자로서의 학생,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학생, 교사 전문성 개발의 파트너로서의 학생, 의사결정자로서의 학생, 변화를 위한 작업의 동반자로서의 학생으로 마주해야 한다. 이것이 학생을 변화와 학습의 주체로 세우고 무너진 학교교육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길이다.

3.4 대학의 진로교육과 창업교육

한국교육개발원 웹진인 교육개발 2017년 7.8월호 교육정책 이슈와 전망에는 교육부 최승복 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이 기고한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의 진로교육과 창업교육’이라는 기사¹⁹⁾가 실려 있다. 이 글은 4차 산업혁명이 제기하는 교육적 함의와 이를 대비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대학생 진로교육, 취업지원 및 창업교육 정책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제1차, 제2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심적인 교육의 목표였던 산업역군의 양성, 즉 표준화되고 정규화된 육체적, 정신적 노동능력을 지닌 인재의 양성은 제3차,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필연적으로 창의적인 인재양성으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서는 진로교육과 창업교육의 양날의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사람마다 타고난 재능과 소질을 찾아가도록 돕고 그 분야에서 열정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진로교육이라고 한다. 창업교육이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핵심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첫째 경제적인 측면이고, 둘째는 사회문화적 측면이며, 셋째는 개인적 삶의 과정 측면이다.

19) 한국교육개발원(2017). 교육개발 Vol44, No.3. http://edzine.kedi.re.kr/2017_7m/index.jsp

4. 이주배경청소년

여성가족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²⁰⁾의 이주배경청소년²¹⁾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자신 혹은 부모세대가 한국 외 지역에서 출생, 성장한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주 경험과 배경이 있는 청소년을 말한다. 이주배경청소년은 다문화가정자녀, 외국인근로자자녀, 중도입국청소년²²⁾, 탈북청소년, 제3국출생북한이탈주민자녀²³⁾로 분류한다.

다문화가정의 청소년기 자녀는 현재 대부분 미취학 아동이나, 학령기 자녀가 점차 늘어나 학교 적응력 제고 등 새로운 정책수요를 예상하며 다문화 학생수는 '13년 55,780명 → '14년 67,806명 → '15년 82,536명 → '16년 99,186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다(교육부, 2017교육기본통계).

특히, 중도입국청소년 등 외국성장 다문화가족 자녀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성장 자녀에 비해 학교생활 적응도가 낮고, 취업·직업훈련에 대한 수요가 높아 지원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9~24세 다문화가족 자녀 중 39.2%가 외국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거나 외국에서 살다 입국한 외국성장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여가부). 9-24세의 중도입국청소년 32,000명은 2011년 12월 20,000명²⁴⁾으로 추정된 것과 비교하면 4년 만에 60%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중도입국청소년의 급작스러운 증가라기보다는 아직도 숨겨져 있는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결과일 것이다.

<표 4> 이주배경청소년 현황(총괄)

구분	외국인 주민자녀	중도입국청소년	탈북청소년
인원	207,693명	32,000여명(추정치)	3,436명
근거	행정자치부(2015. 1월) (6~18세)	여성가족부(2015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9~24세)	통일부(2016. 6월) (10~19세)

*자료: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홈페이지, <http://www.rainbowyouth.or.kr/>

20)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설립 2006년)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가는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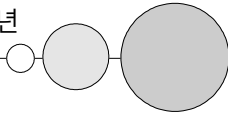
<http://www.rainbowyouth.or.kr/>

21) 이주배경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18조에 정의가 되어 있다. 이 법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이주배경청소년으로 보고 있다.

22) 중도입국청소년이란 2000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국제결혼 재혼가정의 증가에 따라 나타난 집단으로,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하여 본국의 자녀를 데려온 경우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 청소년기에 재입국한 청소년의 경우를 말한다.

23) 북한이탈주민은 사실상 탈북 후 중국 등을 경유해 국내로 입국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국에 장기간 체류하며 중국 현지인과의 사실혼 등으로 자녀를 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법적으로 탈북청소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위 '비보호청소년'이라고 불린다.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후 제 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일컬어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4) 한국청소년상담원(2011). 다문화청소년의 실태 및 개선과제, 청소년희망센터 희망소식 2011. vol.3.



4.1. 이주배경청소년 특성²⁵⁾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1) 언어 및 문화적 문제: 외국에서 출생하고 성장하다 한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 언어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한국어로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일상적인 듣거나 말하기 뿐 아니라 학습을 위한 읽기와 쓰기 등 어려움을 겪게 된다.

2) 교육 및 진로 문제: 이주과정에서 학업 공백과 학습 내용의 차이가 있어 학교진입 및 학교생활 유지가 어려우며, 학령기를 벗어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인 경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3) 심리·정서적 적응 문제: 본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부모에게 이끌려 온 경우가 대부분이며 한국에서 출생했지만 부모의 이주로 인해 정체성의 혼란과 심리적인 고독감, 외로움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부모와 떨어져 지낸 시간이 길고 방치됐던 경우가 많아, 가정 내 정서적 지지기반이 약하고 가족 내 갈등을 겪기도 한다.

4) 사회적 편견과 차별: 언어, 외모, 문화적 차이에 의해 또래 집단에서의 차별과 따돌림 등 학교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취업을 하게 되어도 한국어가 서툴고 문화차이로 인해 대우나 보상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함께 학교에 입학이 허용됐다 하더라도 방치되거나 별다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다.

5)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북한이탈주민이 제3국(대부분 중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말하며 이들은 중도입국청소년과 비슷한 특성을 지닌다. 이들은 외국에서 출생 및 성장하다가 한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언어·문화적 장벽에 부딪히게 되며 한국 내 체류자격에 따라 권리가 달라져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경우에는 교육이나 의료보험 등 기본적인 사회복지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

6) 탈북청소년은 북한에서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남한으로 이주한 청소년으로 이주과정에서의 가족해체와 중국에서의 은신생활, 제3국 난민수용소에서의 생활 등으로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교육기회에의 접근, 교육과정 등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그 어려움은 신분상의 불안과 언어와 문화적 차이, 경제적 취약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25) 차윤경(2017). 한국 다문화정책의 과제와 전망, 2017연합뉴스 다문화포럼.

4.2. 장기적 지원방향

1) 중장기 정책목표 및 원칙의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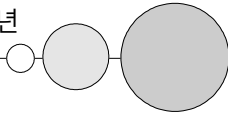
우리 사회에서 이주배경청소년들이 겪는 문제들이 중층적이고 다양하며 사회적 이슈화가 되기 쉽기 때문에 사안별 대처가 쉽다. 그 과정에서 '특별하고', '예외적인' 지원들이 이루어지기 쉽고 이러한 지원은 장기적으로 볼 때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제대로 된 지원을 위해서는 보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목표 및 원칙의 확립과 그 위에서의 세부적 지원이 필요하다. '시혜적 관점에서의 특별한 지원'이 아닌 '균등한 기회 보장과 참여를 통한 사회화'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목표가 수립되면, 이들의 특수한 경험과 어려움을 고려하면서도 예외적이기 보다는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및 프로그램들이 마련돼야 한다. 그러자면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집단들의 특성을 고려하고 특히 '중도입국청소년' 개념에 대한 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기존의 서비스에 대한 정립과 함께 최대한 있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2) 관련 부처 간 체계적, 유기적, 전문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한 맞춤형 지원

성인 위주의 정책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기적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지원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초기정착교육부터 지역사회 정착까지 단계별, 영역별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 후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각 단계별, 각 부처별로 정책 및 프로그램들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이룰 수 있도록 협력시스템이 구축돼야 하고, 다양한 교육기관 및 지원기관 간의 체계적 역할분담 및 연계도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의 입장에서 지원기관이 달라지더라도 서로 모순되고 충돌하는 과정이 아닌 하나의 연계된 교육, 지원 과정으로 인지될 수 있도록 일관된 목표와 원칙에 기반을 둔 시스템 마련이 돼야 한다.

3) 구체적 실행에 있어서의 유연성과 개별화 작업

원칙과 거시적 차원에서의 로드맵이 구성되면, 구체적 실행의 과정에 있어서는 각 지역사회 및 개인의 특성에 따른 유연하고 개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들어 증가하는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에는 학력, 입국동기, 경험 등에서 다양성이 증대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특성 및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다. 학습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이 병행돼야 하는



경우, 진로 지도 및 취업 안내가 필요한 경우, 빈곤가정의 청소년의 경우, 신체 정서적 장애 등 개개인의 처지와 욕구에 맞는 지운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에는 체류 불안정으로 학교입학,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각 부처와 협력해 이들에 대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점검하고 욕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4) 가족지원 및 교사 등 지원인력의 전문성 제고

청소년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부모를 비롯한 가족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부모들은 남한 사회, 문화 및 교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아이들 교육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고 학업이나 진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 부모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되, 중요하게는 부모들에 대한 교육 및 취업기회를 확대해 가정생활이 안정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아이들 각자의 역사와 욕망, 개성, 성장속도 등을 신중하게 보면서 제대로 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교사를 키워낼 수 있도록 교원 양성 과정과 연수 프로그램이 개선돼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자 등 다양한 지원인력에 대해서도 분야별 전문성뿐만 아니라 '이주배경청소년'이라는 주제별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다수자 교육 및 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성찰 및 개선 작업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직접적 지원뿐만 아니라 남한 사회 전체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다수자에 대한 평화교육, '다문화 이해 교육'이 필요하다.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위축돼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주류 구성원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차이를 이해하고, 그 차이를 조화롭게 공존시키면서 통합적인 질서를 수립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차이에 대한 관용의 태도를 키우고 차이를 존중하며 차별을 반대하고 평화적 공존과 소통,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다문화 감수성 교육이 필수적이다. 결국 소수자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다수자의 변화를 추동해 낼 수 있을 때 해결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4.3 중도입국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은 방문동거비자(F1), 여행비자 등 다양한 비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정책이 대부분 영유아기 어린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게 집중돼 있으며 중도입국청소년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외국인처우기본법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매우 미미한 상태이다. 15세 이상 높은 연령대에 국내에 입국하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청소년기의 혼란과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도입국청소년들은 다문화가정 자녀와는 달리 한국어에 대한 준비없이 부모(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다는 바람만으로 입국하며 가족관계도 양부, 동복, 이복형제와 같이 사는 등 복잡한 가족관계로 인해 가족간의 갈등이 야기될 소지가 크다. 또한 이들은 한국어 미숙,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정규학교에 편입학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학교에 가도 한국어 미숙으로 인해 학업수행능력이 떨어진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학력수준을 낮춘다는 이유 등으로 이들의 입학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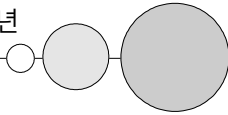
따라서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진로, 교우관계, 학교 부적응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한국어교육, 심리정서적 지원, 진로상담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중도입국청소년들은 대부분 10대 중·후반으로 한국어를 배우거나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한국어 교육을 받고 진로에 대한 상담 등을 통해 자신의 연령에 맞는 정규학교에 입학하거나 취업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²⁶⁾

나가며

미래사회에 대한 불안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현상이다. 작년 제4차산업혁명이라는 용어로 촉발된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호기심 및 불안감은 특히 한국사회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초기의 인더스트리4.0, 제3차산업혁명보다도 그 훨씬 이전에 사용한 뷰카(VUCA)²⁷⁾라는 용어는 현대인의 불안 심리를 너무도 잘 대변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심리와는 별개로 신제품에 열광하는 신세대들은 결국 인간, 사물(기계), 공간이 서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에서 기계와 인간이 공존하는 신세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26) 장명선(2011). 서울시 중도입국청소년 현황과 지원방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7) 뷰카(VUCA) 시대 : 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 1990년대 초 미육군 대학원에서 처음 사용.



반면에 지금 청소년들 특히, 중도입국청소년들은 한국사회(가정, 학교, 동네 친구, 지역사회 등)에서 본인의 위치가 없다. 또한 중학교를 의무 졸업하는 한국학생과 비교하여 한국어는 물론이고 전반적인 학업 및 기본적인 교양상식에서조차 수준 차이가 심하다. 이러한 결과 가뜩이나 움추려 있는 이들 중도입국청소년들은 결국 꿈과 희망을 상실하고 자포자기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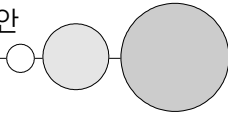
그러나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증강된 능력을 그 사람의 능력으로 보는 시대가 온다면 결국 모든 청소년은 같은 조건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본소득과 사회안전망이 보장된다면 지금같이 진학이나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자신이 즐거울 수 있는 일놀이를 창조하는 신세대가 등장할 것이다. 미래가 정해져 있고 적응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가 원하는 미래 사회를 멋지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조건들이 채워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도입국청소년들의 강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국이 아닌 제3국에서의 경험 및 인맥, 공부, 정보 등의 자원은 한국과 제3국을 연결하는 귀한 자산일 뿐만 아니라 북한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할 것이다.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유학생 또는 젊은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인 생활과 문화에 대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 자산이 될 것이다. 온실이 아닌 야생에서의 시련과 고통을 극복한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국내 정착에 머무르지 않고 더 넓은 세상에서 활약할 기회 여지가 많다. 중화권 및 중앙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들에게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협업을 통해 해당 국가의 인재를 미리 확보할 것을 부탁드린다.

참고자료

- 남수연(2016). 한국의 중도입국청소년 현황과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논문.
 네이션 글레이저(2009). 우리는 이제 모두 다문화인이다, 미래를소유한사람들.
 박영숙(2017a). 세계미래보고서 2030-2050, 제롬글렌, 교보문고.
 박영숙(2017b). 일자리혁명 2030, 제롬글렌, 비즈니스북스.
 변경환(2015). 다문화 직업교육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변화 비교연구: 한국폴리텍다
 숨학교와 서울다숨학교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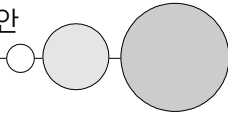
- 여성가족부(2017).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2017년도 시행계획.
여성가족부(2015). 다문화가족정책 10년 성과평가 및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 제18차
다문화가족포럼.
- 연합뉴스(2017). 2017 연합뉴스 다문화포럼.
- 유진이(2017). 다문화청소년의 역량강화 방안연구,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2(2), 다문
화아동청소년학회.
- 윤새은임·유진이(2017). 중도입국청소년 관련 연구동향 분석, 2(1), 다문화아동청소년
연구, 다문화아동청소년학회.
- 안상진(2017). 10년후 대한민국 미래전략보고서 4차산업혁명시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성규(2017). 30년후 미래사회는 어떤 모습?, 사이언스타임즈.
- 이종열외(2013). 한국 다문화사회의 이슈와 정책: 한국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행정적
정책적 접근, 조명문화사.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2016). 이주배경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방안, 이주배경청소
년정책토론회.
- 이찬승(2017). 2030년 미래사회와 학교교육의 변화.
- 인하대학교 아시아다문화연구소(2016). 대원 다문화연구총서, 북코리아.
- 장명선, 송연숙(2011). 서울시 중도입국청소년 현황과 지원방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전선영(2015). 한국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연구: 대만과 일본의 비교. 한국외국어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 정병호, 송도영(2011). 한국의 다문화 공간,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 정해숙 외(2016).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제레미 리프킨(2012). 3차 산업혁명, 민음사.
- 한국청소년상담원(2011). 다문화청소년의 실태 및 개선과제, 청소년희망센터 희망소
식 2011. vol.3.
- 한국교육개발원(2017). 교육개발 Vol44, No.3.
http://edzine.kedi.re.kr/2017_7m/index.jsp
-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http://www.nime.or.kr/>
무지개청소년센터 : <http://www.rainbowyouth.or.kr/>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지원센터 : www.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com/main
http://sen.go.kr/view/page/kor/popup/popup_20.html
서울 온드림 : <http://www.ondreamedu.com/>
서울온드림교육센터 : http://blog.naver.com/ondream_edu/220756025714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 <http://mcfc.ptu.ac.kr/>
www.indaily.co.kr/client/news/newsView.asp?nBcate=F1002...nScate...
<http://www.reportworld.co.kr/doc/449691>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754
www.yonhapnews.co.kr/bulletin/.../0200000000AKR20160603075800371.HTML
<http://www.genderlibrary.or.kr/search/detail/CATTOT000000019943>



2017 다문화가족포럼 연계 학술대회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정책과 취업지원방향”

중도입국청소년의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 진로 및 취업을 중심으로

배상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중도입국청소년의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 진로 및 취업을 중심으로²⁸⁾

배 상 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서론

세계화 현상의 가속화로 말미암아 한국 사회는 명실 공히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업투자자 등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외국출신 거주자들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양계민, 김승경, 김윤영, 2012; 행정자치부, 2015). 2015년 기준 외국인 주민은 170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3.4%를 차지하고 있다(행정자치부, 2015). 2015년 11월 기준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은 경기(4.4%), 충남(4.2%), 서울(4.1%)이 4%대를 보이며 타 시·도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경기 20개, 서울 17개, 경남 5개 등 총 57개 시군구가 인구 대비 비율 5% 이상인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으로 집계되었다(행정자치부, 2015). 외국인주민 자녀의 수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4년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섰다.

다문화가정 자녀는 국제결혼가정자녀와 외국인 가정 자녀로 분류될 수 있으며, 국제결혼가정자녀는 국내 출생한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로 나뉜다. 2000년대 후반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면서부터 우리 사회와 정부는 이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이재분과 그의 동료들(2008, 2009)은 정책보고서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설동훈(2010)도 이들의 삶이 일반 다문화가정 자녀와 다른 특수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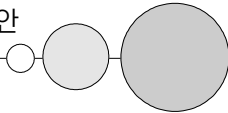
타국에서 언어와 사회화 과정을 일정 기간 거치고 청소년기에 부모를 따라 한국에 온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정체성의 혼란, 새로 형성된 가족관계에서의 갈등, 언어장벽, 경제적 어려움, 문화차이로 인한 심리적 불안, 차별에서 기인한 스트레스 등 다양한 갈등과 난관을 경험하게 된다(배상률, 2016; 양계민, 조혜영, 2011). 그 결과 이들 중 상당수는 공교육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진로 및 진학에 어려움을

28) 본 논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6년 고유과제인 「중도입국 청소년의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의 일부분을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임.

겪고 있으며,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김경식 외, 2012; 배상률, 2016). 가뜩이나 정서적으로 민감한 청소년 시기에 이 같은 다양한 어려움을 한꺼번에 경험하게 되면서 일탈의 유혹과 불만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심리상태와 일탈의 심화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개인적 불행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2010년대 들어서야 정부 및 학계에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서울시 중도입국청소년 현황과 지원방안」(장명선·송연숙, 2011),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지원 방안」(설동훈, 2010), 무지개청소년센터의 수탁과제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행한 「중도입국청소년 실태조사」(양계민, 조혜영, 2011) 등을 필두로 IOM이민정책연구원의 「중도입국 청소년 지역별 지원 실태에 대한 분석」(오성배 외, 2013), 무지개청소년센터의 레인보우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중도입국청소년 실태조사」(신현옥 외, 2013) 등이 양적 또는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실태를 연구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교육부, 여가부 등 부처의 위탁연구 보고서들을 중심으로 논해지던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학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최근들어야 이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학술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최충옥, 조인제(2010)는 다문화교육 관련 선행연구들이 실태조사나 당면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일반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에 비해 중도입국 청소년과 외국인근로자 자녀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부족했다고 지적하였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한 공감대가 학계에 확산되면서 2011년 6개, 2013년에 16개, 2015년과 2016년 각각 20개로 관련 학술논문 발표 횟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배상률, 2017). 그러나 중도입국 청소년의 증가추세와 이들이 처한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불우한 환경을 고려했을 때,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진로, 취업 등 핵심 주제들을 다룬 보다 심도 있는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될 필요가 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7년간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다룬 국내 학술논문들을 살핀 배상률(2017)은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연구 주제에 있어서도 학계의 편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연구 주제에 있어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관리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다룬 논문들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동화주의적 사고에 기반을 둔 '이민자로서 한국에서의 적응'(예 : 한국 사회문화 적응, 학교생활 적응, 한국어 습득, 등)이란 대주제는 학계의 주요 관심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최대 고민거리인 진로문제(배상률, 2016)를 다룬 연구는 두세 편에 머무는 상황이다. 또한 청소년의 발달에게 있어 부모와 가정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박영신 외, 2012; 황창순, 2006; Brown, 2004) 중도입국 청소년의 부모와 가정을 다룬 연구들이 아직까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민자로서의 정체성이란 가치관에 몰입된 연구가 아닌 우리와 동등한 인격체로서 꿈의 성취와 삶의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들도 지금보다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필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6년 고유과제의 일환으로 「중도입국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전국의 중도입국 청소년 약 600명과 현장전문가 50명가량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면대면 심층면접조사와 SNS를 활용하여 다양한 출신배경의 중도입국청소년들을 만나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며 겪는 고충과 고민을 파악하였다. 다음은 필자가 수행한 중도입국청소년 실태조사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 중 진로정책과 취업지원을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연구결과들을 정리한 것이다.

2. 중도입국청소년의 실태

1)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이슈

중도입국청소년의 가장 두드러진 고민거리는 진로문제(54.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진학, 취직 등 앞으로의 삶을 헤쳐 나가는데 있어서 고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재정적인 어려움(23.4%)과 목표의식이나 꿈의 부재(20.9%)가 중도입국청소년이 주로 고민하는 이슈들이므로 조사되었다.

<표 1> 중도입국청소년의 고민 Top3 (1+2순위)

내용	%
진로문제(취직, 이직, 진학, 군대 등)	54.5
돈 문제(채무, 가난 등)	23.4
목표의식이나 꿈의 부재	20.9

2) 언어장벽에 따른 파급효과

재학생들 중 27.4%는 한국 입국 후 한국에서의 공교육 입학 소요기간이 1년 이상이라 응답하였다. 2년 이상이라 응답한 비율도 재학생 10명중 한명 꼴(10.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공교육 진입과정이 지체되는 주된 이유로 '한국어 실력의 부족(55.3%)'을 들었다.

마찬가지로, 비재학 중도입국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 주된 이유를 물은 질문에 '한국어 실력 부족'(24.6%)을 이유로 든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중도입국청소년들의 공교육 진입과정에 주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의 한국어 실력의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림1] 재학생 대상 3개월 이상 공교육 입학이 지체된 이유(n=199)

<표 2> 비재학생 대상 현재 공교육 기관에 다니지 않는 이유 Top 5

순위	내용	%
1순위	한국어 실력이 충분하지 못해서	24.6
2순위	수업내용을 따라가기 어려워서	9.3
3순위	비자 문제로 인해	5.8
4순위	내 특기나 소질을 살리려고	4.9
5순위	학교에 가고 싶었으나 입학절차를 몰라서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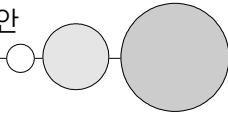
주) 다중응답으로 처리하여 N값이 일치하지 않음(N=431)

3) 부모님과 한국 입국 전 별거기간

중도입국청소년 절반가량이 한국 입국 전 부모님과 별거기간이 2년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5명 중 2명꼴로(41.8%) 한국 입국 전 부모님과 3년 이상 떨어져 지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의 낯선 환경과 새로운 가정의 적응문제뿐만 아니라 오랜 별거기간에 따른 소원해진 부모와의 관계로 인한 고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표 3> 한국 입국 전 부모님과 별거기간

기간	%
없다	23.9
6개월 미만	5.9
6개월 이상 1년 미만	5.2
1년 이상 2년 미만	8.5
2년 이상 3년 미만	7.6
3년 이상	41.8
무응답	7.1



4) 진로정체감 및 구직환경과 장래희망 실현 환경에 대한 평가

진로정체감은 진로에 대한 확신 및 구체적인 진로계획 등의 수준을 가늠하는 것으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진로정체감은 여자 청소년(3.73점)이 남자청소년(3.52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18세 이상(3.66점) 청소년이 17세 이하(3.58점)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출신이기엔 한국에서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기 힘들 것 같다'는 문항의 응답평균은 남자청소년(2.95점)이 여자청소년(2.72점)보다 높았으며, 18세 이상(2.86점)이 17세 이하(2.81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18세 남자 중도입국청소년 집단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한국에서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기 힘들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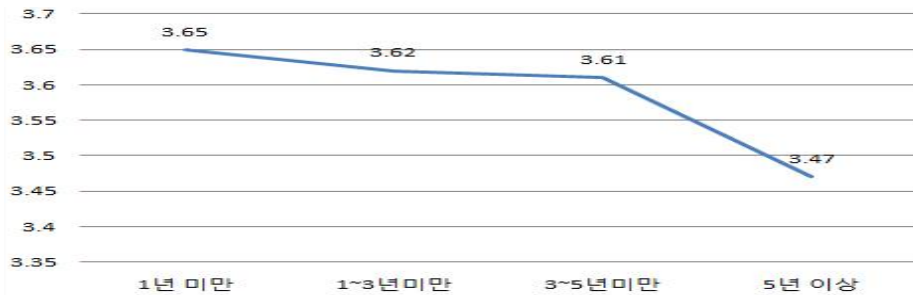
반대로, '한국은 내 장래희망을 실현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었다'는 문항의 응답평균은 여자청소년(3.79점)이 남자청소년(3.73점)보다 높았고, 17세 이하(3.77점)가 18세 이상(3.75점)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써 저연령의 여자 중도입국청소년들이 한국에서의 장래희망의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진로정체감 및 한국에서의 진로 환경 평가

	5점 평균 (표준편차)	성별		연령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세 이상
진로정체감	3.61(.75)	3.52 (.73)	3.73 (.77)	3.58 (.8)	3.66 (.71)
외국출신이기엔 한국에서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기 힘들 것 같다	2.85(1.1)	2.95 (1.1)	2.72 (1.1)	2.81 (1.1)	2.86 (1.1)
한국은 내 장래 희망을 실현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었다	3.75(.92)	3.73 (.96)	3.79 (.86)	3.77 (.91)	3.75 (.95)

5) 한국에서의 거주기간과 진로정체감과의 관계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거주기간이 길수록 진로정체감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앞서 살핀 연령이 높은 집단이 저연령 집단보다 진로정체감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조사결과와 함께 고려했을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실현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한국사회 경험이 오래되면서 중도입국청소년들이 직간접적으로 겪는 척박한 한국에서의 생활경험에 따른 결과로 '나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소신대로 직업을 결정해야한다' 등의 진로정체감 관련 문항에 대한 부정적 응답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는 최근 한국에 입국한 중도입국 청소년들과 수년전 입국한 청소년들 간의 성장배경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림 2] 거주기간에 따른 진로정체감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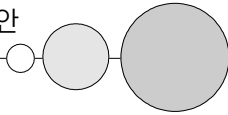
6) 진로정체감 및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교사의 지지, 어머니와의 긍정적인 관계 순으로 조사되었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아버지와의 긍정적인 관계, 어머니와의 긍정적인 관계, 또래애착, 한국어 능력 순으로 조사되었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정체감과 자아존중감에 한국거주기간, 경제적 수준, 입국 동기(자발/비자발)는 사실상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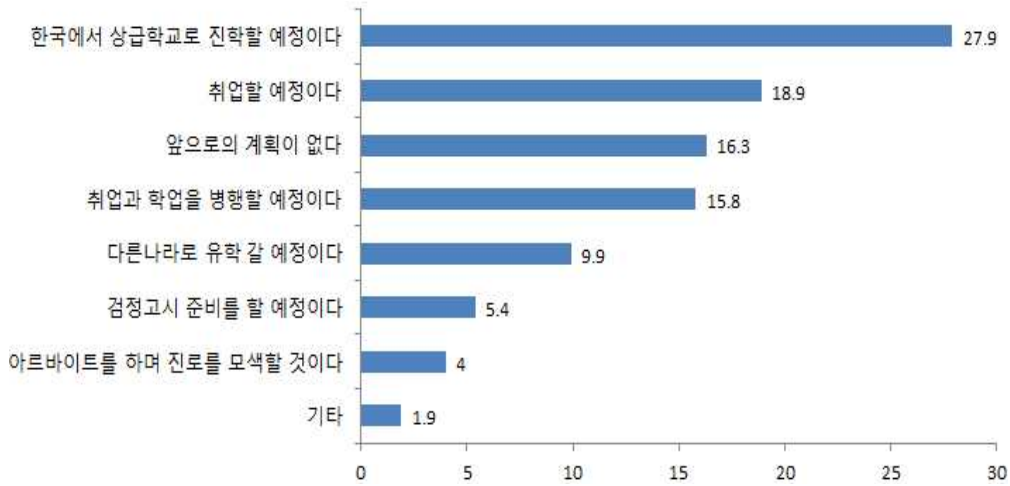
구분	모형1(진로정체감)			모형2(자아존중감)		
	B	S.E	베타(β)	B	S.E	베타(β)
(상수항)	.845	.403		1.264	.313	
성별(0=남)	.160	.074	.105*	.040	.057	.033
연령	.085	.059	.069	.100	.046	.101*
한국 거주기간	-.007	.041	-.009	-.012	.032	-.019
경제적 수준	-.015	.073	-.009	-.029	.057	-.023
한국어 수준	.039	.050	.039	.086	.039	.105*
입국 동기(0=비자발)	.052	.082	.031	.072	.064	.054
한국에 대한 긍정적 태도	.212	.064	.180**	.029	.049	.030
아버지와의 긍정적인관계	.010	.056	.013	.171	.044	.258***
어머니와의 긍정적인관계	.129	.063	.140*	.115	.049	.155*
교사지지	.163	.050	.179**	-.007	.039	-.010
또래애착	.023	.056	.022	.124	.043	.148***
R ²	.186			.254		
Adjusted R ²	.163			.232		
F	7.99***			11.83***		

주) 연령: 1=9세이상 12세미만, 2=12세이상 15세미만, 3=15세이상 18세미만, 4=18세이상, 한국거주기간: 1=1년미만, 2=1년이상 3년미만, 3=3년이상 5년미만, 4=5년이상
 한국어수준(전반적인 평가): 1=전혀못한다, 2=못한다, 3=보통이다, 4=잘한다, 5=매우잘한다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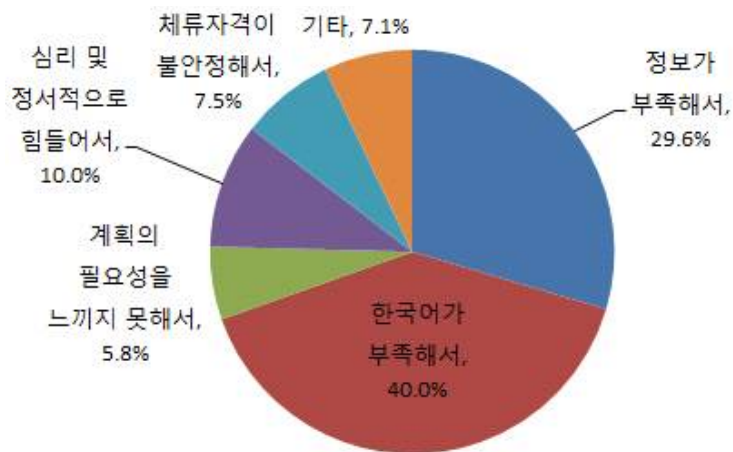
7) 향후 진로계획

향후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 '한국에서 상급학교로 진학할 예정이다'라는 응답률은 27.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취업할 예정이다'의 응답률은 18.9%, '앞으로의 계획이 없다'가 16.3%로 나타났다.



[그림 3] 향후진로계획(중복응답 n=1,062)

향후 진로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소년 중 40%는 '한국어가 부족하기 때문에'라고 응답하였으며,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정보가 부족해서'가 29.6%, '심리 및 정서적으로 힘들어서'라는 응답이 10%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4] 향후 진로계획이 없는 이유(중복응답 n=240)

8) 진로 고민해결 방법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진로선택이나 미래계획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방식 1순위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부모님이나 가족 구성원과의 대화를 통해'

(62.6%)이며, '한국에 사는 친구나 선생님 등 주위 사람과의 소통/대화를 통해'가 16.1%, '출신국이나 다른 나라에 사는 친구나 지인과의 소통/대화를 통해'가 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진로 고민해결 방법 1순위

	성별		%(명)
	남자	여자	
부모님이나 가족 구성원과의 대화를 통해	62.3	62.9	62.6
한국에 사는 친구나 선생님 등 주위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14.0	19.0	16.1
출신국이나 다른 나라에 사는 친구나 지인과의 대화를 통해	6.8	8.0	7.3
한국의 인터넷이나 서적 등 매체를 통해	4.2	4.6	4.4
기타	5.5	3.0	4.4
출신국의 인터넷이나 서적 등 비한국어 매체를 통해	4.5	2.1	3.5
한국의 정부나 지원기관을 통해	2.6	0.4	1.7

9) 아르바이트 또는 직장 근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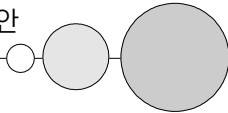
전체 중도입국 청소년 577명 중 31.4%는 한국에서 최근 1년 간 아르바이트나 직장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 중 성별로는 남성이 58%, 연령별로는 18세 이상 청소년이 60%로 우위를 점하였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는 주된 목적 1순위는 '생활비나 용돈을 벌기 위해서'가 압도적인 응답률(51.6%)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원하는 것을 구입하기 위해(15.1%)',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해(10.9%)'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7> 아르바이트 또는 직장에서 일을 하는 주된 목적 1순위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나의 생활비(용돈)을 벌기 위해	49.6	54.5	51.6
원하는 것을 구입하기 위해	17.4	11.7	15.1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해	13.9	6.5	10.9

10) 아르바이트 또는 직장에서의 부당경험

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나 직장에서의 부당한 경험여부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근로한 경험이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들 중 26.0%는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아서 곤란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최저임금(시간당 6,030원)보다 적은 시급을 받고 일한 적이 있다'에 응답한 청소년이 12.4%, '한국인과 차별대우를 받은 적



이 있다'가 12.1%,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11.4% 등으로 아르바이트 또는 직장에서의 부당한 근로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아르바이트 또는 직장에서의 부당경험

내용	경험있다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6.3(20)
계약시간 초과하여 일하거나 계약한 내용과 전혀 다른 일을 하였다	5.7(18)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11.4(162)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적이 있다	4.8(15)
작업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	5.7(18)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	8.3(26)
구타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1.0(3)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경험한 적이 있다	0.6(2)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고 일한 적이 있다	12.4(39)
한국인과 차별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12.1(38)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아서 곤란한 적이 있다	26.0(82)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거나 따돌린 적이 있다	5.7(18)

주) 다중응답처리로 N수가 일치하지 않음(n=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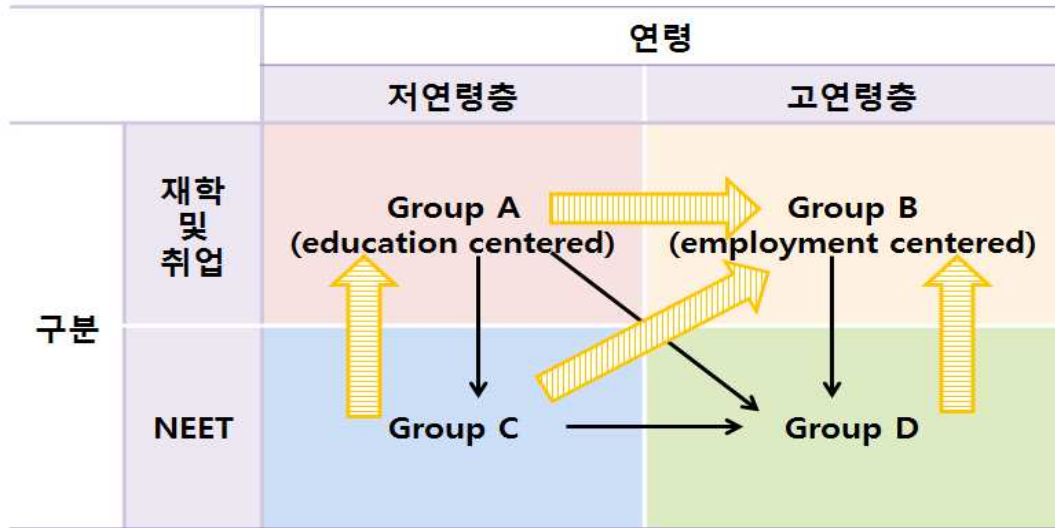
3. 중도입국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정책 방안

중도입국 청소년은 우리 사회와 정부가 특별히 관심을 쏟아야 할 대상이다. 굳이 UN아동권리협약을 들먹이며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라는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지 않더라도 이들의 건강한 성장이 우리가 그토록 부르짖는 '21세기 세계화 시대를 주도할 인재 양성'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인적자원으로 그리고 당연한 세계시민으로 이들이 가진 역량을 온전히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정부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립은 영어로 self-reliance로 번역될 수 있으며, 남에게 예속되거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섬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 영역에 따라 자립의 종류는 다양하게 나뉘질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청소년의 연령은 만 9세부터 24세까지로 아홉살의 청소년과 사회진출을 앞둔 24세의 청소년에게 요구하는 자립의 영역은 분명 차이가 난다. 저연령층에게 경제적 자립을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 같은 맥락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의 자립지원 방안 마련은 정책 대상에 대한 구분에 따른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의미한다.

아래 그림은 연령층(저연령층 대 고연령층), 교육 및 취업 여부에 따라 2×2의 분류체계를 표현한 것이다. 저연령층인 A그룹과 C그룹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연령층인 B그룹이나 D그룹으로 옮겨가게 된다. 소위 니트(NEET)쪽에 포함되는 C그룹과 D그룹은 효과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된다면 각각 A그룹과 B그룹으로 옮겨갈 수

있다. 그림에 묘사된 것처럼 중도입국 청소년의 국내 초기정착부터 A그룹과 B그룹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과 굵은 노란색 화살표 방향의 이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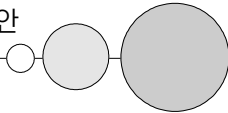
[그림 5] 연령과 교육/취업 여부에 따른 2×2 분류체계와 집단 간 이동 방향

위의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저연령층의 경우 공교육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중점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고연령층의 경우는 진로탐색, 직업기술교육, 취업처 알선 등이 보다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초기 정착 단계에 한국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언어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마련이 요구된다.

필자의 앞서 소개한 연구의 일환으로 중도입국청소년들과 현장전문가들에게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과 정책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조사에 응답한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수준별 한국어 교육, 교과목 지도, 직업기술훈련,

취미활동 지원,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현장전문가들에게는 ① 청소년 영역, ② 가정 영역, ③ 학교/기관/지역 영역, ④ 부처/제도 영역으로 구성된 총 30여 문항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및 정책 방안의 중요도와 시급성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조사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성별 응답결과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1순위 응답률은 '수준별 한국어교육', '학교수업/교과목지도', '직업기술훈련', '재정지원정책', '취미활동지원', '진로 및 적성 탐색 프로그램' 순으로 동일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핀 것처럼 여자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높은 조사결과를 반영하듯이 직업기술 훈련과 진로 및 적성 탐색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한 여자 청소년의 비율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남학생 다섯명 중 4명 이상이 수준별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1순위로 꼽을 만큼 여자 청소년들에 비해 한국어 실력의 부족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성별과 마찬가지로 연령별의 구분에 있어서도 유사한 응답률을 보였다.

<표 9> 성별/연령별 선호하는 지원 프로그램 및 정책 방안 Top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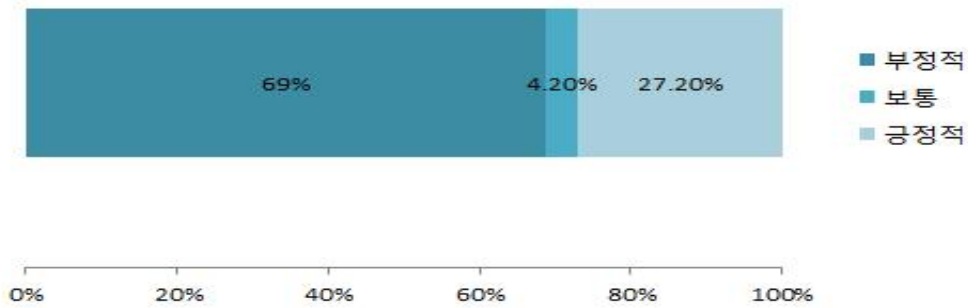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세 이상
수준별 한국어교육	42.8	35.7	43.6	37.1
학교수업/교과목 지도	9.8	12.6	11.4	10.6
직업기술 훈련	9.5	12.6	6.4	13.9
재정지원정책	8.8	3.4	5.9	7.1
취미활동 지원	7.8	4.6	5.9	6.1
진로 및 적성탐색 프로그램	4.6	7.6	6.4	5.5
1:1 멘토링 프로그램	3.9	7.6	5.4	6.1

한국 거주기간별로 선호하는 지원 프로그램 및 정책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수준별 한국어 교육은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응답률이 현저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 반면, 직업기술 훈련은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10> 한국 거주기간별 선호하는 지원 프로그램 및 정책 방안 Top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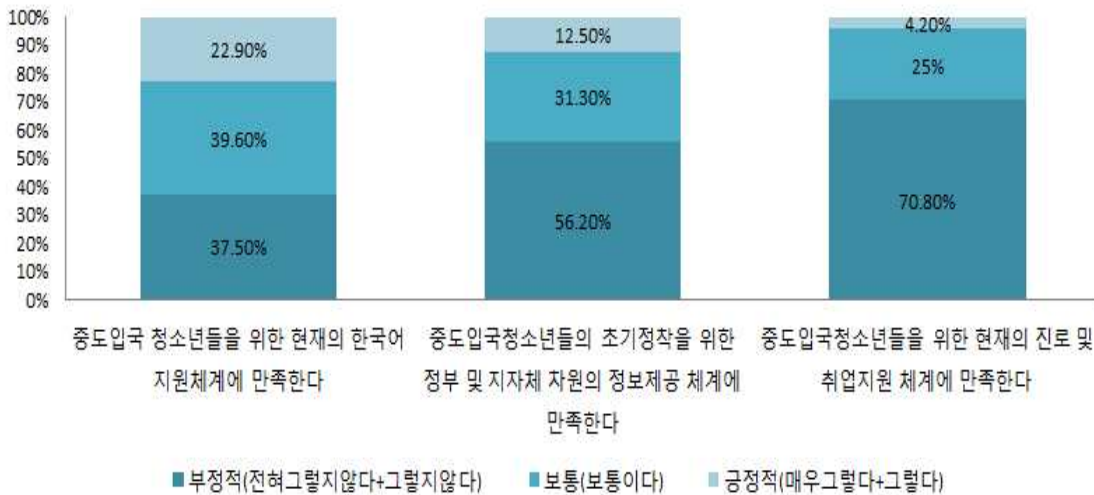
	한국 거주기간				전체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전체	100	100	100	100	100
수준별 한국어교육	44.6	46.3	30.8	20.8	40.2
학교수업/교과목 지도	16.4	6.3	12.1	8.3	11.1
직업기술 훈련	7.9	8.4	15.0	20.8	10.7
재정지원정책	2.8	7.4	7.5	14.6	6.5
취미활동 지원	3.4	8.4	6.5	8.3	6.3
진로 및 적성탐색 프로그램	5.1	3.7	9.3	4.2	5.4
한국사회/문화적응 프로그램	6.2	4.7	3.7	6.3	5.2
1:1 멘토링 프로그램	2.8	5.8	8.4	4.2	5.2

현장전문가들은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 10점 만점에 평균 4.25을 주었다. 응답분표를 살펴보면, 부정적인 평가(1점~4점)가 69%로 가장 많았고, 보통수준의 응답률은 4.2%, 긍정적인 평가(6점~10점)이 27.2%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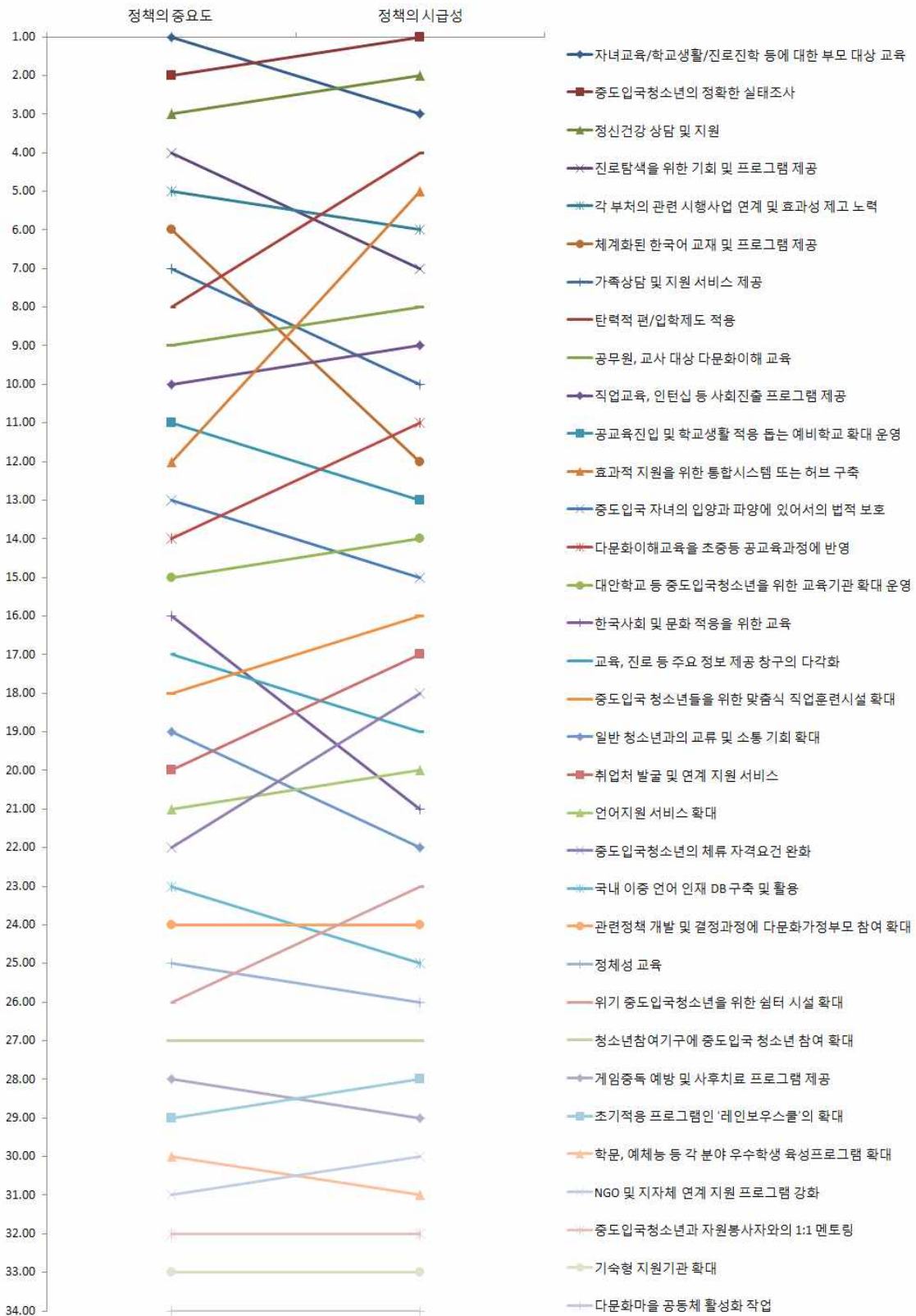
[그림 6] 중도입국청소년의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현장전문가 평가

정책관련 전반적인 평가에서 한걸음 더 들어가 한국어 지원, 취업/진로 지원, 초기정착을 위한 정보제공이란 핵심 영역별 정책의 만족도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전문가들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현재의 한국어 지원체계 만족도에 대해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인 응답률이 37.5%, 보통인 응답률이 39.6%, 긍정적(그렇다+매우 그렇다)인 응답률이 22.9%로 나타났다. 초기정착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정보제공체계 만족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인 응답률이 56.2%, 보통의 응답률이 31.3%, 긍정적(그렇다+매우 그렇다)인 응답률이 12.5%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진로 및 취업지원체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인 응답률이 70.80%, 보통의 응답률이 25%, 긍정적(그렇다+매우 그렇다)인 응답률이 4.2%로 나타났다.



[그림 7] 중도입국청소년 지원체계에 관한 현장전문가 만족도

다음은 현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중도입국청소년 관련 세부 정책들에 대한 중요도와 시급성을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이다.



[그림 8]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 순위

4. 나가며

거시적 차원에서 본다면, 중도입국 청소년들과 현장전문가들이 정책의 우선순위로 꼽은 한국어, 공교육, 직업기술교육, 상담, 취업 지원 등 일련의 지원 영역은 각각 분절된 것이 아닌 높은 연관성을 갖고 연쇄적으로 또는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부분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한국어의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하고 있다. 한국어 능력이 한국에서 자신의 꿈을 제대로 펼치며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역량이기 때문이다. 한국어 실력은 자신의 진학과 진로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결국 자신의 사회경제적지위(SES)를 결정짓는 취업과도 연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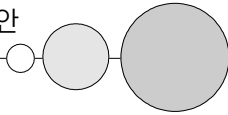
종합하면, 중도입국 청소년의 자립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할 때, 이들의 삶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이 되는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재원과 인프라의 투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결코 단일 성격의 집합체(monolithic group)가 아니다. 이들은 연령, 성별, 문화적 배경이 모두 다르며, 진로 및 진학 등과 관련한 의지와 역량이 다를 수 있다. 대상의 니즈(needs)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중도입국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서 정착하고 생활하는데 있어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증가하는데 이를 이겨낼 수 있는 가족 및 친구 등의 심리적 지지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 학업중단, 비행, 은둔형 외톨이 등의 폐해가 발생하게 된다.

모국에서 상당기간 부모와 떨어져 살던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는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한국에 와서도 원만히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힘들게 하는 또 다른 주요인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꼽을 수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비교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수준의 가정 출신이 많은데, 상당수의 경우 제한된 언어능력 및 교육수준 그리고 어려운 가정형편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자신의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실정이다. 이는 결국 빈곤의 악순환을 가져오게 된다.

법적·제도적 문제가 교육공백 및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 및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비자발적 프리터족(freeter)이나 니트족(NEET)으로 전락하게 된다. 실제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도입국 청소년의 니트(NEET) 비율은 37.7%로 일반 청소년 집단의 3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이규용 외, 2014). 또한 중도입국 청소년들 중 일부는 단기비자로 출입국을 반복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어, 이 역시 한국사회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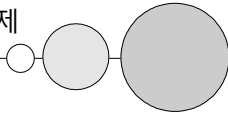
“나 돌아갈래!” 중도입국 청소년들 중 많은 이들이 이 말을 습관적으로 달고 산다고 한다. 필자의 중도입국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49.3%에 머물렀다. 부모와 함께 산다는 기대와 한류붐을 통해



막연한 동경을 품고 한국으로 이주하였으나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삶의 현실은 척박하기만 하다. 자신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와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모국과 한국에서 삶의 터전을 온전히 마련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개인적 불행으로만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중도입국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고 우리 사회의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숙한 다문화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사회적 인식개선 노력과 함께 정책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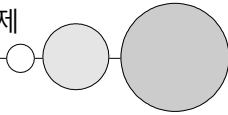
- 김경식, 김춘경, 이광석, 이채문, 이현철, 임지영, ... & 조현미. (2012). 다문화사회의 이해. 신정.
- 박영신, 김의철, 한기혜, & 박선영. (2012). 청소년이 지각한 행복의 수준과 요인: 가정, 학교,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9), 149-188.
- 배상률. (2017). 중도입국 청소년 연구 동향과 과제.
- 배상률. (2016).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설동훈(2010).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지원 방안-영유아, 초등학생, 중도입국자녀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 신현옥, 양계민, 서윤정, 김미라(2013). 중도입국청소년 실태조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 양계민·김승경·김윤영(2012).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중단연구 Ⅲ,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 조혜영(2011) 중도입국청소년 실태조사, 무지개청소년센터/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오성배, 김경미, 김재우, 서덕희, 오정은(2013). 중도입국 청소년 지역별 지원 실태에 대한 분석. IOM 이민정책연구원.
- 이재분, 강순원, 김혜원(2008).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실태 연구: 국제결혼가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이재분, 김혜원, 오성배(2009). 학교에서의 다문화가족 교육지원 실태 및 요구조사. 한국교육개발원.
- 장명선, 송연숙(2011). 서울시 중도입국청소년 현황과 지원방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최충욱, 조인제(2010). 다문화교육 연구의 동향과 향후 과제. 다문화교육, 1(1), 1-20.
- 행정자치부. (2015).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http://www.moi.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46327 (2017.07.01. 인출)
- 황창순. (2006). 초기 청소년기의 부모 및 또래애착과 애착의 변화. 한국청소년연구, 17(1), 201-225.
- Brown, S. L. (2004). Family structure and child well-being: The significance of parental cohabit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2), 351-367.



2017 다문화가족포럼 연계 학술대회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정책과 취업지원방향”

중도입국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적합직종과 정책 과제

김은석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중도입국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적합 직종과 정책 과제¹⁾

김 은 석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1. 서론

행정자치부의 외국인주민현황조사(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 결혼이민자는 지난 2007년 124,971명에서 2015년 260,134명으로 증가하였고, 외국인 주민자녀 또한 지난 2007년 44,258명에서 2015년 207,693명으로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그 중에서도 후기청소년(17~24세)은 약 12만 명에 달하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 귀화신청으로 한국인이 될 자격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최소 1만 5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 이주배경 청소년의 원활한 직업세계 진출은 사실상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거의 유일한 경로에 해당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용직이나 단기 취업에 해당하고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기에, 결과적으로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 정착을 어렵게 하고 사회적으로도 교육과 고용에서 소외된 청년들(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세계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한 청년 실업이 문제시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이주가 일상화되면서 전 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다(OECD, 2010). 하지만, 가족단위 이주가 아닌 어머니의 결혼이주를 통해 한국사회에 입양된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입국 동기와 교육상황 등에 있어서 다른 사회의 일반적인 이주배경청소년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중도입국청소년의 규모를 통계적으로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²⁾ 외국인 주민 자녀수와 귀화 신청 수, 학교 내 중도입국청소년을 감안할 때 그 수가 작지 않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에 점차 늘어나고 있는 이들 중도입국청소년이 한국사회에 통합되어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진로 및 취업지원 정책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에 해당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 및 취업경험, 일 관련 인식을 파악하고, 이들의 특성과 이주배경의 장점을 활용하여 진출할 수 있는 적합 직종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1) 본 발제문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직업군 개발 및 취업지원 방안 연구(2015)'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힘

2) 양계민(2013)은 2012년 특별귀화자격을 신청한 청소년에 대한 법무부 내부 자료를 인용하여 7,565명으로 추산하였고, 오성배 외(2013)는 약 12,000명 정도로 추산하기도 함

바탕으로 중도입국청소년 대상의 진로 및 취업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정책적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 실태

이 연구에서는 중도입국청소년³⁾의 진로 및 취업관련 특성과 요구, 취업 경험 및 일 관련 인식, 진출 직업 및 희망 직업 등에 대해 파악하고자 레인보우스쿨 및 무지개Job아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중도입국청소년과 서울다솜학교에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5년 6월 22일~7월 24일까지 약 1개월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레인보우스쿨 및 무지개Job아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중도입국청소년 190명과 서울다솜학교 재학생 81명으로부터 총 271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그 중 불성실응답 69부를 제외한 202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주요 조사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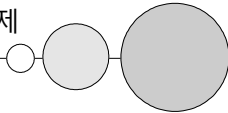
1) 일반 특성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 중 남성은 55.9%, 여성은 44.1%를 차지하였다. 나이는 16~20세 이하가 155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76.7%를 차지하였고, 21세 이상은 27명(13.4%), 15세 이하는 20명(9.9%)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기간은 2년 미만이 82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40.6%를 차지하였고, 2~3년 미만이 29.7%, 3년 이상이 14.4%로 나타났다. 비자유형별로 보면 F-1(방문동거)비자가 59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29.2%를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F-2(거주)비자가 20.8%를 차지하였다.

<표 1> 응답자 일반 현황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성별	남자	113	55.9	비자유형	F-1	59	
	여자	89	44.1		F-2	42	
나이	15세 이하	20	13.4		F-4	11	
	16~20세 이하	155	76.7		F-5	6	
	21세 이상	27	16.0		C-3	14	
체류기간	2년 미만	82	40.6		기타	4	
	2~3년 미만	60	29.7		무응답	66	
	3년 이상	29	14.4				
	무응답	31	15.3				

3) 광의적으로 중도입국청소년의 범주에는 한국인과의 국제결혼 이후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한국으로 입국하게 된 청소년,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 중 부모가 이주한 이후에 입국한 청소년, 근로 혹은 학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무연고 외국인 청소년, 제3국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후 한국으로 입국한 청소년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으나(오성배 외, 2013), 이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재혼과정과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로 제한함



한국에 오기 전·후의 국적을 조사한 결과, 중국이 73.7%이고 이중 한국계 중국이 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필리핀 등의 국적 소지자가 있었고, 입국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청소년도 40명(19.8%)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한국에 오기 전·후의 국적

구분	입국 전 국적		입국 후 현재 국적	
	빈도	%	빈도	%
중국	149	73.7	119	58.9
베트남	17	8.4	16	7.9
필리핀	4	2.0	2	1.0
우즈베키스탄	5	2.5	7	3.5
태국	1	.5	0	0
몽골	2	1.0	2	1.0
인도네시아	1	.5	0	0
러시아	6	3.0	3	1.5
카자흐스탄	1	.5	1	.5
한국	0	0	40	19.8
기타	1	.5	0	0
무응답	15	7.4	12	5.9
합계	202	100.0	202	100.0

주) 중국 국적 중 조선족은 입국 전 93명(46.0%), 입국 후 75명(37.1%)이며, 한족은 입국 전 56명(27.7%), 입국 후 44명(21.8%)을 차지하였음

2) 진로관련 특성

{1} 입국 배경과 현재 활동

중도입국청소년이 한국에 오게 된 계기와 관련하여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60.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13.4%), 취업을 위해(13.0%), 유학을 위해(1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한국에 오게 된 계기

구분	빈도	%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서	140	60.6
중도입국 전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3	1.3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31	13.4
유학을 위해	23	10.0
취업을 위해	30	13.0
기타	4	1.7

주) 다중응답 결과임

이들이 현재 주로 하고 있는 활동(일)으로는 한국어 공부가 전체 응답의 44.9%를

차지하였고, 그 외에 학교 재학(26.2%), 취업 준비(9.4%), 학교 진학 준비(9.0%), 취업(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현재 주로 하는 활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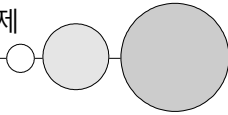
구분	빈도	%
학교 진학 준비 중	24	9.0
학교 재학 중	70	26.2
한국어 공부 중	120	44.9
취업 준비 중	25	9.4
취업 중	14	5.2
별다른 활동이나 계획 없음	9	3.4
기타	5	1.9

주) 다중응답 결과임

중도입국청소년이 한국에 입국한 후 가장 힘든 점을 살펴본 결과, 언어(한국어) 문제(27.2%), 경제적 어려움(11.9%), 체류자격 문제(10.4%) 등이 1순위로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미래에 대한 불안, 일자리 구하기 등 진로와 관련된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한국 입국 후 가장 힘든 사항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	빈도	%	빈도	%
경제적 어려움	24	11.9	8	4.0	12	5.9
건강	13	6.4	6	3.0	2	1.0
부모님과의 관계 약화	16	7.9	8	4.0	6	3.0
이성과의 교제	8	4.0	5	2.5	7	3.5
일자리 구하기	12	5.9	20	9.9	19	9.4
외국인에 대한 차별	6	3.0	14	6.9	6	3.0
체류자격 문제	21	10.4	22	10.9	13	6.4
미래에 대한 불안	11	5.4	24	11.9	26	12.9
우울, 불안, 좌절 등 정서적 문제	6	3.0	15	7.4	11	5.4
친구가 없어서 외로움	8	4.0	13	6.4	13	6.4
언어(한국어) 문제	55	27.2	31	15.3	34	16.8
기타	4	2.0	1	.5	3	1.5
무응답	18	8.9	35	17.3	50	24.8
합계	202	100.0	202	100.0	202	100.0



(2) 진로취업준비와 일 경험

202명의 전체 응답자 중 한국에서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본 경험이 있는 중도입국청소년 118명(58.4%)을 대상으로 정보의 주된 출처를 확인한 결과, 인터넷이 전체의 24.6%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부모님(16.9%), 학원 또는 관련기관 선생님(12.7%), 친구.선배.지인(10.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진로 관련 정보의 주요 출처

구분	빈도	%
인터넷	29	24.6
부모님	20	16.9
학원 또는 관련기관 선생님	15	12.7
친구, 선배, 지인	12	10.2
신문, TV, 라디오	4	3.4
취업, 진학 박람회	2	1.7
기타	2	1.7
직업소개소	1	0.8
무응답	33	28.0
합계	118	100.0

또한, 한국에서 진학 또는 취업과 관련하여 도움 받은 내용으로는 직업정보(14.3%), 전문가 또는 선배의 조언(11.4%), 진로관련검사(11.0%), 진로상담(11.0%), 등이 있었으나, 28.7%(78명)에 달하는 응답자는 진학 및 취업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진학 및 취업 관련 도움 내용

구분	빈도	%
도움 받은 적 없음	78	28.7
직업정보	39	14.3
전문가 또는 선배의 조언	31	11.4
진로관련검사(적성,흥미검사등)	30	11.0
진로상담(멘토링 포함)	30	11.0
직업체험	23	8.5
진로 및 취업 관련 강연	22	8.1
복학 및 진학 안내	19	7.0

주) 다중응답 결과임

진학 또는 취업 관련 도움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어디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잘 몰라서(51.8%)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관심이 없거나(13.4%),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11.6%)였던 것

으로 나타났다.

<표 8> 진학 및 취업 관련 도움을 받지 않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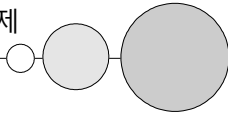
구분	빈도	%
어디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잘 몰라서	58	51.8
관심이 없어서	15	13.4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13	11.6
거리가 멀어서	6	5.4
참가비용 걱정 때문에	5	4.5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어색해서	5	4.5
뻘한 내용이라서	3	2.7
기타	7	6.3
합계	112	100.0

주) 다중응답 결과임

한편, 한국에서 직업(취업)과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중도입국청소년은 53명(26.2%)이었고, 나머지 147명(72.8%)은 교육훈련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한국에서 직업훈련 경험 여부

한국에서 직업(취업)과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중도입국청소년은 53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내용을 조사한 결과, 교육훈련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언어 관련 자격 과정(통번역, TOPIK, TOEIC, TOEFL, JLPT, HSK 등)(25.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음식(음료)관련자격과정(바리스타, 제과제빵, 조주기능 등)(19.5%), 관광관련자격과정(관광통역, 국내여행안내, 해외여행인솔자(TC) 등)(16.5%), 컴퓨터관련자격과정(컴퓨터그래픽, 워드프로세서, 웹디자인, 일러스트, OA, MOS, GTQ등)(1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직업(취업)과 관련하여 받은 교육훈련

구분	빈도	%
언어관련자격과정(통번역, TOPIK, TOEIC, TOEF, JLPT, HSK 등)	34	25.6
음식(음료)관련자격과정(바리스타, 제과제빵, 조주기능 등)	26	19.5
관광관련자격과정(관광통역, 국내여행안내, 해외여행인솔자(TC) 등)	22	16.5
컴퓨터관련자격과정(컴퓨터그래픽, 워드프로세서, 웹디자인, 일러스트, OA, MOS, GTQ 등)	20	15.0
호텔서비스관련자격과정	15	11.3
미용관련자격과정(피부관리, 네일아트 등)	5	3.8
보건및의료분야	4	3.0
인테리어 관련 자격 과정	3	2.3
자동차 정비 관련 자격 과정	1	0.8
기계, 전기, 전자관련자격과정	3	2.3

주) 한국에서 직업(취업)과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중도입국청소년 53명 대상의 다중응답 결과임

중도입국청소년이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하여 자격증 소지자는 무응답자 6명을 제외한 전체 응답자의 28.1%(55명)를 차지하였고, 나머지 71.9%(141명)은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자격증 소지 여부

중도입국청소년이 취득한 자격증으로는 언어관련자격과정(통번역, TOPIK, TOEIC, TOEF, JLPT, HSK 등) 자격과 컴퓨터관련자격과정(컴퓨터그래픽, 워드프로세서, 웹디자인, 일러스트, OA, MOS, GTQ 등) 자격이 각각 31.4%와 30.2%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음식(음료)관련자격과정(바리스타, 제과제빵, 조주기능 등)과 관광관련자격과정(관광통역, 국내여행안내, 해외여행인솔자(TC)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비율은 이들이 받았던 교육훈련 내용과 일치하는 결과에 해당하였다. 그 외, 기타의견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운전면허증이 제시되었다.

<표 10> 취득 자격증 분야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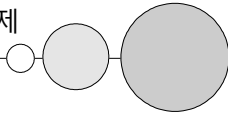
구분	빈도	%
언어관련자격과정(통번역,TOPIK,TOEIC,TOEFL,JLPT,HSK 등)	27	31.4
컴퓨터관련자격과정(컴퓨터그래픽,워드프로세서,웹디자인,일러스트,OA,MOS,GTQ 등)	26	30.2
음식(음료)관련자격과정(바리스타,제과제빵,조주기능 등)	19	22.1
관광관련자격과정(관광통역,국내여행안내,국외여행인솔자(TC) 등)	4	4.7
미용관련자격과정(피부관리,네일아트 등)	3	3.5
호텔서비스 관련 자격 과정	2	2.3
기계,전기,전자관련자격과정	1	1.2
자동차 정비 관련 자격 과정	1	1.2
기타	3	3.5

주) 자격증을 소지한 55명 대상의 다중응답 결과임

한국에 입국한 후 돈을 벌어 본 경험(아르바이트 경험도 포함)과 관련하여, 무응답자 9명을 제외한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달하는 49.7%(96명)이 일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50.3%(97명)은 일 관련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입국 후 돈을 벌어 본 경험 여부

한국에서 일 경험이 있는 중도입국청소년 96명을 대상으로 일을 하게 된 경로를 조사한 결과, 41.5%는 친구.선배.지인을 통해 일하게 되었고, 그 외에도 부모님(20.0%), 직업소개소(14.1%), 인터넷(12.6%) 등을 통해 일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일을 하게 된 경로

구분	빈도	%
친구,선배,지인	56	41.5
부모님	27	20.0
직업소개소	19	14.1
인터넷	17	12.6
학원 또는 관련기관 선생님	8	5.9
신문,TV,라디오	3	2.2
취업,진학박람회	1	0.7
진로및직업관련서적(책)	1	0.7
기타	3	2.2

주) 한국에서 일 경험이 있는 중도입국청소년 96명 대상의 다중응답 결과임

한국에서 일했던 곳으로는 음식점이 44.2%로 가장 많았고, 카페(14.4%), 호텔(7.7%), 편의점(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기타의견으로 전단지 알바, 음식점, 극장, 애완동물숍, 휴대폰회사, 공장, 회사 등의 일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일 경험 직업 분야

구분	빈도	%
음식점	46	44.2
카페	15	14.4
호텔	8	7.7
편의점	6	5.8
화장품 가게	4	3.8
무역회사	4	3.8
택배회사	3	2.9
미용실	2	1.9
사회복지기관	2	1.9
네일아트숍	1	1.0
면세점	1	1.0
기타	12	11.5

주) 한국에서 일 경험이 있는 중도입국청소년 96명 대상의 다중응답 결과임

한국에서 일한 기간은 1개월 미만이 39.4%(39명)로 가장 많았고, 1~3개월 25.3%(25명), 4~6개월 11.1%(1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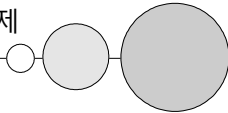
[그림 4] 한국에서 일한 기간

주) 한국에서 일 경험이 있는 중도입국청소년 96명 대상의 결과임

한국에서 일하면서 받은 일당은 3만원~6만원이 전체 응답자의 57.8%(48명)로 가장 많았으며, 일당 7만원~10만원이 24.1%(20명), 일당 3만원 미만이 15.7%(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한국에서 일하면서 받은 일당

주) 한국에서 일 경험이 있는 중도입국청소년 96명 대상의 결과임



2)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 및 취업관련 어려움과 요구

한국에서 직업(취업)과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중도입국청소년은 53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참여 시 힘든 점을 확인한 결과, 한국어를 알아듣기가 어려웠다는 응답자가 35.8%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었거나(20.8%) 교육훈련 비용이 부담(20.8%)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교육훈련 시 힘든 점

구분	빈도	%
한국어 알아듣기가 어려움	19	35.8
시간적 여유가 없음	11	20.8
교육훈련비용 부담	11	20.8
교육훈련에서 다루는 내용이 어려움	9	17.0
기타	3	5.7
합계	53	100.0

한국에서 일 경험이 있는 중도입국청소년 96명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일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을 조사한 결과, 1순위로 어려웠던 점은 한국어 실력 부족(45.8%)과 일 배우기(업무습득)(14.6%)였고, 2순위로 어려웠던 점은 일 배우기(업무습득)(11.5%)와 자신의 적성 또는 흥미와 맞지 않는 일(11.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3순위로 어려웠던 점은 자신의 적성 또는 흥미와 맞지 않는 일(15.6%)과 불안정한 일자리(12.5%)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한국에서 일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	빈도	%	빈도	%
일 배우기(업무 습득)	14	14.6	11	11.5	10	10.4
차별(피부, 국적 등)	4	4.2	8	8.3	6	6.3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6	6.3	9	9.4	10	10.4
나의 적성 또는 흥미와 맞지 않는 일	9	9.4	11	11.5	15	15.6
기대했던 수준(일당, 일하는 환경, 일하는 시간 등)과의 차이	7	7.3	8	8.3	5	5.2
불안정한 일자리	2	2.1	10	10.4	12	12.5
건강 또는 체력의 문제	1	1.0	7	7.3	3	3.1
한국어 실력 부족	44	45.8	8	8.3	5	5.2
돈(수당, 일당, 월급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음	3	3.1	5	5.2	6	6.3
기타	1	1.0	0	0.0	3	3.1
무응답	5	5.2	19	19.8	21	21.9
합계	96	100.0	96	100.0	96	100.0

주) 한국에서 일 경험이 있는 중도입국청소년 96명 대상의 우선순위별 응답결과임

한편, 한국에서 취업할 때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사항을 조사한 결과, 한국어 능력(4.2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성실함과 책임감(3.88), 체류자격(비자) 및 국적(3.88), 외국어 능력(3.88)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한국에서 취업 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

구분	평균	표준편차
한국어 능력	4.20	0.974
외국어능력(영어 등)	3.88	1.021
성실함, 책임감	3.88	1.021
체류자격(비자)및 국적	3.88	1.021
학력(학위)	3.85	0.927
자격증	3.70	1.060
모국어능력(출신국언어)	3.70	1.060
인턴 또는 아르바이트 경험	3.52	0.976
친구,선배,선생님 등 아는 사람의 도움	3.51	0.955
외모	3.29	1.0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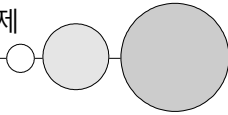
주) 리커트 5점 척도(①전혀중요하지않음, ②중요하지않음, ③보통, ④중요함, ⑤매우중요함)의 평균임

위와 같은 어려움을 겪다 보니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취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보나 교육으로 전체 응답자의 36.4%가 직업 관련 한국어 배우기를 지목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직업 관련기술 배우기가 23.4%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 한국 문화 배우기(9.7%), 다양한 직업 정보 소개(5.8%), 자격증 취득(5.8%)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취업을 위해 필요한 정보 및 교육

구분	빈도	%
직업 관련 한국어 배우기	37	32.2
직업 관련 기술 배우기	31	27.0
한국 문화 배우기	13	11.3
자격증 취득	7	6.1
외국어(영어 등) 배우기	7	6.1
다양한 직업 정보 소개	6	5.2
직업체험 프로그램 참여하기	5	4.3
직업 관련 모국어(출신국 언어) 실력 향상하기	3	2.6
취업한 선배들의 이야기 듣기	3	2.6
진로 및 직업정보 탐색방법 배우기	1	.9
기타	2	1.7
합계	115	100.0

주) 무응답자 87명을 제외한 115명의 응답 결과임



3. 중도입국청소년 적합 직종

1) 중도입국청소년의 직업 관련 인식

(1) 중도입국청소년이 원하는 직업 및 진출 가능 직업

중도입국청소년이 원하는 직업 또는 진출 가능하다고 인식하는 직업을 조사한 결과, 관광가이드(7.0%), 바리스타(6.8%), 제과제빵사(6.3%), 디자이너(5.8%), 요리사(5.7%), 번역가(5.3%), 미용사(4.6%), 판매.비즈니스.영업원(4.6%), 교사.유치원교사.강사(4.6%), 조주사(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외에도 네일아티스트, 컴퓨터프로그래머, 무역업자, 사회복지사, 통역가, 호텔리어 등 총 58종의 다양한 직업이 언급되었다.

<표 17> 중도입국청소년이 원하는 직업 및 진출 가능 직업

직업명	빈도	%	직업명	빈도	%
관광가이드	58	7.0	회계사	11	1.3
바리스타	56	6.8	스튜어디스	10	1.2
제과제빵사(파티쉐)	52	6.3	세무사	9	1.1
디자이너	48	5.8	미디어편집자	9	1.1
요리사	47	5.7	관광통역안내사	6	0.7
번역가	44	5.3	소방관	6	0.7
미용사(헤어스타일리스트)	38	4.6	의료코디네이터	6	0.7
판매, 비즈니스, 영업원	38	4.6	용접원	6	0.7
교사, 유치원교사, 강사	38	4.6	택배배달원	5	0.6
조주사	36	4.3	원예사	5	0.6
네일아티스트	29	3.5	공예가	4	0.5
컴퓨터프로그래머, 일러스트레이터	28	3.4	감독	4	0.5
무역업자	27	3.3	배관공	4	0.5
사회복지사	24	2.9	건축가, 건축디자이너	4	0.5
통역사	23	2.8	관광경찰	3	0.4
호텔리어	22	2.7	경찰관	3	0.4
IT관련기술자	18	2.2	의사	3	0.4
통역간호사	13	1.6	심리상담사	3	0.4
피부관리사	12	1.4	메이크업아티스트	2	0.2
전기기술자	12	1.4	바텐더	2	0.2
경호원	11	1.3	간호조무사	2	0.2
경비원	11	1.3	게임디자이너	2	0.2
자동차정비사	11	1.3	의류디자이너	2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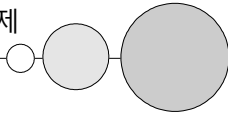
주) 다중응답 결과임

한편, 중도입국청소년이 원하는 직업 또는 진출 가능하다고 응답한 직업과 관련하여 각 직업에 대해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진출가능성과 지식 및 기술 수준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보통 이하의 수준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출가능성과 지식 및 기술 수준을 보통(3점) 수준으로 응답한 직업은 디자이너, 판매.비즈니스.영업원, 네일아티스트, 호텔리어, 경비원이며, 전반적으로 진출가능성에 비해 자신이 보유한 지식 및 기술 수준을 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중도입국청소년이 원하는 직업별 진출가능성 및 지식.기술 수준

직업명	진출가능성	지식 및 기술
관광가이드	2.8	3.0
바리스타	2.8	3.2
제과제빵(파티쉐)	2.7	3.1
디자이너	3.0	3.1
요리사	2.9	3.0
번역가	2.8	2.9
미용사, 헤어스타일리스트	2.9	3.1
판매, 비즈니스, 영업원	3.0	3.3
교사, 유치원교사, 강사	2.8	2.7
조주사	2.7	2.8
네일아티스트	3.0	3.0
컴퓨터프로그래머, 일러스트레이터	2.8	2.6
무역업자	2.6	3.4
사회복지사	2.9	3.0
통역사	2.9	2.9
호텔리어	3.3	3.2
IT관련기술자	2.7	2.7
통역간호사	2.8	3.1
피부관리사	2.9	2.8
전기기술자	2.4	2.7
경호원	2.6	2.9
경비원	3.3	3.0
자동차정비사	2.5	3.2
회계사	2.1	2.1
스튜어디스	3.1	2.1

- 주 1) 리커트 5점 척도(①매우낮다, ②낮은편이다, ③보통이다, ④높은편이다, ⑤매우높다)의 평균값임
 2) 최소 10명 이상이 응답한 직업만을 대상으로 결과 제시
 3) 본 조사에서 제시한 '진출가능성'과 '지식 및 기술' 수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응답자 개인의 인식에 기초한 결과임



(2) 중도입국청소년 주변 인물들의 직업

중도입국청소년 주변의 이주배경 친구나 선배, 아는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을 조사한 결과, 판매원(10.7%), 여행가이드·관광통역안내사(10.3%), 교사·강사(9.8%), 사무직 근로자(6.7%), 번역가(6.3%), 요리사(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인이 원하는 직업 및 진출가능 직업과 전반적으로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주변 지인들의 직업이 이들의 진로를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칠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19> 중도입국청소년 주변인물들(친구, 선배, 지인 등)의 직업

직업명	빈도	%	직업명	빈도	%
판매원	24	10.7	웨이터, 웨이트리스	5	2.2
여행가이드, 관광통역안내사	23	10.3	네일아티스트	4	1.8
교사, 강사	22	9.8	용접원	4	1.8
사무직 근로자	15	6.7	조주사	4	1.8
번역가	14	6.3	피부관리사	4	1.8
요리사	11	4.9	호텔리어	4	1.8
사회복지사	9	4.0	바리스타	3	1.3
생산직 근로자	9	4.0	스튜어디스	3	1.3
무역업무종사자	8	3.6	택배배달원	3	1.3
제과제빵사	8	3.6	공예가	3	1.3
디자이너	6	2.7	호텔청소원	2	0.9
기술자	6	2.7	간호사	2	0.9
통역사	6	2.7	군인	2	0.9
미용사	5	2.2	기타	15	6.0

주) 다중응답 결과임

더 나아가, 중도입국청소년이 원하는 직업 또는 진출 가능하다고 인식하는 직업과 실제 중도입국청소년 주변 인물들의 직업 간의 관련성을 비교해보고자 각 직업에 대한 응답수를 기준으로 1위~10까지 상위권을 차지한 직업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총 10개 직업 중 6개의 직업(관광가이드, 제과제빵사, 요리사, 번역가, 판매·비즈니스·영업원, 교사·강사)이 유사하게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이너와 미용사, 사회복지사, 무역업자 또한 10위권은 아니지만 타 직업에 비해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도입국청소년이 원하는 혹은 진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직업은 다양한 편이지만, 많이 언급되는 상위권의 직업들은 상당수 주변 지인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과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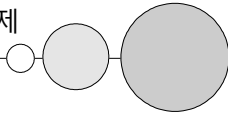
<표 20> 중도입국청소년이 원하는 직업과 주변인물들(친구, 선배, 지인 등)의 직업 간 비교

응답률 순위	원하는 직업	주변인물들(친구, 선배, 지인 등)의 직업
1	관광가이드	판매원
2	바리스타	여행가이드, 관광통역안내사
3	제과제빵사	교사, 강사
4	디자이너	사무직 근로자
5	요리사	번역가
6	번역가	요리사
7	미용사(헤어스타일리스트)	사회복지사
8	판매, 비즈니스, 영업원	생산직 근로자
9	교사, 강사	무역업자
10	조주사	제과제빵사

(3) 관심의 정도 및 진출가능성에 따른 직업군 유형

앞서 중도입국청소년이 원하는 직업 및 진출가능하다고 인식하는 직업과 주변인물들이 실제 종사하고 있는 직업을 비교한 결과, 중도입국청소년이 인지하고 있는 상당수의 직업들은 이들이 경험하는 환경과 주변인물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의 범위 내에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중도입국청소년에게 적합한 다양한 분야의 직업을 도출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각 직종별 관심의 정도와 진출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음식서비스관련 직업(한식.중식.일식.양식 조리사, 바리스타, 바텐더 등), 식품가공관련 직업(제빵사,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직원 등), 환경.목재.가구.공예관련 직업(환경공학기술자, 환경컨설턴트, 목재가공기술자, 가구수리원, 공예가 등), 문화.예술.디자인.방송관련 직업(번역가, 통역가, 기자, 악기연주가, 디자이너, 배우, 감독, 음향.녹음.조명기사 등), 경영.회계.사무관련 직업(사무원, 회계사, 세무사, 비서 등), 금융.보험관련 직업(외환딜러, 금융.보험사무원, 보험설계사 등)의 순으로 관심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진출가능성을 기준으로 볼 때, 음식서비스관련 직업(한식.중식.일식.양식 조리사, 바리스타, 바텐더 등), 환경.목재.가구.공예관련 직업(환경공학기술자, 환경컨설턴트, 목재가공기술자, 가구수리원, 공예가 등), 식품가공관련 직업(제빵사,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직원 등), 금융.보험관련 직업(외환딜러, 금융.보험사무원, 보험설계사 등), 전기.전자관련 직업(전기기술자, 컴퓨터.가전제품 수리원, 전자제품개발자 등)의 순으로 진출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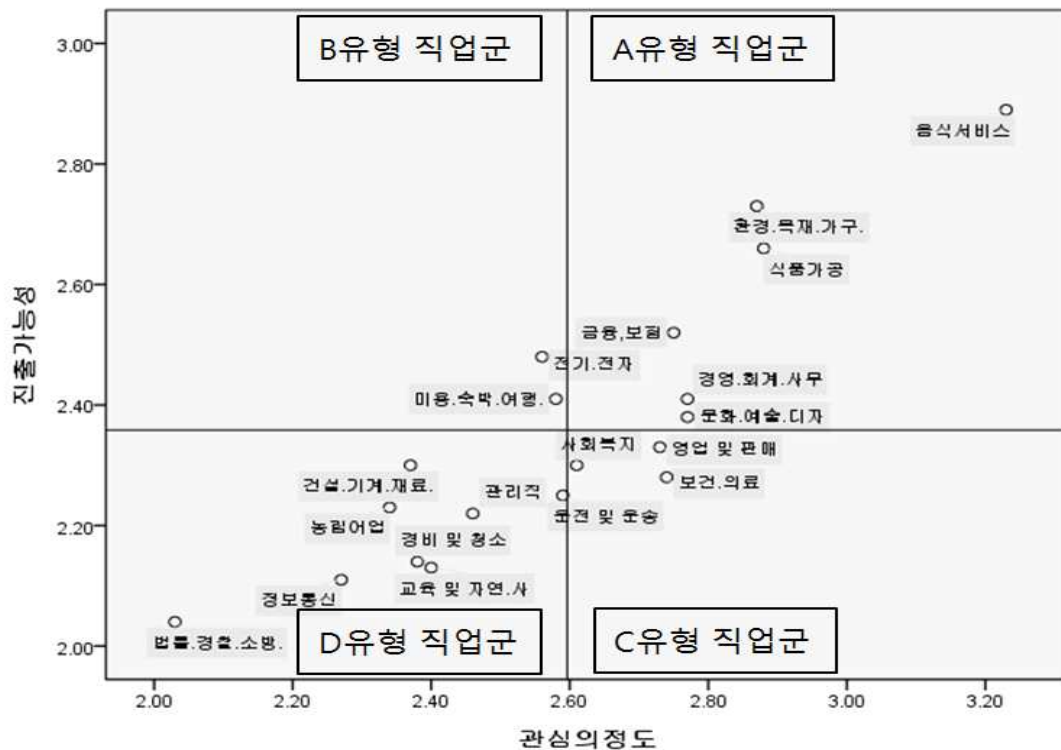
<표 21> 직업군별 관심의 정도 및 진출가능성

직업군	관심의 정도	진출가능성
관리직(공무원, 학교장, 관리자 등)	2.46	2.22
경영.회계.사무관련 직업(사무원, 회계사, 세무사, 비서 등)	2.77	2.41
금융.보험관련 직업(외환딜러, 금융.보험사무원, 보험설계사 등)	2.75	2.52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연구 관련 직업(연구원, 교사, 강사 등)	2.40	2.13
법률.경찰.소방.교도관련 직업(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 소방관 등)	2.03	2.04
보건.의료관련 직업(의사, 간호사, 치료사, 마사지사, 의료코디네이터 등)	2.74	2.28
사회복지관련 직업(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등)	2.61	2.30
문화.예술.디자인.방송관련 직업(번역가, 통역가, 기자, 악기연주가, 디자이너, 배우, 감독, 음향.녹음.조명기사 등)	2.77	2.38
운전 및 운송관련 직업(조종사, 운전사 등)	2.59	2.25
영업 및 판매관련 직업(영업원, 판매원, 중개인 등)	2.73	2.33
경비 및 청소관련 직업(경호원, 경비원, 청소원 등)	2.38	2.14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관련 직업(피부관리사, 미용사, 네일아티스트, 여행안내원, 승무원, 운동선수 등)	2.58	2.41
음식서비스관련 직업(한식.중식.일식.양식 조리사, 바리스타, 바텐더 등)	3.23	2.89
건설.기계.재료.화학 관련 직업(건축기술자, 자동차정비사, 선박조립원, 배관공, 용접원 등)	2.37	2.30
전기.전자관련 직업(전기기술자, 컴퓨터.가전제품 수리원, 전자제품개발자 등)	2.56	2.48
정보통신관련 직업(컴퓨터기술자, 컴퓨터프로그래머, 통신공학기술자, 웹엔지니어 등)	2.27	2.11
식품가공관련 직업(제빵사,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원 등)	2.88	2.66
환경.목재.가구.공예관련 직업(환경공학기술자, 환경컨설턴트, 목재가공기술자, 가구수리원, 공예가 등)	2.87	2.73
농림어업관련 직업(농부, 어부, 원예사 등)	2.34	2.23

- 주 1) 관심의 정도는 리커르트 5점 척도(①전혀관심이없다, ②별로관심이없다, ③보통이다, ④관심있는편이다, ⑤매우관심있다)의 평균값임
 2) 진출 가능성은 리커르트 5점 척도(①매우낮다, ②낮은편이다, ③보통이다, ④높은편이다, ⑤매우높다)의 평균값임
 3) 전체 평균값은 관심정도 2.60, 진출가능성 2.36임
 4) 본 조사에서 제시한 '진출가능성' 수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응답자 개인의 인식에 기초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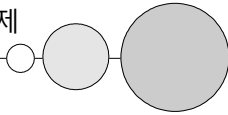
더 나아가, 관심의 정도와 진출가능성에 따른 직업군 유형을 분류하고자 평균값을 기준으로 관심의 정도 상.하, 진출가능성 상.하의 4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

과, 관심의 정도도 높고 진출가능성도 높게 인식하고 있는 직업군(A유형 직업군)은 음식서비스관련 직업, 환경.목재.가구.공예관련 직업, 식품가공관련 직업, 금융.보험 관련 직업, 경영.회계.사무관련 직업, 문화.예술.디자인.방송관련 직업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진출가능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관심의 정도는 다소 낮은 직업군(B유형 직업군)은 전기.전자관련 직업,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관련 직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관심의 정도는 높으나 진출가능성을 다소 낮게 인식하고 있는 직업군(C유형 직업군)은 영업 및 판매관련 직업, 보건.의료관련 직업, 사회복지관련 직업, 운전 및 운송관련 직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관심의 정도와 진출가능성 모두 낮게 인식하고 있는 직업군(D유형 직업군)은 건설.기계.재료.화학관련 직업, 농림어업관련 직업, 관리직, 경비 및 청소관련 직업,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연구 관련 직업, 정보통신관련 직업, 법률.경찰.소방.교도관련 직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직업군별 관심의 정도 및 진출가능성에 따른 유형 구분

- 주 1) 관심의 정도는 리커르트 5점 척도(①전혀관심이없다, ②별로관심이없다, ③보통이다, ④관심이있는편이다, ⑤매우관심이많다)의 평균값임
- 2) 진출 가능성은 리커르트 5점 척도(①매우낮다, ②낮은편이다, ③보통이다, ④높은편이다, ⑤매우높다)의 평균값임
- 3) 유형 구분은 '관심'의 정도와 '진출가능성' 응답값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며, 전체 평균값은 관심 정도 2.60, 진출가능성 2.36임
- 4) 본 조사에서 제시한 '진출가능성' 수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응답자 개인의 인식에 기초한 결과임



2) 중도입국청소년 진출 가능 적합 직종

(1) 적합 직종 선정 배경

지금까지 중도입국청소년이 원하는 직업과 진출가능성에 대한 인식, 중도입국청소년 주변 인물들의 직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비록 다양한 직업들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빈번하게 언급되는 직업들은 관광가이드, 제과제빵사, 요리사, 번역가, 미용사, 판매원, 교사 등과 같이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 국한되어 있으며, 개인이 경험하는 환경과 주변 지인들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관심의 정도와 진출가능성에 대한 이들의 인식도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보다 확장된 범위 내에서 중도입국청소년에게 보다 적합한 직업을 고려해보고자 중도입국청소년이 인식하는 관심의 정도 및 진출가능성에 따라 4개의 직업군 유형을 분류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 기준은 관심의 정도와 진출가능성을 전반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응답에 기초한 것이기에 상대적인 기준에 해당한다. 가령, 경영.회계.사무관련 직업군과 문화.예술.디자인.방송관련 직업군은 관심의 정도와 진출가능성이 높은 A유형 직업군으로 분류되나, 이는 다른 직업군과의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을 뿐, 실제로 관심의 정도와 진출가능성에 대한 높은 결과값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A유형 직업군에 한정하여 중도입국청소년이 진출가능한 적합 직업을 제시하기보다는, 중도입국청소년의 관심직업과 진출가능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4개의 영역에 속한 각 직업들로부터 다양한 가능성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4개의 유형에 속한 각 직업군별 특성과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도입국청소년의 관심의 정도도 높고 진출가능성도 높게 인식하고 있는 A유형의 직업군에는 음식서비스관련 직업, 환경.목재.가구.공예 관련 직업, 식품가공관련 직업, 금융.보험관련 직업, 경영.회계.사무관련 직업, 문화.예술.디자인.방송관련 직업 등 다양한 직종에 걸쳐 중도입국청소년의 특성을 살려 진출할 수 있는 직업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음식서비스 관련 직업, 환경.목재.가구.공예 관련 직업, 식품가공관련 직업 내에는 중식조리사, 제빵원, 목공과 공예 관련 직업과 같이 음식 및 도구 관련 기능을 습득하여 진출할 수 있는 직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금융.보험관련 직업, 경영.회계.사무관련 직업 내에는 해외 금융 및 마케팅 관련 업무와 같이 이중 언어를 활용하여 진출할 수 있는 직업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문화.예술.디자인.방송관련 직업 내에는 세부 분야별 디자이너와 통역사와 같은 전문 분야 직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진출가능성은 높으나 관심의 정도는 다소 낮게 인식하고 있는 B유형의 직업군에는 이미 잘 알려진 각종 미용 전문분야, 관광통역안내원 등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관련 직종 외에도 전기.전자 관련 기술을 습득하여 진출할 수 있는 전기.전자관련 직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 관심의 정도는 높으나 진출가능성을 다소 낮게 인식하고 있는 C유형의 직업군에

는 수입 또는 해외 영업과 같이 출신국의 장점을 활용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영업 및 판매관련 직업과 의료코디네이터와 같이 점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의료관련 직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이주배경 가정의 지원을 전담하는 사회복지사,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사, 다문화코디네이터 등과 같이 비록 현재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수요도 제한적이지만 향후 다문화사회의 정착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다양한 사회복지관련 직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관심의 정도와 진출가능성 모두 낮게 인식하고 있는 D유형의 직업군에도 국내 산업수요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는 건설·기계·재료·화학 관련 직업과 정보통신 관련 직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각 직종별 직업의 기본적인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중도입국청소년이 지닌 특성과 장점, 더 나아가 다문화사회의 정착과 국가 산업 수요의 요구에 따라 중도입국청소년이 진출 가능한 적합 직종에 대한 도출이 가능하다.

(2) 적합 직종 선정 기준 및 절차

중도입국청소년의 기본적인 특성과 직업선택 시 고려해야 할 점을 토대로 중도입국청소년 진출 가능 적합 직종 선정을 위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해당 직업에서 요구되는 교육 수준을 고려하여 대학원 과정과 같이 특별히 고학력을 요구하지 않는 범위(고졸~대학교졸 이내의 정규교육자) 내에서 직업을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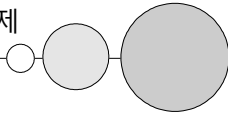
둘째, 높은 숙련 수준을 요구하는 직업은 일반적으로 중도입국청소년이 진출하기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고숙련을 요구하는 직업을 제외하고 3~24개월 정도의 숙련 기간을 요구하는 직업을 고려하였다.

셋째, 면담조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중도입국청소년은 현재 즉각적인 요구의 충족에 따라 직업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진로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각 직업에서 요구되는 교육 수준 및 숙련기간을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단기는 대략적으로 고졸 정도의 학력 및 2년 이내의 숙련기간에 해당하며, 중·장기는 전문대졸 혹은 대졸 정도의 학력 및 4년 이내의 숙련기간에 해당한다.

넷째, 한국어 능력은 국내 체류 및 적응적인 직장 생활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나,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중도입국청소년이 한국어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도의 한국어 수준이 요구되지 않는 직업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다섯째, 중도입국청소년의 다중언어 구사 능력, 출신 국가에 대한 문화 이해 등 이주배경으로 인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여섯째, 국내 체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자 취득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가능한 학력 및 숙련 기간의 범위 내에서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하는데 유리한 국내 공



인 국가기술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일급제, 비자 및 중도입국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과 별도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에서 산업 수요가 요구되는 일자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국가 기간전략산업을 고려하여 직업을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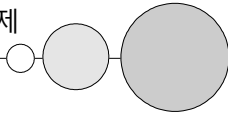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이상의 기준에 부합되더라도 비자와 관련하여 법무부고시 취업제한 직업은 제외하고,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C-4, E-1, E-2, E-3, E-4, E-5, E-6, E-7, E-9, E-10, F-2, F-4, F-5, F-6, H-1)을 고려하여 직업을 선정하였다.

이상에서 제시한 여덟 가지 기준을 기초로 하여 다음의 절차를 통해 중도입국청소년 진출 가능 적합 직종을 선정하였다. 우선, 중도입국청소년이 원하는 직업, 진출 가능성에 대한 인식, 중도입국청소년 주변인물들(친구, 선배, 지인 등)의 직업 조사 결과와 19개 직종별 직업에 대한 한국직업사전(2012) 및 직종별 직업사전(2013, 2014), 한국직업정보시스템(www.work.go.kr)을 기초로 하여 15개 직종 내 총 67개의 예시 직업을 1차로 선별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도입국청소년이 원하는 직업 또는 주변인물들이 종사하는 직업에서 진출 가능한 직업으로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세무사, 회계사, 번역가 등과 같이 이주배경에 적합한 혹은 이주배경에 따른 장점을 뚜렷하게 반영하지 않는 예시 직업을 제외하였다. 이후, 중도입국청소년의 진출에 따른 장점이 명료하지 않은 직업들을 추가적으로 제외시키는 한편, 가구목재성형원, 가구목재재단원, 파이프 용접원, 배관 용접원 등 직무 중심의 지나치게 세분화된 직업을 상위 범주로 재분류하는 과정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37개의 예시 직업을 선정하였다. 마지막 단계로, 최종 선정된 37개의 예시 직업을 대상으로 직업 선정의 주된 이유에 따라 ①이주배경 자원 활용 적합 직업군, ②장기 체류 비자 취득 적합 직업군, ③국가기간전략산업 수요에 따른 적합 직업군, ④다문화 친화 사회 적합 직업군 등 총 네 가지 영역별 직업 분야와 관련 직업에 대해 요구 학력 및 숙련기간, 관련 자격 정보를 제시하였다.

<표 22> 중도입국청소년 진출 가능 적합 직종 선정 과정

구분	1차 선정 직업		최종 선정 직업
	직업명	검토 결과	
음식서비스관련 직업	바리스타	선정	바리스타 한국문화강사 외국어학원강사 해외전시행사원(기획, 마케팅) 국제의료마케팅전문가 간호조무사 의료(관광)코디네이터 호텔컨시어지 통역지원사 관광통역안내원 조리사(중식, 양식)
	차조리사	제외	
	조주사	선정	
	푸드스타일리스트	제외	
	중식조리사	상위 범주 취합	
	양식조리사	상위 범주 취합	
	와인감별사	제외	
	브루마스터	제외	
환경.목재.가구.	도자기장식원	제외	

구분	1차 선정 직업		최종 선정 직업
	직업명	검토 결과	
공예 관련 직업	목재가공조직원	상위 범주 취합	웹디자이너 인테리어디자이너 귀금속디자이너 가구제작기능원 귀금속수리원 피부미용사(네일아티스트, 페디큐어리스트 포함) 미용사 조주사 제빵원 플로리스트 무역사무원 해외영업원 금형원 용접원(파이프, 배관, 가스, 레이저, 플랜트 등) 정비원(자동차, 기계장비 등) 선반원 전기.전자설비조직원 시설유지보수원(전기.전자 분야) 콘텐츠개발자(게임, 웹, 멀티미디어 등) 조경사 크루즈승무원 사회복지사(이주배경 가정 전담)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사 다문화코디네이터 아동복지지도원(이주배경 가정 전담) 다문화가정상담지도사
	가구목재성형원	상위 범주 취합	
	가구목재재단원	상위 범주 취합	
	목재연마원	상위 범주 취합	
	금속가구제작원	상위 범주 취합	
	가구부품가공원	상위 범주 취합	
	플로리스트	선정	
	귀금속수리원	선정	
식품가공관련관 련 직업	조명기구장식원	제외	
	제빵원	선정	
금융.보험관련 직업	초콜릿공예가	제외	
	외화매매사무원	제외	
	해외증권사무원	제외	
경영.회계.사무 관련 직업	해외여신사무원	제외	
	무역사무원	선정	
	문화마케터	상위 범주 취합	
	해외전시행사기획원	상위 범주 취합	
문화.예술.디자 인.방송관련 직업	해외전시행사마케팅전문가	상위 범주 취합	
	국제의료마케팅전문가	선정	
	웹디자이너	선정	
	귀금속디자이너	선정	
	인테리어디자이너	선정	
	통역지원사	선정	
전기.전자관련 직업	번역가	제외	
	통역사	제외	
미용.숙박.여행. 오락.스포츠관 련 직업	전기.전자설비조직원	선정	
	시설유지보수원(전기.전자 분야)	선정	
	피부미용사	선정	
	페디큐어리스트	상위 범주 취합	
	미용사	선정	
호텔컨시어지	선정		
크루즈승무원	선정		



구분	1차 선정 직업		최종 선정 직업
	직업명	검토 결과	
	관광통역안내원	선정	
	메이크업아티스트	상위 범주 취합	
영업 및 판매관련 직업	면세점판매원	제외	
	수입업자	제외	
	해외영업원	선정	
보건.의료관련 직업	의료코디네이터	상위 범주 취합	
	간호조무사	선정	
사회복지관련 직업	사회복지사	선정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사	선정	
	다문화코디네이터	선정	
	아동복지지도원	선정	
	다문화가정상담지도사	선정	
건설.기계.재료.화학관련 직업	금형제작원	상위 범주 취합	
	용접원(파이프, 배관, 가스, 레이저, 플랜트 등)	선정	
	자동차정비원	상위 범주 취합	
	기계장치정비원	상위 범주 취합	
	금형정비원	상위 범주 취합	
	선반원	선정	
농림어업관련 직업	조경사	선정	
	화훼작물재배원	제외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연구관련	한국문화강사	선정	
	문화관광해설사	상위 범주 취합	
	외국어학원강사	선정	
정보통신관련 직업	게임콘텐츠개발자	상위 범주 취합	
	웹콘텐츠개발자	상위 범주 취합	
	멀티미디어콘텐츠개발자	상위 범주 취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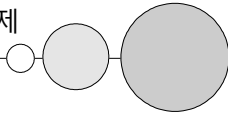
(1) 이주배경 자원 활용 적합 직종

이주배경 자원 활용 적합 직종은 출신국의 특성과 이주배경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직업으로, 교육, 기획 및 마케팅, 의료.관광.통역, 조리 분야의 직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교육 분야에는 한국문화강사와 같이 출신국 교육참가자를 상대로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소개하는 강사와 국내 교육참가자를 상대로 출신국의 언어를 가르치는 강사가 포함된다. 사무·영업·마케팅 분야에는 무역 사무 및 영업, 해외 전시행사

기획이나 마케팅, 의료를 매개로 한 마케팅 등을 통해 이주배경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이 포함된다. 의료·관광·통역 분야에는 간호조무사, 의료코디네이터와 같이 의료관련 진출할 수 있는 직업과 의료관광코디네이터, 호텔컨시어지와 같이 관광 분야에서 이주배경의 장점을 활용하여 출신국의 고객을 유치하거나 전문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직업이 포함된다. 그 외에, 조리사나 통역지원사 또한 출신국의 음식이나 언어를 매개로 하여 이주배경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에 해당한다.

<표 23> 이주배경 자원 활용 적합 직종

구분	내용				
직업 분야	교육, 사무·영업·마케팅, 의료·관광·통역, 조리				
선정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신국의 언어 및 문화적 이해를 토대로 교육 제공이 가능한 직업 · 무역 사무 및 영업, 해외 전시행사 및 의료마케팅을 매개로 진출 가능한 직업 · 의료·관광·통역을 매개로 해외 고객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 · 출신국의 음식 조리기술을 매개로 진출 가능한 직업 				
예시 직업	한국문화강사, 외국어학원강사, 해외전시행사원(기획, 마케팅), 무역사무원, 해외영업원, 국제의료마케팅전문가, 간호조무사, 의료(관광)코디네이터, 호텔컨시어지, 조리사(중식, 양식), 통역지원사, 관광통역안내원, 바리스타				
직업 분야	관련 직업 예시	요구 학력 및 숙련기간		관련 자격	비고
교육	한국문화강사	중장기	·전문대졸 정도 ·1년 초과 ~ 2년 이하의 숙련	-	
	외국어학원강사		·대졸 정도 ·1년 초과 ~ 2년 이하의 숙련	-	
사무·영업·마케팅	무역사무원	중장기	·전문대졸 정도 ·1년 초과 ~ 2년 이하의 숙련	-	
	해외영업원		·전문대졸 정도 ·2년 초과 ~ 4년 이하의 숙련	-	
	해외전시행사원(기획, 마케팅)		·대졸 정도 ·1년 초과 ~ 4년 이하의 숙련	컨벤션기획사	국가기술 자격
	국제의료마케팅전문가		·대졸 정도 ·2년 초과 ~ 4년 이하의 숙련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국가기술 자격
의료·관광·통역	간호조무사	단기	·고졸 정도 ·1년 초과 ~ 2년 이하의 숙련	간호조무사	국가전문 자격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중장기	·전문대졸 정도 ·1년 초과 ~ 2년 이하의 숙련	-	
	호텔컨시어지		·대졸 정도 ·1년 초과 ~ 2년 이하의 숙련	-	
	통역지원사		·대졸 정도 ·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의 숙련	-	
	관광통역안내원		·전문대졸 정도 ·6개월 초과 ~ 1년 이하의 숙련	관광통역안내사	
음식	바리스타	단기	·고졸 정도 ·1개월 초과 ~ 3개월 이하 숙련	-	
	조리사(중식, 양식)	중장기	·고졸 정도 ·2년 초과 ~ 4년 이하의 숙련	중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국가기술 자격



(2) 장기체류 비자 취득 관련 적합 직종

다음으로, 장기체류 비자 취득에 유리한 적합 직업은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과 같이 재외동포(F-4) 자격을 얻는데 유리한 자격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업으로, 디자인, 목재·금속 공예, 미용, 식음료, 조경·장식 분야의 직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디자인 분야에는 웹디자이너, 인테리어디자이너, 귀금속디자이너와 같이 디자인을 매개로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된 직업이 포함된다. 목재·금속 공예, 미용, 식음료, 화훼 분야에는 가구제작기능원, 피부미용사, 조주사, 플로리스트 등과 같이 고졸 수준의 학력 및 비교적 짧은 숙련기간 내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원이 포함되어 있다.

<표 24> 장기체류 비자 취득에 유리한 적합 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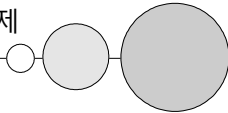
구분	내용				
직업 분야	디자인, 목재·금속 공예, 미용, 식음료, 화훼				
선정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술자격 취득과 관련된 직업 · 고졸 혹은 전문대졸 정도의 학력과 단기간의 숙련 기간을 통해 기술 습득이 가능한 직업 · 한국어 능력보다는 해당 분야의 기술력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직업 				
예시 직업	웹디자이너, 인테리어디자이너, 귀금속디자이너, 가구제작기능원, 귀금속수리원, 피부미용사, 미용사, 조주사, 제빵원, 플로리스트				
직업 분야	관련 직업 예시	요구 학력 및 숙련기간		관련 자격	비고
디자인	웹디자이너	중장기	·전문대졸 정도 ·1년 초과 ~ 2년 이하의 숙련	웹디자인기능사	국가 기술 자격
	인테리어디자이너		·전문대졸 정도 ·2년 초과 ~ 4년 이하의 숙련	실내건축기능사	
	귀금속디자이너		·전문대졸 정도 ·2년 초과 ~ 4년 이하의 숙련	귀금속가공기능사	
목재·금속 공예	가구제작기능원	단기	·고졸 정도 ·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의 숙련	가구제작기능사, 목공예기능사, 목재가공기능사	
	귀금속수리원		·고졸 정도 ·1년 초과 ~ 2년 이하의 숙련	귀금속가공기능사, 보석가공기능사	
미용	피부미용사, 네일아트사, 퍼피큐리스트 포함	단기	·고졸 정도 ·3개월 초과 ~ 1년 이하의 숙련	미용사	
	미용사	중장기	·고졸 정도 ·2년 초과 ~ 4년 이하의 숙련	미용사	
식음료	조주사	단기	·고졸 정도 ·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의 숙련	조주기능사	
	제빵원		·고졸 정도 ·6개월 초과 ~ 1년 이하	제빵기능사, 제과기능사	
화훼	플로리스트	단기	·고졸 정도 ·1년 초과 ~ 2년 이하의 숙련	화훼장식기능사	

(3) 국가기간전략산업 수요에 따른 적합 직종

다음으로, 국가기간전략산업 수요에 따른 적합 직업은 국내 산업 수요에 따라 전략적으로 요구되는 직업으로, 금형·용접·배관·선반, 기계·전기·전자, 전산·컴퓨터 분야의 직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금형·용접·선반 분야는 전반적으로 고졸 정도의 학력을 요구하지만, 금형제작원, 용접원(파이프, 배관, 가스, 레이저, 플랜트 등) 등과 같이 2년 이하의 숙련을 요구하는 직업 외에도 선반원과 같이 그 이상의 숙련기간을 요구하는 직업도 포함된다. 이에 비해, 기계·전기·전자 분야에는 전기·전자설비조작원, 시설유지보수원(전기·전자 분야)과 같이 2~4년 이하 정도의 숙련기간을 요구하는 직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보통신 분야에는 게임콘텐츠개발자, 멀티미디어콘텐츠개발자와 같이 전문대졸 수준의 학력을 요구하는 직업을 포함하고 있다. 비록, 요구되는 학력 및 숙련기간은 다소 상이하지만, 이들 직업은 모두 국내 산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국가에서 관련 인력에 대한 육성을 장려하는 직업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표 25> 국가기간전략산업 수요에 따른 적합 직종

구분	내용				
직업 분야	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타(농림어업, 관광)				
선정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간전략산업에 해당하는 직업 · 고졸 정도의 학력과 단기간의 숙련 기간을 통해 기술 습득이 가능한 직업 · 대졸 정도의 학력과 2년 정도의 숙련기간이 걸리더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진출할 수 있는 유망 분야의 직업 · 한국어 능력보다는 해당 분야의 기술력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직업 				
예시 직업	금형원, 용접원, 정비원, 선반원, 전기·전자설비조작원, 시설유지보수원, 콘텐츠개발자, 조경사, 크루즈승무원				
직업 분야	관련 직업 예시	요구 학력 및 숙련기간		관련 자격	비고
기계·재료	금형원	단기	·고졸 정도 ·1년 초과 ~ 2년 이하의 숙련	금형기능사	국가기간전략산업
	용접원(파이프, 배관, 가스 레이저, 플랜트 등)		·고졸 정도 ·1년 초과 ~ 2년 이하의 숙련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정비원(자동차, 기계장비 등)		·고졸 정도 ·1년 초과 ~ 2년 이하의 숙련	자동차정비기능사, 기계정비기능사	
	선반원	중장기	·고졸 정도 ·2년 초과 ~ 4년 이하의 숙련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전기·전자	전기·전자설비조작원	중장기	·고졸 정도 ·2년 초과 ~ 4년 이하의 숙련	전기기능사	
	시설유지보수원(전기·전자 분야)		·고졸 정도 ·2년 초과 ~ 4년 이하의 숙련	전기기능사 승강기기능사, 통신선로기능사	
정보통신	콘텐츠개발자(게임, 웹, 멀티미디어 등)	중장기	·전문대졸 정도 ·1년 초과 ~ 4년 이하의 숙련	정보처리기사, 게임프로그래밍 전문가	
기타	조경사	단기	·고졸 정도 ·6개월 초과 ~ 1년 이하의 숙련	조경기능사	
	크루즈승무원	중장기	·대졸 정도 ·1년 초과 ~ 2년 이하의 숙련	호텔서비스사, 호텔관리사 등	



(4) 다문화 친화 사회 적합 직종

마지막으로, 다문화 친화적인 사회 관련 적합 직업은 다문화 친화적인 사회의 도래를 위해 도입되어야 할 직업 및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직업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직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주배경 가정의 지원을 전담으로 하는 사회복지사,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사, 다문화코디네이터, 이주배경 가정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아동복지지도원, 다문화가정상담지도사 등 이 영역에 해당하는 직업은 다문화 친화적인 사회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직업으로, 비록 현재는 해당 직업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지만, 향후 국가 차원에서 수요 창출 및 이주배경자 중심의 직업인 양성과 배치를 통해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는 직업에 해당한다.

<표 26> 다문화 친화 사회 적합 직종

구분		내용		
직업 분야		사회복지		
선정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신국의 언어 및 문화적 이해를 토대로 상담 지원이 가능한 사회복지 분야의 직업 · 현재는 일자리 수요가 미미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다문화 친화적인 사회의 정착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인 육성이 요구되는 직업 · 이주배경 가정을 전담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와 같이 다문화 친화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전문분야가 세분화되어야 할 직업 		
예시 직업		사회복지사(이주배경 가정 전담),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사, 다문화코디네이터, 아동복지지도원(이주배경 가정 전담), 다문화가정상담지도사		
직업 분야	관련 직업 예시	요구 학력 및 숙련기간	관련 자격	비고
사회복지	사회복지사(이주배경 가정 전담)	·전문대졸 정도 ·1년 초과 ~ 2년 이하의 숙련	사회복지사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사	·전문대졸 정도 ·1년 초과 ~ 2년 이하의 숙련	통번역지원사	
	다문화코디네이터	·전문대졸 정도 ·1년 초과 ~ 2년 이하의 숙련	-	
	아동복지지도원 (이주배경 가정 전담)	·대졸 정도 ·1년 초과 ~ 2년 이하의 숙련	-	
	다문화가정상담지도사	·대졸 정도 ·1년 초과 ~ 2년 이하의 숙련	-	

4. 결론 및 정책적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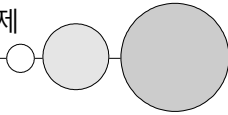
국내에 거주하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적응적인 사회 정착과 취업을 지원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정책적 과제에 해당한다. 특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적응적인 정착이란 진로 및 직업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에 이들 대상의 더욱 체계적인 진로정책과 취업지원 방안 마련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중도입국청소년이 진출 가능한 다양한 직업 분야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중도입국청소년의 특성과 환경적 여건에 기초하여 ①이주배경 자원 활용 적합 직종, ②장기 체류 비자 취득 적합 직종, ③국가기간전략산업 수요에 따른 적합 직종, ④다문화 친화 사회 적합 직종 등 총 네 가지 영역별 진출 가능 적합 직종을 제시하였다.

우선, 이주배경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중도입국청소년 진출 적합 선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출신국의 언어 및 문화적 이해를 토대로 교육 제공이 가능한 직업, 무역관련 사무와 영업, 해외 전시행사 및 의료마케팅을 매개로 진출 가능한 직업, 의료·관광·통역을 매개로 해외 고객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 출신국의 음식 조리기술을 매개로 진출 가능한 직업을 대상으로 교육, 사무·영업·마케팅, 의료·관광·통역, 조리 분야에 걸쳐 총 13개의 진출 가능 예시 직업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통역사나 번역가와 같이 출신국의 언어와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고도의 한국어 실력과 상당 수준의 학력 및 숙련기간이 요구되는 직업은 최종적으로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중도입국청소년이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자 획득이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장기체류 비자 취득에 유리한 적합 직종을 선정하였다. 이는 곧 재외동포(F-4) 자격을 얻는데 유리한 공인 국가기술자격증의 취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업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취득과 관련된 직업, 고졸 혹은 전문대졸 정도의 학력과 비교적 단기간의 숙련 기간을 통해 기술 습득이 가능한 직업, 한국어 능력보다는 해당 분야의 기술력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직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목재·금속 공예, 미용, 식음료, 화훼 분야에 걸쳐 총 10개의 진출 가능 예시 직업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중도입국청소년이 종사할 수 있는 일자리 수요가 실제로 요구되고 있는가와 관련하여 국내 산업 수요에 따라 전략적으로 요구되는 국가기간전략산업 수요에 따른 적합 직업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기간전략산업에 해당하는 직업, 고졸 정도의 학력과 단기간의 숙련 기간을 통해 기술 습득이 가능한 직업, 대졸 정도의 학력과 2년 정도의 숙련기간이 걸리더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진출할 수 있는 유망 분야의 직업, 한국어 능력보다는 해당 분야의 기술력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직업을 대상으로 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타(농림어업, 관광) 분야에 걸쳐 총 9개의 진출 가능 예시 직업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에는 비록 일자리 수요가 부족하지만, 향후 다문화 친화적인 사회



의 정착을 위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직업 및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직업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출신국의 언어 및 문화적 이해를 토대로 상담 지원이 가능한 사회복지 분야의 직업, 현재는 일자리 수요가 미미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다문화 친화적인 사회의 정착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인 육성이 요구되는 직업, 이주배경 가정을 전담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와 같이 다문화 친화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전문분야가 세분화되어야 할 직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5개 진출 가능 예시 직업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도입국청소년 대상의 진로 및 취업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도입국청소년의 진출 가능 직업에 대한 시각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중도입국청소년이 잘 알고 있고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으며 실제로 진출하기도 하지만, 이 중에서 상당수의 직업은 이주배경의 강점과 관련이 적거나 혹은 장기체류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취득과도 무관한 직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진로에 관한 고민은 주로 선배와 지인, 부모님 등 이주민커뮤니티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고민을 나눌 수 없는 중도입국청소년도 10%가 넘는 등 직업세계에 대한 폭넓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다양한 직업분야에 걸쳐 진출 가능한 적합 직종을 개발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해당 직업의 직무와 진출 경로, 필요 교육훈련자격 등이 포함된 중도입국청소년 대상의 맞춤형 진로직업 정보와 진로지도가 다양한 전달체계를 통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정보의 전달에서 더 나아가 실제로 해당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훈련 기회의 제공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미흡한 한국어능력으로 인한 직업기초능력의 부족은 원활한 취업과 직장 적응의 가장 큰 장애요인 중 하나에 해당한다. 이 연구의 조사 결과에서도 80%이상의 응답자가 자신의 한국어능력을 보통 이하라고 인식하였으며, 현재 하고 있는 일의 45% 가량도 한국어공부에 해당하였으나, 입국 후 가장 큰 어려움 또한 언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배경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라 하더라도 성공적인 경력경로 형성을 위해서는 교육훈련이 반드시 요구된다. 이에 따라, 직업훈련 및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하되, 중도입국청소년 대상의 특화 교육프로그램 등 별도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의 도입과 확산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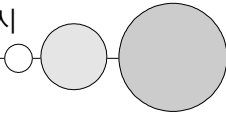
다음으로, 중도입국청소년 대상의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에 있어서도 단기적 전략과 중·장기적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가령, 간호조무사, 가구제작기능원, 귀금속수리원, 금형원과 같이 고졸 정도의 학력 또는 2년 이하의 숙련 기간을 거쳐 비교적 단기간에 진출할 수 있는 직업이 있는 반면, 해외전시행사원,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웹디자이너, 콘텐츠개발자, 다문화코디네이터와 같이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 또는 4년 이하의 숙련 기간을 요구하는 진출 가능 직업도 있다. 이에 따라, 단기적 관점에서 중도입국청소년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교육훈련 및 진로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인의 경력경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준비해나갈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도입국청소년 진출 가능 적합 직종은 이주배경이라는 개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도 있지만, 그 외에도 장기 체류 비자 획득과 관련된 직업은 무엇인지, 국내에서 수요가 요구되는 국가기간전략산업은 무엇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더 나아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다문화 친화적인 사회의 정착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가령, 이주배경 가정 전담 사회복지사,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사, 다문화코디네이터 등 이 연구에서 제시한 다문화 친화 사회 적합 직종은 현재 일자리 수요가 매우 제한된 직업에 해당하지만, 사회통합과 복지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국가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이 필요한 직종에 해당한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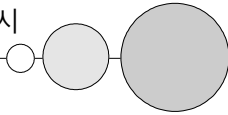
- 양계민(2013). 중도입국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중도입국청소년 실태조사 정책토론회 자료집.
- 오성배·김경미·김재우·서덕희·오정은(2013). 중도입국청소년 지역별 지원실태에 관한 분석. 이민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No. 2013-03.
- 서덕희, 김은석, 조은혜, 임경환(2015).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직업군 개발 및 취업지원 방안 연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 행정자치부(2015.7).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 OECD(2010), Equal Opportunities? The Labour Market Integration of the Children of Immigrants, OECD Publishing, Paris



2017 다문화가족포럼 연계 학술대회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정책과 취업지원방향”

중도입국청소년 진로·자립 지원현황 및 모형제시

강은이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중도입국청소년 진로자립 지원현황 및 모형제시

강 은 이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1. 문제의식.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진로와 자립에 대한 물음들

2010년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급증하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은 흡사 단거리 계주를 달리듯 아이들과 함께 전력 질주했다. 초기에는 한국어교육을 중심으로 한 한국사회 정착지원에 열중했고, 이후 중도입국청소년들이 증가하면서 공교육진입이나 심리정서지원 등의 이슈들을 따라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정부차원 및 지역사회차원의 정책개선을 위해 일해왔다. 이러한 고민들이 끝나기도 전에 최근 현장은 적응(한국어 습득, 학교 졸업) 이후의 삶에 대한 도전들을 받고 있다. 아마도 아이들은 우리가 고민하기 이전부터 삶의 당사자로서 두려움과 고민들 속에서 스스로 부딪혀 왔을 것이다. '한국어를 배우고 나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지...?' 등의 질문들 속에서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고, 한국어를 배워도 향상되는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알아듣지도 못하는 수업에 참여해도, 매일매일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어 실력이 늘어도 아이들이 그것을 자본삼아 무언가 다음을 준비하거나 꿈 꿀 수 있는 '판'이 만들어지기는 힘들다는 현실을 먼저 알아버린 것은 아닐까.

우리 기관에서만이 아니라 최근 중도입국 청소년들에 대한 핫 이슈 진로와 자립 지원임은 분명한 것 같다.

초기정착지원과정에서 한국어과정을 이수한 아이들, 10대 후반으로 공교육에 진입하기에는 애매한 나이의 아이들, 공교육에 진입할 욕구(또는 자신감)가 없거나 이미 공교육에서 뛰쳐나온 아이들 하지만 돌아갈 곳이 없거나 돌아가고 싶지 않은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첫째, 어떻게 경제적 자립을 도울 것인가 둘째,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주하게 될 아이들을 어떻게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킬 것인가 셋째, 어떤 교육을 제공해야하는가 등의 고민들을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진로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물론, 초창기에도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서비스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개별 단체(기관)들 자체적으로 한국어교육 이외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진로영역의 프로그램들도 진행해왔다. 하지만 최근의 본격적인 논의 또는 적극적인 연구와 기획 보다는 진로체험 중심의 곁핥기식 프로그램에 치우쳐 있던 것도 사실이다.

현재 몸담고 있는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도 위의 단계를 거치며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는데 이는 단기에서 장기프로그램으로, 단순체험 프로그램에 동기부여 강화 프로그램으로, 진로탐색에서 자립지원 방안으로, 청소년들의 대상화에서 주체적인 참여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위의 변화들을 겪으면서 다시금 우리 스스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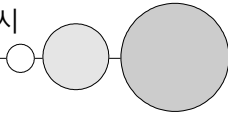
- 첫째, 당사자의 입장에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진로와 자립은 무엇일까.
- 둘째, 사업의 한계 측면에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자립을 준비하지 못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어떤 것들일까.
- 셋째, 사업의 효용가치 측면에서 진로체험 프로그램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정말 진로와 자립을 가능케 하는가.

2. 변화 - 진짜 필요하지만 제자리걸음인 것들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한 본질은 '동기'다. 한국어를 왜 공부해야하는지,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나는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을 받아본 적 없이 한국에 왔으니 한국어를 배워야지, 아직 청소년이니까 학교를 가야지 하고 급류에 떠밀리듯 살다가 정신차리고 나서 보면 성년의 나이를 앞두고 정작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급박해지고 만다.

여기 대학진학을 목표로 입국한 아이와, 본국에서 지지체계가 사라져 준비 없이 입국한 아이가 있다. 같은 기간 한국어수업을 받고, 한국의 교과과정에 참여해도 대학진학을 목표로 입국한 아이의 한국어 학습 속도를 준비 없이 입국한 아이가 따라가지 못한다. 내가 왜 한국에 있는지, 한국어를 배워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나의 꿈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지가 명확한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같은 듯 다른 모습인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동기를 철저히 파해친다. 그들은 동기를 크게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는데, 바로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다. 이 두 가지 동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통제 가능성이다. 내적 동기란 우리가 인식하고 통제할 수 있는 동기다. 반면 외적 동기는 다른 사람, 혹은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다(가령 돈).



자신에게 대단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게 만드는 것은 내적 동기, 그리고 자신에게 큰 의미가 있는지와는 별개로 구체적인 보상(결과물)을 얻기 위해 과제를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은 외적 동기다.¹⁾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진로설정과 자립을 위한 외부 동기는 '한국어'와 '체류-신분'을 꼽을 수 있다. 이 둘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체류가 불안정할수록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동기는 떨어지게 마련이며, 한국어 능력이 뛰어나수록 한국사회 정주에 필요한 귀화 또는 기능사자격증취득 등에 유리해진다. 즉, 안정적 체류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현장 지원서비스는 '대단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게 만드는 내적 동기'는 등한시한 것은 아닌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일단 한국어만, 그것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학습시킨 후에 학교로 가든지, 취업을 하든지 결정하도록 등 떠밀고 또 새로 입국 한 이들을 받기에 급급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때이다.

2015년 무지개센터의 발 빠른 움직임으로 '무지개 잡아라'와 같은 진로프로그램들이 지원되기 시작했지만 이 역시 청소년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 이들의 '동기'가 아닌 기관이 원하는 것, 기관의 관심사, 기관이 줄 수 있는 것들, 기관의 '동기'에 충실한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동기'들이 충족되어도 현실적인 장애물은 여전히 많다. 한국어 외에도 청소년기에 필요한 전인적인 성장의 기회와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한국어를 배우지만 언어라는 것이 6개월~1년 만에 쑥쑥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청소년기는 아직 완성의 시기가 아니기에 기계처럼 한국어만 할 순 없다. 한국어를 배우면서도 청소년기 발달시기에 겪는 모든 고민, 도전, 실패의 상황들을 겪어내야 하고 생각도 자라야 하며, 몸도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체류 역시 큰 장애이다. 한국이라는 타지에 어느 순간 발을 딛고 있지만 자신을 돌아볼 여유는 없다. 한국어는 더딘데 시간은 흐르고, 독립해야 할 것만 같은 나이로 또는 귀화를 하지 못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하는 나이로 성큼 성큼 다가간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 도전하지만 그것은 사실 자신들의 꿈이 아니다. 살아남기 위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에 미래를 걸어본다.

자신의 꿈과 전혀 상관없는 요리사 자격증에 도전한 청소년은 필기시험을 합격해야 실기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필기시험이 너무 어렵기만 하다. 1년에 한 번 중국어로 시험이 있다지만 필기시험에 나오는 중국어를 어린나이에 이해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한국어로 볼 수도 없다. 그렇게 시험에 떨어지고 나면 다시 1년의 기다림과 준비가 반복된다.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고 있는데 사실 방향이 없는 것과 같다.

1) 단단해지는 연습(life as Sport) 조너선 페이더(뉴욕 메츠 스포츠 심리닥터) 2016. 어크로스) 3장 동기 찾기 : 평범한 욕망에서 방향성 있는 목표로 p100에서 인용

3. 현황 - 고민하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인큐베이팅 과정 중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무지개센터) 2017년 진로관련 사업현황>

홈페이지 자료 발췌

1. 중도입국청소년 초기지원사업 “레인보우스쿨”

- 대상 : 9-24세 중도입국 청소년(제 3국 출생 탈북청소년 포함)
- 기간 : 450시간 / 19주 (연간 38주)
- 모형 : 전일제 / 주말·야간 / 방과후
- 내용 : 한국사회에 대한 기본정보, 한국어 교육
사회적 관계 향상 및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정규교육과정으로의 편입학 지원, 진로지도 등
- 목적 : 원활한 한국사회 초기적응 지원

2. 중도입국 청소년 진로교육 프로그램 “무지개 JOB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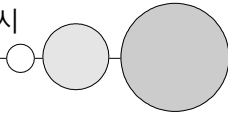
- 대상 : 만 16-24세 중도입국 청소년 10명 내외
- 기간 : 총 200시간(8~10주)
- 내용 : 오리엔테이션, 진로탐색과정(직장생활을 위한 한국어교육, 진로소양교육, 직업체험활동), 진로설계과정(TOPIK 대비 한국어 교육, 단기직업 체험, 진학 및 취업지원등)
- 목적 : 중도입국 청소년(제 3국 출생 탈북청소년 포함)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해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 지원

3. 이주배경청소년 직업교육 프로그램 “내-일을 JOB아라”

- 대상 : 한국어 능력,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및 직업 기술 부족으로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도입국 청소년, 다문화가정청소년, 탈북청소년 등 이주배경청소년
- 기간 : 총 200시간(10~14주)
- 내용 : 바리스타, 메이크업아티스트, 등 이주배경을 활용할 수 있거나, 장기체류 비자 취득이 가능한 직업군을 중심으로 전문 직업훈련과 자격증 취득 대비 교육
- 목적 : 이주배경 청소년의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직업능력을 향상하고, 자립의식을 고취하여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 마련

4. 다독다독 Cafe 운영

-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사회연계 및 자립지원
- 바리스타 및 제과제빵사 직업 훈련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해보는 경험



- 지속적인 직업훈련 및 실습훈련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사회진출 도움

5. 코오롱과 함께하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사업

- “꿈을 잡(JOB)아라” : 조리기능사 양성 프로그램
언어 및 문화차이, 체류자격 등 이주배경 요인으로 인해 직업 훈련 및
취업에 제약이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에게 직업훈련과 인턴십 제공

6. 친친무지개 프로젝트

구체적으로 진로를 설정한 프로젝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그 진로에 맞는 ‘맞춤형 교육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개척을 지원하고,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시켜 이 사회에서 건강히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2017년 진로관련 사업현황>

1. 중도입국청소년 초기정착지원사업 '안녕! 공동체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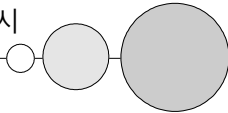
- 대상 : 14-24세 중도입국 청소년
- 기간 : 3월 개강 ~ 12월 종강 / 월~금 9:00~16:00
- 내용 : 한국사회에 대한 기본정보, 한국어 교육
 사회적 관계 향상 및 심리정서지원, 진로 퍼실리테이션 프로그램
 민주시민교육, 자치회의를 통한 주체성확립 교육 등
- 목적 :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 및 자기탐색

'안녕! 공동체학교'의 경우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은 한국어이다. 진로선택과 방향설정에서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한국어를 익히는 과정이다. 이외의 교육들은 청소년기 발달단계에 필요한 심리-정서, 예·체능, 문화적응, 진로체험 등이다. 이 단위에서의 진로지원은 다양한 진로방향과 직업에 대한 체험중심으로 한국사회에서 가능한 직업이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입국초기 정착단계부터 '자치회의'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면서 민주적 의사결정이나 판단과정에서의 주체적 참여기반을 경험하도록 하고 있다.

2. 중도입국 청소년 위탁형 대안학교 '꿈빛학교'

- 대상 : 경기도내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
- 기간 : 3월 개학 ~ 12월 방학 / 월~금 9:00~16:00
- 내용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제2외국어(한국어), 대안교과(미술, 음악) 등 정규 교과목 교육, 글로벌시민교육, 자치회의 운영, 사회참여 봉사활동, 집단심리프로그램, 진로 퍼실리테이션 및 개별코칭 프로그램
- 목적 : 중도입국 청소년(제 3국 출생 탈북청소년 포함) 특성을 고려한 학습과 단계별·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해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한국사회에 정착 지원

공교육에 진입한 중도입국청소년들이 다양한 부적응의 사유(학업의 어려움, 심리-정서적인 불안, 입국초기 적응역량 부족 등)로 중도탈락하지 않고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필요한 경우 본 센터의 '꿈빛학교'로 위탁을 보낸다. 꿈빛학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같이 교과학습이다. 꿈빛학교 위탁을 통해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진로와 직업선택에 필요한 학력을 포기하지 않고 취득할 수 있다. 이외에 다양한 대안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진로지원은 '퍼실리테이션 및 코칭'을 통한 진로의식, 주체적 진로설



정 등의 내적동기 강화 활동과 진로체험 활동을 통해 직업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들로 구성되어져 있다. 또한 꿈빛학교 역시 정기적인 자치회의를 통해 꿈빛학교 운영과정에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들을 마련하고 있다.

3. 이주배경 청소년 검정고시 지원 ‘푸른 꿈 사다리’

- 대상 :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 취득을 희망하는 이주배경 청소년
- 기간 : 3월 개강 ~ 12월 종강 / 월~금 10:00~16:00
- 내용 :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 검정고시 기초과목 수준별 집중교육, 교과목 이해를 돕기 위한 체험활동, 진로직업 교육 및 상담, 상급학교 진학 연계
- 목적 :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학력 신장 및 진로역량 강화

본 사업은 초창기 한국에 입국해서 이미 공교육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거나 나이가 학교에 진입하기에는 맞지 않거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건이나 상황들로 인해 학교에는 머물고 싶지 않지만 학력은 취득하고 싶어하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다. 처음 본 사업을 시작할 때는 과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까에 대한 회의감이 있었다. 국내 일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검정고시 지원 사업들이 고전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참여한다고 해도 고등학교까지 검정고시를 통과하는 것은 언어적 한계가 있는 아이들에게 어려움 과업일 거라고 짐작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합격률이 97~98%에 달하고 있을만큼 테스트용으로 시험보는 아이들을 제외하고 준비해서 본격적으로 시험에 응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합격을 하면서 우리의 예상과 염려를 뛰어넘고 있다.

먼저 시작한 아이들의 높은 합격률은 후발대로 참여하는 아이들에게 동기가 되고 있고,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패스한 아이들이 점차적으로 대학을 진학하면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학력신장에 매우 의미있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검정고시 패스 이후의 진로설정을 돕기 위한 직업교육과 직업체험, 개별 진로컨설팅을 병행하면서 진로설정에 있어서 훌륭한 발판 역할을 하고 있다.

4. 글로벌민주시민 양성 “봄’s”

- 대상 : 24세 이하 중도입국 청소년(학교 안 / 학교 밖)
- 기간 : 3~12월
- 내용 : 특기적성탐색캠프, 학교안 / 학교밖 중도입국 청소년 그룹별 진로코칭 활동, 글로벌마인드 교육, 관계향상 및 사회참여 활동
- 목적 :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청소년기 자기역량과 시민역량을 키워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 지원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내적 동기를 탐색하고 성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학습 퍼실리테이션과 그룹 코칭을 적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자신들의 내적 욕구와 진로설정을 이어줄 수 있는 퍼실리테이션을 진행하는 동시에 참여 청소년 간의 관계형성활동(글로벌 마인드, 극활동)등을 통해 소속감과 응집력을 강화하였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훈련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교육들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 높은 참여율로 이어지게 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를 통해 크고 작은 의사소통과 합의 과정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준비시킬 수 있었다.

특히, 획일화된 시스템 속에서 일방적으로 평가받아오던 것이 익숙했던 청소년들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각각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동기와 용기를 제공했는데 이는 지켜보는 우리에게도 매우 놀라운 경험들이 되었다.

5. 중도입국 후기 청소년의 진로지원 “챌린지 ON”

- 대상 : 24세 이하 중도입국 청소년
- 기간 : 1~12월
- 내용 : 퍼실리테이션을 통한 진로 코칭, 직업 탐방 및 직업체험, 취업용 고급 한국어 교육, 심화 기술·자격 취득 지원, 취창업 교육, 가족 응집력 강화 프로그램 등
- 목적 : 비전에 대한 동기부여 및 구체적 진로설정, 취업 및 미래를 위한 구체적 활동 실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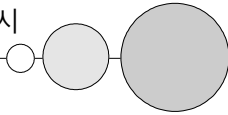
2년 전부터 현장에서의 고민은 아이들의 진로에서 직업으로의 전환이었다. 진로에 대한 고민과 다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실질적인 직업준비 과정을 거쳐 성인기를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었는데, F-4 동포근로자 자녀들의 경우 자격증 취득을 통해 체류를 연장할 수 있다는 정책변화와 맞물려 실제적인 자격증 취득으로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다.

현재 진행 중인 본 사업의 경우 개별 초기상담을 통해 진로설정을 돕고 자격증 취득에 대한 정보탐색과 비용지원을 함께 하면서 이러한 이유로 시도하지 못하고 있었던 청소년들에게는 도전의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자격증 취득의 과정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한계점과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사이에서의 간극을 좁히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6. 진로·진학 상담 지원 “꿈다리 상담실”

- 대상 : 24세 이하 이주배경 청소년 및 주 양육자
- 기간 : 1월 ~ 12월



- 모형 : 상담 지원 및 검정고시 지원 반 운영
- 내용 : 진학·진로 맞춤형 상담 및 서비스 연계, 공교육 진학 및 검정고시 지원, 집단 프로그램, 진학설명회 등
- 목적 :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역량강화 및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

2015년부터 운영된 '꿈다리 상담실'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가장 처음 접하는 진로상담 및 컨설팅 모형으로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이 되어가고 있다.

꿈다리 상담실 운영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들의 교육권을 인지하고 자신에게 맞는 교육, 학력취득, 진로에 대한 가이드를 개별적으로 지원 받는다.

서류가 필요하면 그것을 지원하고, 동행이 필요하면 기꺼이 동행해서 학교를 방문하거나 기관과의 연계를 돕는다.

이는 초·중·고에 그치지 않고 대학진학 컨설팅까지 확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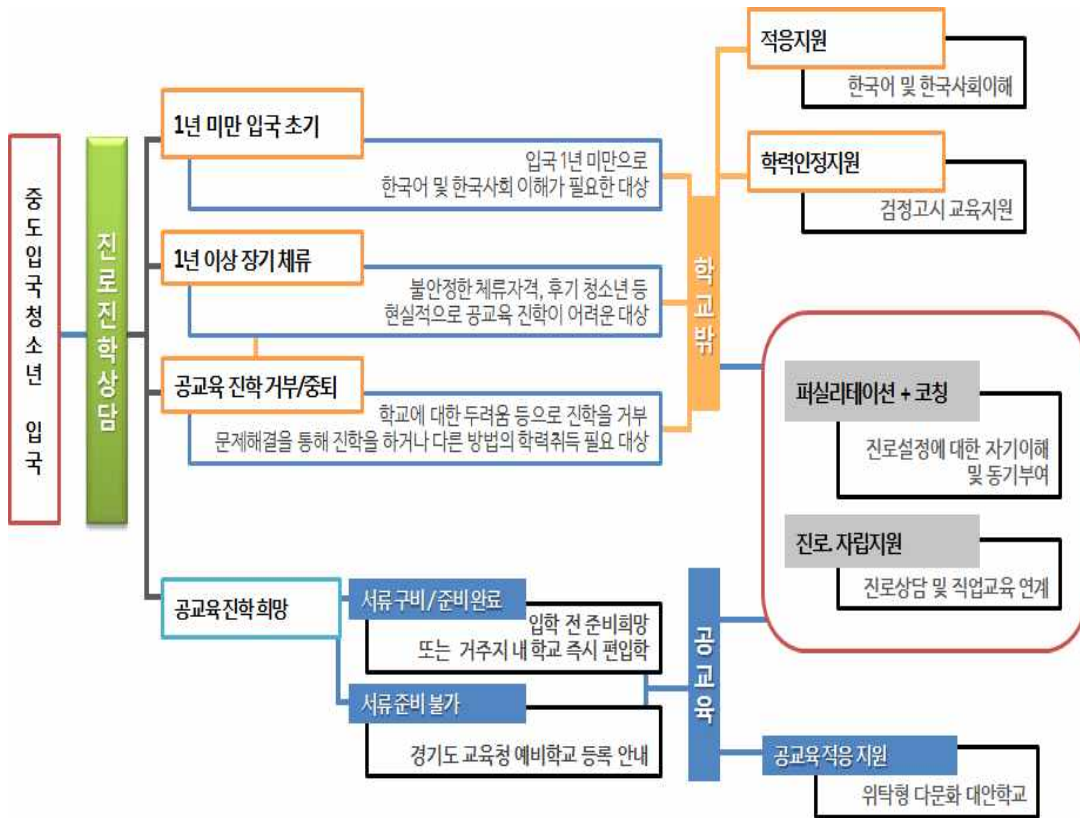
동시에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정보들을 모아 서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을 적절하게 연계한다.

이러한 지원을 위해서 꿈다리상담실은 지역의 학교들과 끈끈한 연대체계를 유지하고 관련 자원들에 대한 정보를 취합한다. 그러다보니 학교들과의 신뢰관계를 끈고히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교육 진입률이 높아지는 결과들을 보였다.

한 예로, 타 지역은 인문계 고등학교 보다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입학에 난색을 표하지만 꿈다리 상담실 운영 이후 특성화 고등학교의 진학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동시에 고등학교 진학률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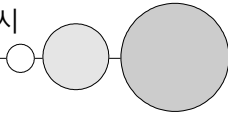
필요한 경우 진로지원 소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러한 활동들을 바탕으로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지원 매뉴얼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4. 진로 및 자립지원 모형



[그림 1] 현장에서의 진로지원 모형 제시안

- ❖ 입학 초기 한국사회에서(지역사회 내)의 교육·진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관에 적절히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장기적으로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안전망을 견고하게 갖추어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체류비자, 체류기간, 준비도, 언어수준 등에 따라서 지원될 수 있는 모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위 모형과 같이 즉각적으로 공교육에 진입할 청소년과 학교 밖에서 머물며 대안적 교육을 통해 진로를 결정할 청소년들이 나뉘어 질 수 있다.
- ❖ 공교육 진입한 청소년들은 우선적으로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공교육 적응을 위한 집단 심리프로그램과 개별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고, 만약의 경우를 위해 위탁형 다문화대안학교가 마련되어 있다.
- ❖ 학교 밖 청소년들은 다시 욕구와 체류상황 등에 따라 한국어 중심 적응지원이나 검정고시, 진로·자립지원 형태로 나뉘어진다. 이는 유기적으로 연동되어지며 무엇보다 내적동기를 위한 퍼실리테이션 과정운영을 기반으로 한다.



● 이러한 모형은 모형일 뿐 결국 이 내용을 채워나가는 것은 '동기'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진로나 건강한 자립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하며 이끌어주는 부모일 수도 있고, 함께 공감하고 방향을 같이 찾아나갈 믿음직한 친구 또는 멘토일 수도 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다양한 경로와 사건들을 통해 동기를 얻고 자극을 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현장의 기관들이 모두 통제하거나 만들어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부모들을 상담하고 부모역량강화라는 이름으로 부모교육을 개설하지만 현장에서 일해 본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 너무 어렵다는 것을.

위와 같은 자연스러운 그래서 어쩌면 너무나 행운에 가까운 방법이 아니라면 현장에서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형태로 지원하는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는데 현장에서 실제 진행해 본 결과 퍼실리테이션 과정은 꽤 유의미하고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본 센터에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상대로 퍼실리테이션 활동을 진행한 정민규 퍼실리테이터는 '청소년을 위한 퍼실리테이션 매뉴얼(2016)'에서 '평화적인 대화의 두 가지 원칙(첫째, 모두에게 지혜가 있다. 가장 지혜로운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모두가 참여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화의 과정에서 모두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모두의 의견이 경청 될 것이다.)이 지켜지는 가운데 청소년들이 퍼실리테이션을 경험한다면 다음과 같은 성장이 기대될 수 있다고 하였다.

첫째,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음으로써 자발성과 주도성을 키워 갈 수 있다.

스스로의 결정을 존중받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과 같다. 인격의 존중이 있을 때 비로써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 하에 행동하게 되고 자신의 생각에 책임지는 행동을 하게 된다.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만약 공부를 시작하려는 찰나의 학생이 부모님으로부터 "공부하라"는 말을 들으면 공부를 하기 싫어지는 것과 같다. 퍼실리테이터는 자신이 내린 결정을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의지를 존중하고 대화를 진행한다.

둘째, 다른 의견과 경험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짐으로써 학습의 촉진을 경험할 수 있다. 퍼실리테이터는 의견을 존중하고, 언어와 비언어 모두를 경청한다. 존중의 반대말은 무시하는 것이다. 무시하는 태도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고 다름에 대해 제한적인 태도를 갖게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존중하는 자세를 가질 때 만이 배울 수 있다. 퍼실리테이터가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생각을 더욱 더 듣고 다양한 의견을 들음으로써 학습을 촉진하게 된다. 자신의 의견을 주장만 하고 경청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대화를 독점할 수 있다. 자연히 상대방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고 학습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퍼실리테이션 과정을 진행하기 전 어느날 아이들에게 질문한 적이 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뭘까? 무엇을 보면 우린 그 사람을 어른이라고 생각할까?’

‘나중에 하고 싶은 일, 내가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하고 싶은 일이나 직업은 뭘까?’

이러한 질문에 아이들의 대부분은 ‘어른은 돈을 벌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 해요’ ‘나중에 사장님 될 거예요’ ‘회장님 되어서 부자 될거예요’ 라고 대답했다.

이 아이들에 진로 퍼실리테이션 과정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게 되었고 아이들의 대답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물들을 보면서 나에게 매우 의미 있게 다가왔던 모습은 아이들이 오히려 질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난 왜 중국에서 태어났을까요’ ‘왜 부자가 되어야 할까요?’ ‘꼭 돈이 많아야만 하나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난 지금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아이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꺾꺾 눌러 담았던 수많은 질문들을 접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해결하지 못한 채 한국어를 배우고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학교는 나와야 한다며 일단 들어가라고 등 떠미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우리가(특히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해주어야 할 서비스나 프로그램들은 정말 많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질문하고, 또 아이들이 질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의 진실 된 동기들을 얻도록 하는 것이 첫 시작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동기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거시적 환경마련

이러한 동기들이 좀 더 탄력을 받고, 형성된 동기들이 열매를 거두어 나가기 위해서 뒷받침 되어져할 몇 가지 정책(거시적)개선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첫째 국제결혼가정의 중도입국 자녀들에게 ‘F-2’비자 발급

국제결혼가정의 경우 이미 청소년의 양육자가 한국사회에 정주하고 뿌리를 내린다고 가정한다면 그 미성년 자녀들에게 F-2비자를 발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포근로자 가정의 중도입국 자녀들에게 24세 연장, H-2비자도 동일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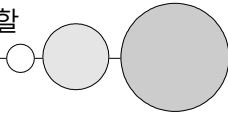
현재 동포근로자가정 자녀 중 F-4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24세 체류연장 정책을 H-2비자 자녀들에게도 확대적용해서 ‘동포’라는 동일안 조건에 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하는 것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필기시험에 외국어응시 횟수와 언어영역을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인을 넘어서서 민주시민으로 양성되기 위한 교육과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한국어를 못하면 낙오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 언어를 바탕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교육받을 수 있는 전문적인 전달체계 구성에 대한 고민들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표 1> 퍼실리테이션 구성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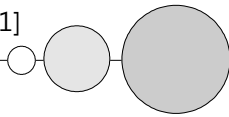
차시	교육 주제	교육 목표	교육 내용
1	대화 나누기	도입 - 관계 맺기	• 미래에 대한 대화를 진솔하게 나눌 수 있도록 관계를 형성하고 참여자의 기대감을 듣고 기록한다.
2	서로 이해하기	도입 - 관계 맺기	• 진로수업을 함께 참여하는 학생들이 서로에 대해 마음을 열고 상호소통을 하기 위한 관계를 형성한다.
3	강점 찾기	도입 - 관계 맺기	• 학생들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면을 찾아보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
4	미래 그리기	미래 - 미래 생각하기	• 자신이 미래에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다른 친구들과 공유하고 진로와 직업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한다.
5	질문 만들기	미래 - 미래 생각하기	•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생각하는 힘을 기른다.
6	질문 선물하기	미래 - 미래 생각하기	• 자신이 생각해 본 미래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의 도움을 통하여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해 보는 경험을 한다.
7	준비하기	준비 - 과정 준비하기	• 바라는 모습을 이루기 위해 어떤 과정이 필요한 지 이해한다.
8	직업준비하기	준비 - 과정 준비하기	• 직업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고 직업 선택의 기준을 정리하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이를 통해 자신의 미래(삶의 방향)을 이루어가는 방법과 수단으로서 직업을 바라보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방법을 폭넓게 탐색한다.
9	순서 찾기	준비 - 과정 준비하기	• 학생들이 미래를 이루어 나가는 방법에는 절차와 순서가 있음을 이해하며, 이를 위해서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고 스스로 정리해 본다.
10	만나기	현재 - 행동선택하기	• 학생들이 각자 해결하고 싶은 질문을 가지고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의 멘토들을 만나 궁금증을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11	공동목표찾기	현재 - 행동선택하기	• 진로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자세를 길러주고 진로수업의 진행과정을 함께 만들며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12	목표찾기	현재 - 행동선택하기	• 학생들이 앞선 진로수업시간에 기록하고 정해 본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다.
13	성찰하기	마무리 - 기록하기	•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키우고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한다.
14	인터뷰하기	마무리 - 기록하기	• 지나온 자신의 경험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만의 스토리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15	통합하기	마무리 - 기록하기	• 기록해왔던 결과물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한다.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 전체를 보는 것은 학생들에게 중요한 통찰을 얻게 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맥락과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2017 다문화가족포럼 연계 학술대회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정책과 취업지원방향”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공동체 역할

서영우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수련관 관장)



2017 다문화가족포럼 연계 학술대회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정책과 취업지원방향”

토론 1

김수정 (평택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중도입국청소년의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진로 및 취업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

김수정

평택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명실 공히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가 한국 사회에서 건강하고 유능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국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으로 태어났으나, 출생 시부터 혹은 생애 초기부터 한국사회에서 성장한 다문화 가정의 아동과 비교하여, 동일하게 다문화 가정 자녀로 이해되나, 유소년기를 본국에서 보낸 후, 청소년기에 이르러 한국 사회에 정착해야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방안이 매우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논문 '중도입국청소년의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진로 및 취업을 중심으로' 논문은 이러한 중도입국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들에 관하여 살펴보고, 특히, 이들이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문제로 나타난 미래의 진로 설정과 관련한 적절한 지원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들의 자립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정책 방안 마련에 있어, 정책 대상에 적절한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중도입국청소년의 연령과 교육/취업 여부에 따른 분류체계 모델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저자가 언급한 바대로, 중도입국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정책마련이 아닌, 각각의 대상 별 특성 (혹은 needs)을 고려한 적합한 (혹은 맞춤형) 자립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주요한 기틀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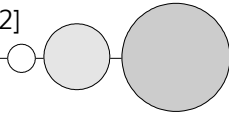
본 논문의 연구결과 및 논의는 향후 다음과 같은 점들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중도입국청소년들에게 보다 실효성 있는 자립 지원 방안 모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 논문의 저자가 언급한 대로, 중도입국청소년 그룹은 결코 단일성격의 집합체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중도입국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중도입국청소년으로 구분되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생태학적 맥락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결과들이 구체적으로 취합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다양한 생태학적 맥락에 놓여있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의 특성에 대한 논의와, 이들을 향한 자립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논문의 저자가 언급한 대로,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은 가정 및 학교체계에서의

지원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자립지원 방안 모색에 있어, 자립지원 주체를 세분화 하여 (정부 혹은 지역사회의 다문화 센터, 학교, 가정 등), 각각의 체계 안에서 어떠한 지원이 층을 이루어 중도입국청소년의 자립지원을 효과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모델이 제안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한국사회의 의식이나, 고유한 문화적 특성 중, 중도입국청소년의 자립을 방해하는 심리토착적인 요소는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 또한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중도입국청소년의 자립 지원 방안 모색에 한국사회내의 인식 개선 요소가 포함되어져야 할 것이다.



2017 다문화가족포럼 연계 학술대회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정책과 취업지원방향”

토론 2

오경희 (숲힐링연구소 라포레 소장)

‘중도입국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적합 직종과 정책 과제’에 대한 토론

오 경 희

숲힐링연구소 라포레 소장

이주민의 지속적 증가로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중도입국청소년은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부모의 국제결혼이나 이주 노동에 의해 한국으로 이주한 청소년으로, 다른 이주배경청소년보다 교육기회나 진로, 취업 등에서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적 노력과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면에서 ‘중도입국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적합 직종과 정책’에 관한 연구는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중도입국청소년이 진출 가능한 직업과 중도입국청소년의 특성과 장점을 활용하여 취업할 수 있는 적합한 직종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와 취업의 장애 요인을 탐색하고 이에 대한 취업 지원방안 등은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와 취업정책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와 취업 진출에 대해 느낀 점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1. 중도입국 청소년의 요구와 특성을 살린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입국배경과 학력, 경험 등 다문화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그 요구가 다양하고 복잡해진 만큼 이들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직업상담과 직업예비교육 등을 통해 이들의 적성과 특성을 발견하고 수요와 요구에 따라 수요별, 요구별, 능력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전달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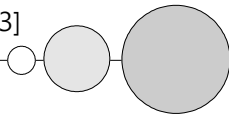
2. 훈련을 통한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장려함

중도입국청소년의 역량함양을 위해 직업훈련과 기술습득 등 직업훈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통해 교육기관과 지원기관, 지원인력 간의 역할분담 및 연계가 유기적으로 연결 되어 행정적 지원과 실질적 교육 등이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육을 통해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기업체나 공공기관, 민간단체, 지역주민, 종교단체 등의 참여를 장려한다

면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진출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다.

3. 컨트롤타워 시스템 형식의 직업관련 전문기관 필요함

중도입국청소년의 직업에 대한 시각을 확장하고 정보전달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면 구체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직업관련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과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다수가 다양한 지원제도에 관해 알지 못하거나 실제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또한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더라도 다양한 지원제도를 알지 못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연계시키지 않으면 예산낭비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쉽다. 따라서 직업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하나의 기관에서 이를 총괄하고 연계하여 실행과 점검, 평가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지원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017 다문화가족포럼 연계 학술대회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정책과 취업지원방향”

토론 3

최영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중도입국 청소년 진로·자립 지원현황 및 모형제시 토론문

최 영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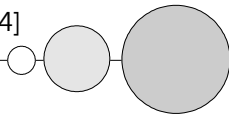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왜 중도입국인가? - 청소년, 이주민으로서의 정체성

이주할 당시 본인에게 '이주'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없는 이주의 유형을 '강제이주'라고 본다. 자신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이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놓여진 환경은 아마도 자발적인 이주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문제에 노출된다. 이미 어느 정도 성장한 상태에서 '낯선' 환경에 놓이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낯섦'은 '국가'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서도 온다고 한다. 이미 현장에서는 이들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제기가 되었으나, '청소년', '이주민', '1.5'세로서 정체성이 중첩되어 있는 이들을 위한 한국에서의 삶은 녹록치 않다. 또한 진로는 중도입국 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 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에게 있어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이다. 또한 산업화 시대까지의 진로모형과 모델은 그 '모델'이 주어질 만큼 유형화 될 수 있었지만, 현재 2017년 전 세계에서 떠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우리 모두에게 공포로 다가오며, 아마도 이 공포의 가장 큰 부분은 '일자리'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당장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많은 '일자리'가 대체되고, 소멸하고, 또한 현재에는 '일'이 될 수 없는 것들이 '일'이 있다고 하니, 이 불투명성이 가져오는 공포 또한 우리를 또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것은 '교육'의 영역에서 가장 많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될 것이고, 우리가 늘 언급하는 '이주민' 자녀들의 잠재력, 차별성, 역량 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현재보다는 더 많이 주어지지 않는 까라는 막연한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진로와 직업은 결국 우리의 삶이며, 그러기에 더 많은 고민과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단기 '프로그램'의 효과성 보다는 중·장기 계획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기에 앞서 앞으로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고민이 먼저 필요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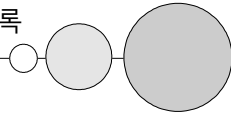
이와 별개로 강은이 선생님께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며, 현장의 문제들을 풀어내신 방안이라고 본다. 진로와 진학에 앞서, 불안정한 체류 문제 역시 이들을 위한 진로지원에 앞서 해결해야 하며, 제도권과 비제도권 교육으로 구체화한 것 역시 이들을 위한 필요한 정책 제언이다. 무엇보다도 전체적인 발표문에서 느꼈던 것은 현장의 고민들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다고 본다.



2017 다문화가족포럼 연계 학술대회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정책과 취업지원방향”

토론4

이은경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연구원)



2017 다문화가족포럼 연계 학술대회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정책과 취업지원방향”

부 록

1.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소개
2. 평택다문화대안학교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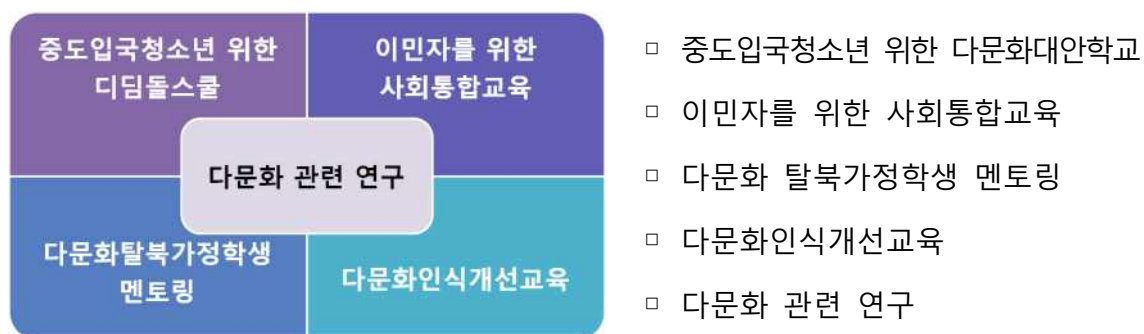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소개

☺ 설립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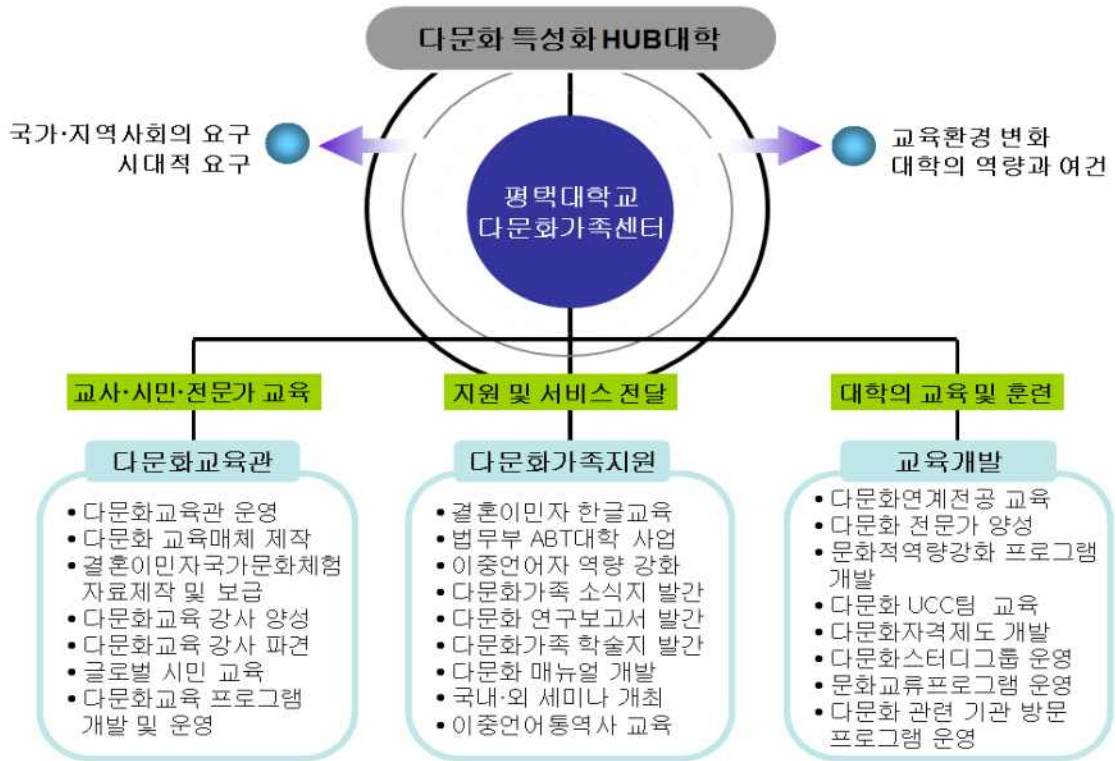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는 2006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인 「다문화가족 복지지원 전문 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대학 내에 설립되었다.

본 센터에서는 문화적 충돌이나 사회적 차별 없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한국 사회에 정착한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조사 사업과 아울러 다문화교육사업,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실,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평택다문화대안학교, 다문화·탈북가정학생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시대의 다문화특성화 HUB대학의 역할을 하고 있다.

☺ 주요사업 영역



[그림 1] 주요사업 영역



[그림 2]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사업

☺ 조직 및 기능

(1) 조직



(2) 구성인원

성명	직책.직위	담당업무
유진이	소장/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다문화가족센터 총괄
홍영균	고문/평택다문화대안학교 교장	다문화가족센터 고문
박종선	선임연구원	대외협력팀
송원일	연구원	교육연구팀
최보람	연구원	사업팀
김소영	평택다문화대안학교 교사	한국어 교사
송미애	평택다문화대안학교 교사	한국어 교사
신소영	평택다문화대안학교 교사	한국어 교사
황안드레이	평택다문화대안학교 교사	외국인 교사

☺ 센터 안내 - 다문화가족센터



• 센터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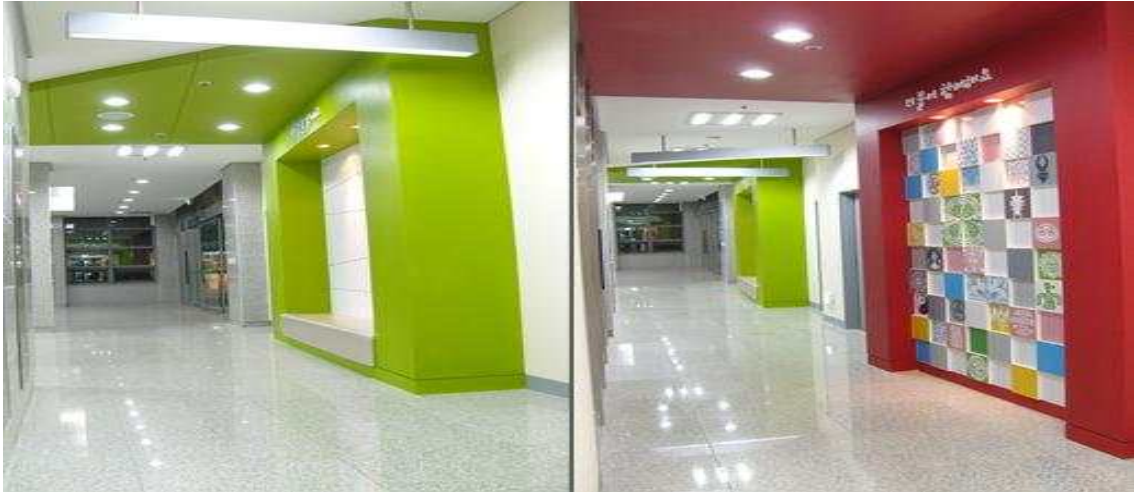
• 센터 입구



• 다문화 교육관 전체 평면도



• 다문화가족센터 사무실 1층



• 다문화 교육관 복도



• 다문화 교육관 <1>



• 다문화 교육관 <2>



• 다문화 교육관 <3>



• 다문화 교육관<4>

다문화가족센터 연혁

- 06. 08 ○ 다문화가족센터 설립
- 09 ○ Pyeongtaek International Day 2006 개최
- 10 ○ 다문화가족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 다문화가족센터 / 가족사회복지학회 공동 워크숍
- 11 ○ 다문화가족센터 개소기념 세미나
- 가족사회복지학회/다문화가족센터 공동 학술대회
- 외국인근로자지원 학술세미나 개최
- 07. 01 ○ 다문화 실습 및 제1차 전국 다문화 국내기관연수 및 해외연수
- 다문화 전공생 해외연수(일본, 베트남, 필리핀)
- 03 ○ 다문화가족센터 춘계학술대회 개최
- 외국대사 및 전문가 초청 국제심포지엄 개최
- 04 ○ 다문화 교재, 매뉴얼, 교과목지침서, 「다문화가족연구」 등 학술지 20종 발간
- 05 ○ 보건복지부, 2007년 「결혼이민자 생활안내」 발간
- 06 ○ 평택시청,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진행
- 07 ○ 교육인적자원부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 제2주기 선정
- 08 ○ 다문화가족센터/충남여성정책개발원/현대민족학회 학술대회.연구협약체결
- 10 ○ 평택시 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가족 축제 개최
- 경기여성전문네트워크 정책포럼.다문화가족센터 학술세미나 개최
- 11 ○ 평택시 다문화관계자 초청간담회
- 12 ○ 다문화실습 초청 간담회
- 다문화 해외연수 발대식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 다문화 UCC 제1기 교육 및 연수
- 08. 01 ○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
- 제2차 전국 다문화 국내기관연수 및 해외연수
- 다문화 해외기관 연수(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 사회복지사 1급 특강
- 02 ○ 이중언어 통역사 교육 및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실시
- 04 ○ 다문화사회의 전문성 강화와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2회 국제 심포지엄 개최
- 다문화가족센터/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한국사회복지관협회 공동워크샵
- 「다문화체험 및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사업」 삼성.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 다문화 예술심리치료 워크샵
- 다문화 전문가 자격제도 개발 워크샵
- 다문화 연계전공 설명회 및 동아리 축제(해단식)

- 제1차 팀티칭 시범강좌 실시
- <4Cs운동 : 아시아 영화제>
- 이중언어 통역사 프로그램 실시
- 다문화 가족상담 및 치료 연수
- 문화적 역량과 사회복지실천 워크샵
- 한국어 및 문화교육 체계화의 교과과정 위원회
- 학술지「다문화가족연구」제2집 발간
- 교내 국내 세미나
- 08. 05 ○ 평택시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실(경기도 지원)
- 경기도 다문화가족지원과 지역네트워크 구축전략 세미나
- 제1회 다문화가족사랑 걷기모금축제
- 06 ○ 다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콜로키움 개최
- 다문화 UCC 제2기 교육 및 연수
- 사회복지 및 다문화 실습 교육
-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 도서관 견학
- 제1차 콜로키움 개최
- 07 ○ 「국제결혼 사전정보 제공 프로그램」여성부/법무부/보건복지가족부 지원
- 다문화 관련 국내 인턴십 활동비 지원 프로그램
- Working volunteer 파견 프로그램 (몽골, 베트남)
- 08 ○ 이중언어자 역량개발을 위한 연수과정
- 인터그룹 다이얼로그 실시
- 다문화 관련 도서 및 영상자료를 통한 스터디 그룹
- 09 ○ 「다문화와 아동보호」 제2차 콜로키움 개최
- 경기도 외국인지원 관계자 연찬회, 「다문화사회의 외국인정책과 지역 간 협력방안 모색」경기도 지원
- 다문화 사회통합 ABT(Active Brain Tower)대학 선정
- 09 ○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한국전통놀이 축제 한마당”
- 경기도 외국인 지원 관계자 연찬회 개최
- 다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제2차 콜로키움 개최
- 10 ○ 1차 외국인 유학생과의 문화교류 프로그램
- 다문화가족과 현실치료 이론과 기법 워크샵
- 제2차 팀티칭 시범강좌 실시
- 한국의 외국인 인권 워크샵
- 11 ○ 목회자 및 다문화기관 실무자 워크샵
- 모자이크 바자회 개최
- 다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제3차 콜로키움 개최

- 다문화교육관 개관
- 다문화 해외연수 발대식 및 사전 교육
- (사)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와의 공동 세미나
<다문화 사회와 사회복지 교육의 역할> 개최
- 08. 12 ○ 다문화 가족복지 자격연수 과정
- 다문화 국내 기관 연수 실습 워크샵
- 다문화 동계 워크샵(석.박사 과정)
- 제2차 문화적 민감성 훈련 프로그램
-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양성과정
- 다문화 이해를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
- 09. 01 ○ 다문화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사회복지사 1급 대비 특강
- 다문화 기관 및 문화원 방문 프로그램
- 제3차 지정기관 집중 국내기관연수
- 02 ○ 다문화가족복지실습
- 한국행정학회.아시아행정포럼.다문화가족센터 공동 학술세미나
- 03 ○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경기도 소식지 *Happy family* 창간호 발간
- 04 ○ 2009 평택시 외국인주민 지원 실무자 워크숍
- 다문화인식개선 교육 강사 양성과정
- 05 ○ 2009 평택시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실 개강식
- 06 ○ 이중언어자 통역사 교육 실시
- 2009 전국 다문화가족지원네트워크 대회 실시
- 08 ○ 2009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하계 워크숍 실시
- 09 ○ 다문화전문상담원 양성 과정 실시
- 한국어교실 추석음식 문화체험 실시
- 평택시 움직이는 다문화School 다문화강사 양성 및 파견사업 실시
- 11 ○ 2009 다문화교육 평가 세미나
- 한국다문화가족학회 창립 학술대회 및 이주여성 책자 출판기념행사 개최
- 12 ○ 경기도 교육청 다문화교육매체 제작(다문화송, 세계의 전통 음식과 놀이)
- 경기북부다문화교육센터 "알기 쉬운 다문화교재" 개발
- 10. 02 ○ 평택시 움직이는 다문화School 다문화강사 제1차 보수교육 실시
- 03 ○ 2010 평택시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실 개강식
- 비전중학교 자원봉사 관련 협약 체결
- 04 ○ 기아대책과 함께하는 '행복 투게더' 다문화강사 파견
- 평택시 움직이는 다문화School 다문화강사 제2차 보수교육 실시
- 05 ○ 평택시 교육청 협약체결/ 육군군종실 협약체결

- 10. 06 ○ 다문화공연단(인형극, 연극) 양성 및 발표회
- 09 ○ 지역주민 다문화한마당 축제
- 10 ○ 경기도 다문화가정 부부 워크숍(2회)/ 육군 군종장교 워크숍
- 11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해과정 진행/ 2급 보수과정 진행
- 12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해과정
- 11. 01 ○ 법무부, 사회통합운영기관 선정 및 프로그램 실시
- 02 ○ 외환은행 나눔재단, 행복을 코디하는 다문화전문상담과정 선정
- 03 ○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경기도 소식지 Happy Family 3차년도 선정
- 04 ○ 육군군종 다문화전문가 2급 교육
- 06 ○ 외환은행 나눔재단, 행복을 코디하는 다문화전문상담 일반과정 실시
- 07 ○ 다문화 가정 컴퓨터 교육(KT지원)
- 08 ○ 경기도 다문화가정 부부 워크숍(2회)
- 09 ○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참가
- 국가 인권 위원회, 이주인권가이드라인 구축 공동연구 참여
- 10 ○ 외환은행 나눔재단, 행복을 코디하는 다문화전문상담 보수과정 개최
- 11 ○ 학부모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
- 12 ○ '중도입국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위한 아름다운 밤' 개최
- 외환은행 나눔재단, 행복을 코디하는 다문화전문상담 고급과정 실시
- 12. 01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다문화 전문가 2급 보수교육
- 02 ○ 다문화가족센터 동계 워크숍
- 행복을 코디하는 다문화전문상담 평가회 실시
- 다문화상담실 운영(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 2012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운영기관 선정(법무부)
- 03 ○ 중도입국청소년 지원사업 평택 Rainbow School 선정(여성가족부)
- 「디딤돌스쿨」 개교/ 다문화교육 강사 양성
- 04 ○ 2012 경기도 다문화가족소식지 'happy family' 발행(경기도)
- 05 ○ 2012 다문화가정 부부워크숍 개최(경기도)
- 06 ○ 2012 다문화·탈북학생 가정 멘토링사업 선정(교육부)
- 다문화교육관 인식개선교육 실시(평택지역 유치원, 초, 중학교)
- 07 ○ 평택 Rainbow School 여름학교 선정(여성가족부)
- 08 ○ 평택 Rainbow School 하반기사업 선정(여성가족부)
- 09 ○ 육군군종 다문화전문가 교육 실시(육군본부 군종실)
- 10 ○ 다문화청소년 과학문화 민간활동지원사업 선정(한국과학창의재단)
- 12 ○ 디딤돌스쿨 수료식 및 운영보고회
- 13. 01 ○ 다문화상담실 운영(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기관선정(법무부)/평택 Rainbow School 겨울학교

- 13. 03 ○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사업 선정(한국장학재단)
- 중도입국청소년 지원사업 평택 Rainbow School 선정(여성가족부)
- 04 ○ 가족형태 변화에 따른 이주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 경기도 청소년활동 우수프로그램 선정(경기도)
- 05 ○ 과학문화 민간활동 지원사업(한국과학창의재단)
- 인천지방법원 '다문화가정부부캠프' 실시(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 06 ○ 이주여성 '희망날개 합창단' 창단(한국여성재단)
- 07 ○ 평택 Rainbow School 여름학교 운영(여성가족부)
- 08 ○ 평택 Rainbow School 하반기 운영(여성가족부)
- 09 ○ 중도입국청소년 진로지원프로그램 '너의꿈을 잡아라'(외환은행나눔재단)
- 육군군종 다문화전문가 교육 실시(육군본부 군종실)
- 11 ○ 다문화사회 전문가 강사 대상 보수교육 실시(법무부)
- 12 ○ 디딤돌스쿨 수료식 및 운영보고회
- 14. 01 ○ 다문화교육관 사업다문화인식개선교육 실시(평택시 초, 중학교)
- 평택 Rainbow School 겨울학교 운영(여성가족부)
-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기관 운영(법무부)
- 03 ○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선정(한국장학재단)
- 중도입국청소년 지원사업 평택 Rainbow School 선정(여성가족부)
- 07 ○ 평택 Rainbow School 여름학교 운영(여성가족부)
- 조기적응프로그램 강사양성과정 실시(법무부)
- 08 ○ 평택 Rainbow School 하반기 운영(여성가족부)
- 09 ○ 육군군종 다문화전문가 교육(육군본부 군종실)
- 11 ○ 다문화사회전문가 강사 대상 보수교육(법무부)
- 12 ○ 디딤돌스쿨 졸업식 및 운영보고회
- 무지개청소년센터 평택레인보우스쿨 최우수기관 선정(여성가족부)
- 15. 01 ○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기관 운영(법무부)
- 평택 Rainbow School 겨울학교 운영(여성가족부)
- 02 ○ 이민자 조기적응지원센터 선정(법무부)
- 03 ○ 디딤돌스쿨 입학식(평택 Rainbow School 여성가족부)
- 다문화교육사업 실시
- 04 ○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북한이탈주민 세미나 개최
- 06 ○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선정(한국장학재단)
- 08 ○ 육군군종 다문화전문가 교육 실시(육군본부 군종실)
- 다문화청소년 멘토링 캠프(경기도)
- 10 ○ 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 강사 양성과정 시행
- "다문화와 동행" 다문화학술세미나 개최
- 16. 01 ○ 평택 Rainbow School 겨울학교 운영(여성가족부)

-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기관 운영(법무부)
- 16. 02 ○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법무부)
- 03 ○ 평택 Rainbow School 상반기 운영(여성가족부)
- 다문화교육사업 실시
- 04 ○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평택시)
-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선정(한국장학재단)
- 2016 다문화 서포터즈 운영
- 08 ○ 육군군종 다문화전문가 교육 실시(육군본부 군종실)
- 09 ○ 다문화가족센터 1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개최
- 12 ○ 다문화가족센터 워크숍 진행
- 17. 01 ○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기관 운영(법무부)
-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법무부)
- 02 ○ 평택 Rainbow School 상반기 운영(여성가족부)
- 04 ○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선정(한국장학재단)
- 중도입국청소년 진로지원프로그램 ; 무지개JOB아라' 운영
- 2017 다문화 서포터즈 운영
- 06 ○ 다문화 이해 · 인성 강사양성 과정 연수(안성교육지원청)
- 07 ○ 중도입국청소년 진로지원프로그램 ; 내-일을 JOB아라' 운영
- 08 ○ 2017년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지원사업; 사전프로그램 운영(1박2일)
- 평택 Rainbow School 하반기 운영(여성가족부)
- 09 ○ 2017년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지원사업; 현지프로그램 운영(9박10일)
- 다문화가족센터 학술세미나 개최

평택다문화대안학교

본 학교는 9-24세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 한국어교육과 함께 학령기 수준에 맞는 다양한 교과수업을 통해 학교제도를 이해하고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며, 청소년시기에 형성되어야 할 주요 발달과업인 사회성 개발, 자아 정체성 확립 등을 통해 덕·체·지의 교육목표를 추구하는 대안학교임, 2012년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디딤돌스쿨'로 개교하였고, 2017년 대안학교체제로 확대·개편하여 운영중이며 현재 60여명의 중도입국청소년들이 재학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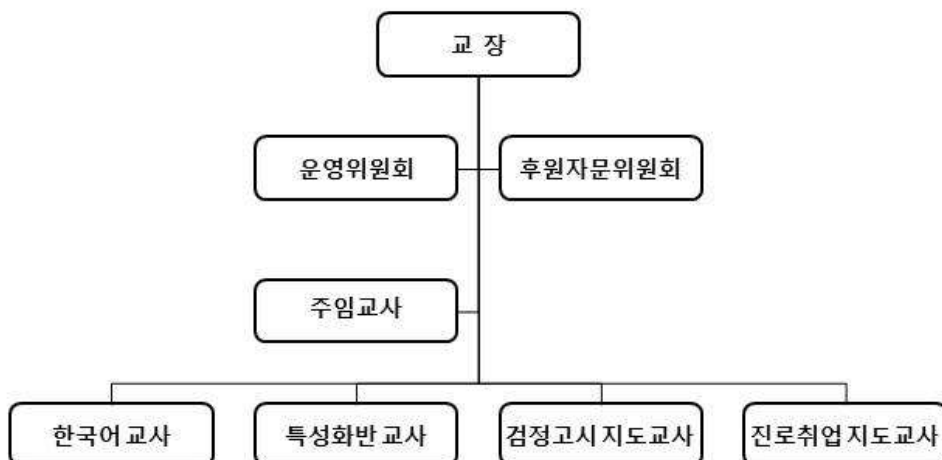
*이주배경청소년이란?

외국에서 성장하다 학령기에 다양한 이유로 청소년기 중도에 한국으로 입국하게 된 청소년

▣ 평택다문화대안학교 입학

- 대 상 : 다음에 해당하는 9-24세 이주배경청소년
 - 한국인과 재혼한 이주민 본국의 자녀
 -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청소년기에 외국에서 지내다 입국한 청소년
 - 외국인부모와 함께 입국한 청소년
 - 근로 및 학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청소년
 -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청소년
 - 한민족청소년(조선족·고려인)
- 교 육 비 : 무료(교재비 일부 부담)
- 신청방법 : 다문화가족센터(031.659.8199) 전화문의
평택다문화대안학교 담당자에게 방문하여 신청

▣ 평택다문화대안학교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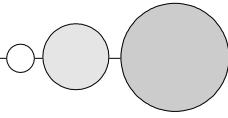
▣ 평택다문화대안학교 교과과정

시간	학급	월	화	수	목	금
09:30 - 12:30	입문반	한국어교육				
	기초반					
	초급반					
12:30 - 13:30		점심시간				
13:30 - 15:30	특성화반	예체능	영어	진로	한국사회 이해	IT교육
	검정고시	국어	과학수학	사회국사	도덕	국어
	진로취업	직업훈련	직업훈련	창업교육	직업훈련	경제교육

* 월 1회 야외체험활동, 진로체험 현장학습,

* 학기 중 1회 캠프

• 1학기 19주, 2학기 19주 수업운영



2017 다문화가족포럼 연계 학술대회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정책과 취업지원방향”

2017년 9월 28일 인쇄

2017년 9월 28일 발행

발행인 : 유진이

발행처 :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경기도 평택시 서동대로3825 평택대학교 제2피어선빌딩 107호

전화 / 031-659-8198(代)

인쇄처 : 한그래픽 전화 / 031-676-2806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